



기본 | 20-02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Linked to Innovation Cities

김은란, 서연미, 정유선

기본 20-02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Linked to Innovation Cities

김은란, 서연미, 정유선

■ 연구진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서연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양종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2,996명 규모이며, 이는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함. 공공기관 이전 후 2012~2017년 모도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 혁신도시 시·군 2 추진 과제 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부족하며,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간 연계성이 미비한 실정. 이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지자체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
- 3 사례분석을 통해 광역협력모델에서 원도심 재생까지 체계적·유기적 연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혁신체계 구축, 원도심 지역자산의 적극적 발굴과 문화·소비 공간으로의 전환, 교통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담보와 거버넌스 구축 등 시사점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이전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 공공기관 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등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 **(원도심 유휴자원의 활용)** 혁신도시 문화·소비수요에 대응한 원도심 자산 발굴 및 유휴자원 활용 시 기획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의 추가 수요 발생 시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의 활용도 검토
- 3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지역특성별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고, 스마트교통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가 필요, 투자의 단계화를 통한 실행력 마련
- 4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연계사업의 홍보 및 시범사례 제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는 대규모 신시가지 및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유희시설 발생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음. 혁신도시 모도시 및 인근 원도심의 쇠퇴 방지 및 재생 필요
-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존 2 추진방안’에서는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 추진과제로 지역대학,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구도심 연계 재생을 제시
-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한 영향 진단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 사례 분석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주요 개념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량 활용, 혁신도시-원도심의 물리적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성 강화, 원도심 유희자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재생’으로 정의

2.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 모도시 인구유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

-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2,996명 규모
- 혁신도시 인구 중 모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51%에 달하며, 해당 광역시·도의 주변 기초지자체에서 순유입 인구 26%, 수도권에서 순유입 인구 16%
- 혁신도시로의 순유출 인구가 가장 큰 모都市는 전북혁신도시(30,010명), 강원 혁신도시(11,290명), 충북혁신도시(10,934명)의 모도시로 나타남

그림 1 | 혁신도시 조성 전후 지역별 순유입 인구
(2005~2011년, 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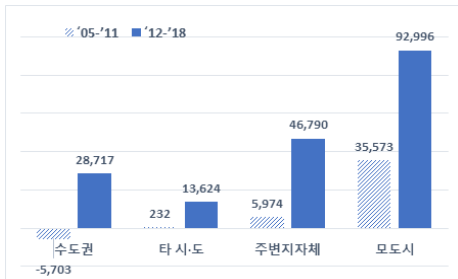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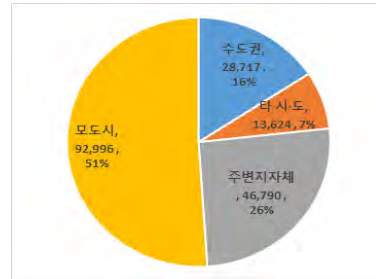


그림 2 |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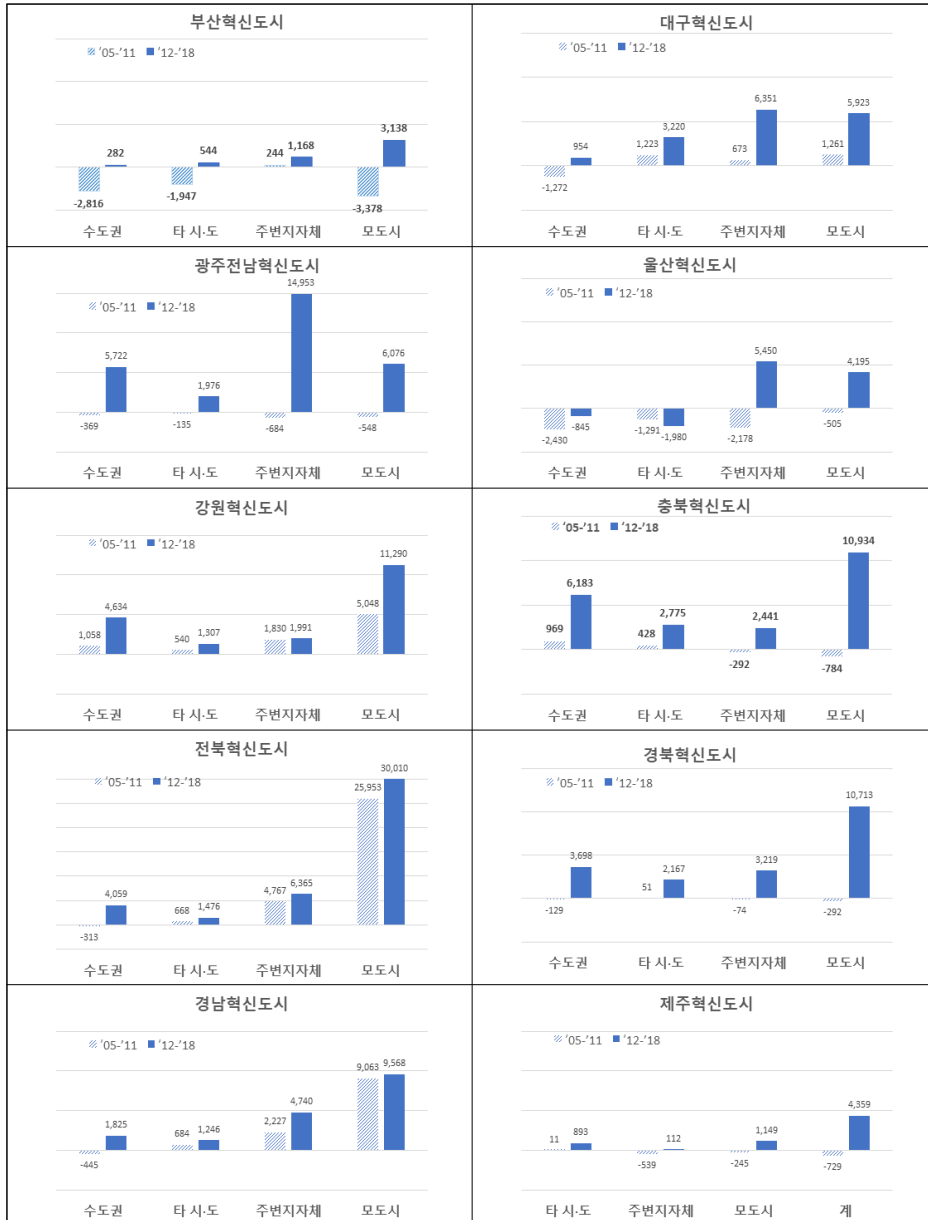


자료: (좌, 우)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 혁신도시별 모도시 인구유출

-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부산은 모도시에서의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구와 울산은 모도시보다 해당 광역시 내 주변 구·군에서의 순유입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
-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는 모도시에서의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주변 지자체에서의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인구는 모도시인 나주보다는 인접한 광주광역시로부터 더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3 |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변화(2005~2011년, 2012~2018년)



주: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타 혁신도시와 달리 2012년 이후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인구유출이 발생함
 자료: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 혁신도시 입지특성별 모도시 인구변화

- **(대도시 입지형)**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 등은 사실상 대도시 생활권에 포함
-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형)**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로 개발된 경남, 제주 혁신도시는 관할 시·도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모도시 비중이 높은 지역
 -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모도시(진주) 쇠퇴가 진행
 - 반면, 제주 혁신도시 경우 모도시(서귀포)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측면에서는 양호한 지역
-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으로 개발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혁신도시의 경우 다소 격차가 있으나 모도시에서의 혁신도시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모도시 인구감소가 나타남

표 1 |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공간 위계와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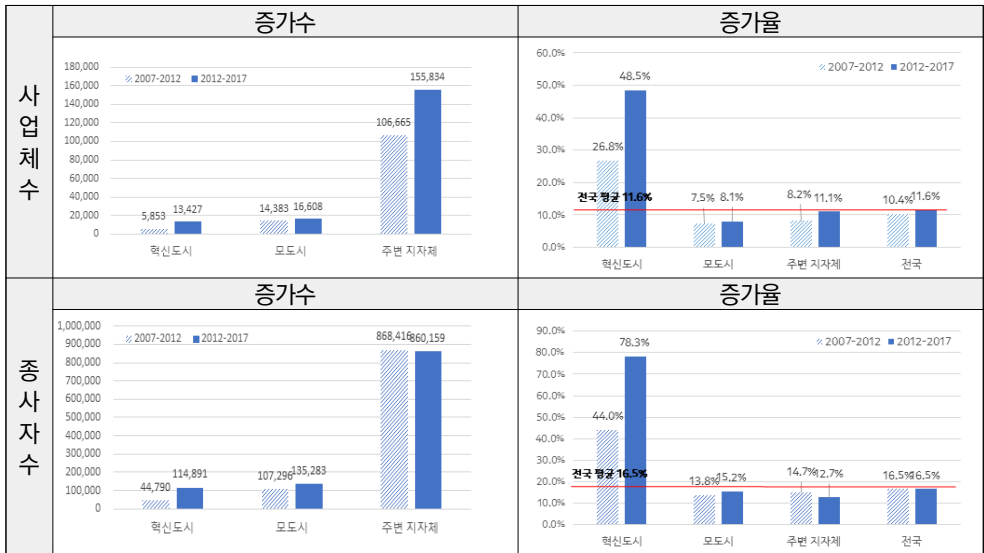
구분		특징	대도시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중소도시 신도시형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공간 위계상 특징	대도시 입지형	대도시생활권에 포함	●	●	●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형	중소도시에 인접하여 사실상 모도시 생활권				●	●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	중소도시와는 거리가 있어 모도시와의 생활 권 연계가 필요한 지역						●	●	●	●	●
혁신도시 순유입지역 비중 1순위	모도시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 모도시에 집 중적으로 발생	●			●	●		●	●	●	●
	주변 지자체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 모도시에 국 한되지 않고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침		●	●			●				
2012~ 2018 모도시 인구변화	인구증가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변 화에도 불구하고 모도시 인구성장					●				●	
	인구감소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변 화에 따른 모도시 인구감소	●	●	●	●		●	●	●		●
2012~ 2018 관할 시·도 인구변화	인구증가	모도시 인구성장에 긍정적 영향			●	●	●		●			
	인구감소	모도시 인구성장에 부정적 영향	●	●					●		●	●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p.139.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성장 추이

-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2012~2017년 혁신도시 모도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7~2012년 대비 다소간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2017년 모도시 소재 사업체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11.6%), 주변 지자체(11.1%)에 비해 낮은 수준
 -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 대비 다소 증가(2007~2012년, 7.5% 증가)
- 동 기간 모도시 소재 종사자수 증가율은 15.2%로 전국 평균(16.5%)보다는 낮으나, 주변 지자체(12.7%)에 비해 높은 수준
 -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 대비 다소 증가(2007~2012년, 13.8% 증가)

그림 4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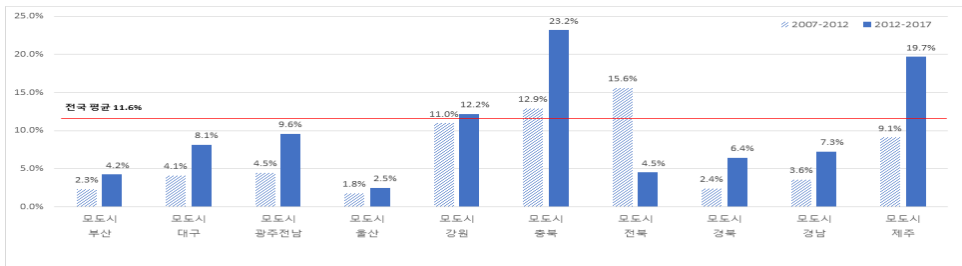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 10개 혁신도시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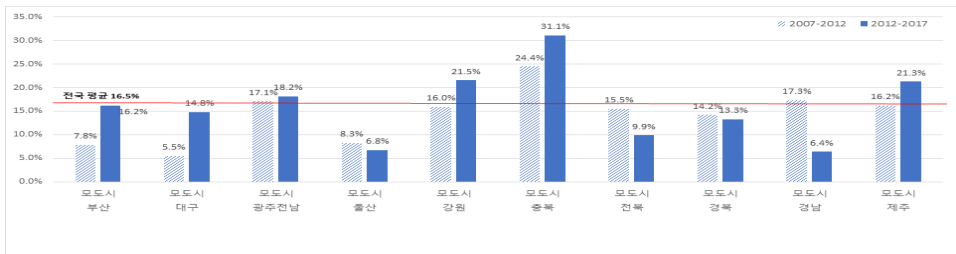
- 혁신도시 조성이 대부분 모도시의 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
- 2012~2017년 동안 모도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가율 변화를 보면, 2007~2012년 대비 기업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전북을 제외한 9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6개에 불과
- 또한 2012~2017년 전국 평균 대비 기업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3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4개에 불과
- 동 기간 모도시 기업과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 곳은 충북(23.2%, 31.1%), 제주(19.7%, 21.3%), 강원(12.2%, 21.5%), 광주·전남(9.6%, 18.2%) 등의 순

그림 5 | 모도시 사업체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6 | 모도시 종사자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7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종사자수 증감비율(2007~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관계: 기업 및 일자리 변화

표 2 | 혁신도시와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구분		기업 및 일자리 증가순
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현황		· 경남(355개사), 광주·전남(328개사), 부산(151개사), 대구(129개사)
	혁신도시 내 유치	· 경남(355개사), 광주·전남(242개사), 부산(142개사), 대구(129개사)
	혁신도시 외 유치(모도시)	· 광주·전남(55개), 부산(9개), 경북(3개), 전북(2개)
혁신도시(행정동) 기업 및 일자리 증가: 2012~2017년		· 전북(3,159개, 21,874명), 부산(2,296개, 18,600명), 광주·전남(1,570개, 13,556명)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2012~2017년 (전국 평균 11.6%, 16.5%)		· 충북(23.2%, 31.3%), 제주(19.7%, 21.3%), 강원(12.2%, 21.5%), 광주·전남(9.6%, 18.2%)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pp.30~77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동반성장: 광주·전남
 -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내 기업 및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였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모도시(나주)와 주변 지자체(광주)에도 유치
- 혁신도시 성장, 그러나 모도시 파급력은 미진: 경남, 대구, 부산, 전북
- 모도시 성장, 그러나 혁신도시의 파급력은 미비: 충북, 제주, 강원
 -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는 많지 않거나 전무한 상태이지만,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 혁신도시와 모도시 모두 어려움: 울산, 경북
 - 울산과 경북은 혁신도시 내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고, 또한 모도시의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 전국 및 주변 지자체 대비 매우 저조

□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 쇠퇴 현황과 파급효과

표 3 |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동지역) 쇠퇴 현황과 파급효과

입지 특성	혁신 도시	혁신도시 위치	원도심 쇠퇴 현황원도심 쇠퇴현황	혁신도시 파급효과
			■ 혁신도시 경계 ■ 2부분 쇠퇴 ■ 3부분 쇠퇴	
대도시 입지형	부산	해운대구 부도심권 (신개발지)		-
		남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영도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대구	동구 도심 외곽		혁신도시+각종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인구유출 도심부 대규모 유흥지 및 이전적지(경북도청 이전, k-2 군공항 이전, 두류정수장 폐쇄, 대구교도소 이전 등)를 활용한 도시재생 필요
		울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중소 도시 신사가 지형	경남	진주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제주	서귀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입지 특성	혁신 도시	혁신도시 위치	원도심 쇠퇴 현황원도심 쇠퇴현황	혁신도시 파급효과
			혁신도시 경계 2부분 쇠퇴 3부분 쇠퇴	
중소 도시 신도시 형	광주· 전남	나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강원	원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충북	진천· 음성 ^{주)} 도심 외곽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군지역에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중심지 생성
	전북	전주 완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경북	김천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주: 군지역의 경우 인구가 집적된 동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도심 분석에서 제외
 자료: 김천시. 2015; 나주시. 2017a; 대구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2015; 완주군. 2019; 울산광역시. 2015; 원주시. 2019; 전주시. 2019; 진주시. 20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 (혁신도시 시즌 2의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방향)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에서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이 5대 추진과제 중 하나. 2019년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향의 4대 추진과제는 살기 편한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양성·채용, 추진동력 강화로 조정되었으며,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은 살기 편한 혁신도시 추진과제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들어감
-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방안 추진 현황)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문화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농림부), 발전기금 조성 유도과 의무화 등을 추진
- (원도심 재생 관련 공모사업) 도시재생 뉴딜, 새뜰마을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등을 시행

□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생발전 부문 추진 과제 중 2018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2019년 예산투입 계획 중인 사업은 18개임. 이 중 도시재생사업은 7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3개임
- (도시재생사업) 2019년 현재까지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도시재생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 선정됨. 공모 선정된 28개 도시재생사업 중 5개 사업만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인력양성 및 협업사업을 추진(광주를 포함하면 6개)
- (새뜰마을사업)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에서 총 13개 새뜰마을사업이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 내용 중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것은 미비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선정됨

그림 8 |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그림 9 | 혁신도시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자료 : (좌) 국토교통부. 2013; 국무조정실. 2016, 2017, 2018, 2019a, 2019b.

(우) 지역발전위원회. 2015, 2016; 국토교통부. 2017b, 2018d;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2019.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제도개선 과제

- (중앙정부 차원) 혁신도시 시즌 2의 추진과제 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초점이 전략적으로 축소 →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 필요.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간 연계성 확보
- (지자체 차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공기관 참여 유도, 지자체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

4.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 사례 분석

□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연계 사례: 세종시 - 조치원 원도심)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2014)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종 충청권 상생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시(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연구)
- 세종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5개 권역을 구분하여 기능을 구상하고 행정복합도시(신도시)와 연계방안을 제시하였고, 원도심인 조치원은 “청춘

조치원 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거점지역으로 육성

-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5)에서는 조치원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활동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소집중형 도시재생전략 마련. 중부생활권 조치원을 특화방안 제시
- 세종시 경제중심축 육성,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유인과 시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목표년도 2025년)

□ 지역 혁신 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 2019년 선정된 부산 영도구 대평동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제안)
-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동삼지구의 해양과학기술과 센텀지구의 영상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평동 수리조선산업 고도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 중 검토 결과, 15개 우수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이 9개로 자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들이 명확한 콘텐츠를 제시

□ 문화·소비공간으로써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청춘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공장 등 원도심의 유희부지를 새로운 예술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인 사업
-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나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 나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사례

- 교통인프라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투자를 단계화할 필요
- 초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 장기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하는 방향으로 실행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 유도
-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사례: 세종시-조치원 원도심 BRT 연계 계획)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연계되어 있으며 파급효과도 크므로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혁신도시와 광역교통거점 연계를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검토 사례: 충북혁신도시-KTX 연계 방안) 광역교통 연계성이 취약한 충북혁신도시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방안을 마련

5.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 기본방향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한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전략 도출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전략 도출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 강화
-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쇠퇴 예방
-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 제도개선 방안

- (이전 공공기관특성과 역량 활용)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이전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 (원도심 유희자원의 활용) 혁신도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원도심 유희부지

및 유희공간 활용, 원도심의 문화역사적 자산 활용, 혁신도시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 기획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방안 검토

-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 광역교통거점, 모도시(원도심) 간 교통연계성과 수요 분석, 혁신도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전략 모색,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혹은 한시적으로 새로운 공모 유형 추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쇠퇴 원도심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연계가능 사업에 대한 시범사례 제시와 홍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필요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4.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1. 혁신도시 현황 및 분석 방법	17
2. 모도시 인구유출	23
3.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32
4.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원도심 쇠퇴 진단	46
5.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이슈	71

제3장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77
2.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92
3. 정책적 한계와 제도개선 과제	103

제4장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107
2.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109
3.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116
4.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희공간의 활용 사례	133
5.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 사례	141
6.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의 시사점	146

제5장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151
2. 이전 공공기관 역량 활용 방안	153
3. 원도심 유희자원의 활용 방안	157
4.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159
5.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16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 제언	17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7

참고문헌	179
SUMMARY	185
부 록	18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10개 혁신도시 입지여건	19
〈표 2-2〉 분석대상 지역의 조작적 정의	21
〈표 2-3〉 10개 혁신도시의 공간적 범위	22
〈표 2-4〉 10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23
〈표 2-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지자체 인구성장 추이	25
〈표 2-6〉 혁신도시로의 모도시 순유출 인구	27
〈표 2-7〉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28
〈표 2-8〉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공간 위계와 인구변화	31
〈표 2-9〉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 현황	32
〈표 2-10〉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규모	34
〈표 2-11〉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종전소재지	34
〈표 2-12〉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규모	35
〈표 2-13〉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종전 소재지	36
〈표 2-14〉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현소재지	36
〈표 2-1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사업체수 변화	39
〈표 2-16〉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종사자수 변화	40
〈표 2-17〉 혁신도시와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44
〈표 2-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법적 기준	46
〈표 2-19〉 혁신도시별 소재 지자체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
〈표 2-20〉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49
〈표 2-21〉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쇠퇴 현황 및 혁신지구 위치	50
〈표 2-22〉 부산 재생권역 구분 및 특성	51
〈표 2-23〉 울산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조	52
〈표 2-24〉 대구 유희부지 및 이전적지, 도시재생권역	55
〈표 2-25〉 진주시 공간구조 변화와 원도심 쇠퇴	56
〈표 2-26〉 진주시 동단위 쇠퇴 분석결과	57

〈표 2-27〉 ‘진주성, 진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58
〈표 2-28〉 제주시 도시재생권역, 쇠퇴 현황, 혁신도시 입지	59
〈표 2-29〉 김천시 혁신도시 위치, 도심 쇠퇴현황	62
〈표 2-30〉 원주시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	64
〈표 2-31〉 원주시 원도심 쇠퇴 현황	65
〈표 2-32〉 전주시 생활권 현황 및 중심도심	66
〈표 2-33〉 전주시 원도심 쇠퇴현황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67
〈표 2-34〉 혁신도시 입지특성별 원도심 (동지역) 쇠퇴현황과 파급효과	69
〈표 3-1〉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향	78
〈표 3-2〉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과제와 이행계획	78
〈표 3-3〉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수정내용	79
〈표 3-4〉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	79
〈표 3-5〉 2019년 하반기 지원·선정된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80
〈표 3-6〉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81
〈표 3-7〉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82
〈표 3-8〉 전북혁신도시 상생기금 운영 사례	82
〈표 3-9〉 뉴딜사업의 4대 목표와 5대 추진과제	83
〈표 3-10〉 뉴딜사업의 다섯 가지 유형	83
〈표 3-11〉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내용	84
〈표 3-12〉 활성화계획 평가 주요 가감점 요소	85
〈표 3-13〉 생활 SOC 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87
〈표 3-14〉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 지역발전지원 사업 리스트	89
〈표 3-15〉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 대상 - 혁신도시 모도시	90
〈표 3-16〉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현황 - 혁신도시 모도시	91
〈표 3-17〉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현황 - 혁신도시 모도시	91
〈표 3-18〉 2019년 상반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선정 결과	93
〈표 3-1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중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	94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20〉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 사업개요	95
〈표 3-21〉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구역 현황	97
〈표 3-22〉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 사례	99
〈표 3-23〉 혁신도시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102
〈표 4-1〉 사례 개요	108
〈표 4-2〉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지역상생발전계획	109
〈표 4-3〉 스마트 에너지·농업·콘텐츠 클러스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상	111
〈표 4-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 지역상생발전계획	112
〈표 4-5〉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 인프라 구축전략	114
〈표 4-6〉 이전 공공기관 혁신역량 활용 사례	116
〈표 4-7〉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우수사례	125
〈표 4-8〉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개요	133
〈표 4-9〉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134
〈표 4-10〉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사례	141
〈표 4-11〉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 중 원도심 관련 계획	143
〈표 5-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152
〈표 5-2〉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교통연계 현황 및 개선방안	162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10개 혁신도시 현황	7
〈그림 1-2〉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10개 혁신도시 위치	18
〈그림 2-2〉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23
〈그림 2-3〉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추이	24
〈그림 2-4〉 혁신도시 관할 광역시·도 인구성장 추이	24
〈그림 2-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	26
〈그림 2-6〉 혁신도시 조성 전후 지역별 순유입 인구	27
〈그림 2-7〉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	27
〈그림 2-8〉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변화	29
〈그림 2-9〉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입주 현황	33
〈그림 2-10〉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의 고용규모	33
〈그림 2-11〉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 고용규모	35
〈그림 2-12〉 혁신도시 사업체수 변화	37
〈그림 2-13〉 혁신도시 종사자수 변화	37
〈그림 2-14〉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38
〈그림 2-15〉 모도시 사업체수 증가율	41
〈그림 2-16〉 모도시 종사자수 증가율	41
〈그림 2-17〉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 증감비율	42
〈그림 2-18〉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종사자수 증감비율	43
〈그림 2-19〉 울산 중구의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위치	53
〈그림 2-20〉 대구 읍·면·동 인구분포 변화	54
〈그림 2-21〉 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 후보지	55
〈그림 2-22〉 나주시 동지역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입지	60
〈그림 2-23〉 김천시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전략	63
〈그림 3-1〉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87
〈그림 3-2〉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개념도	88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3〉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93
〈그림 3-4〉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98
〈그림 3-5〉 혁신도시별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101
〈그림 3-6〉 혁신도시별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현황	102
〈그림 4-1〉 2030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113
〈그림 4-2〉 청춘조치원 개발계획도	115
〈그림 4-3〉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강강이마을과 주변 자원	118
〈그림 4-4〉 지역 자산(창고군) 및 지역경관자산을 활용한 영도 도시재생사업	119
〈그림 4-5〉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121
〈그림 4-6〉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방안	122
〈그림 4-7〉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3개 혁신지구와 연계	123
〈그림 4-8〉 지역기업 자판기 사업 내용	127
〈그림 4-9〉 스마트 클린버스 승강장	129
〈그림 4-1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30
〈그림 4-11〉 클라우드 펀딩 사업	132
〈그림 4-12〉 원도심 폐공장 현황	135
〈그림 4-13〉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136
〈그림 4-14〉 조치원 정수장 현황	136
〈그림 4-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137
〈그림 4-16〉 폐산업시설(수원지정수장) 문화재생사업 종합구상도	137
〈그림 4-17〉 조 치원 문화정원 설계, 내부사진, 프로그램	138
〈그림 4-18〉 나주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139
〈그림 4-19〉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도	143
〈그림 4-20〉 행복도시권 광역 BRT 종합계획도	143
〈그림 4-21〉 충북혁신도시-오송역 연계 현황	144
〈그림 4-22〉 요일별 탑승인원	145
〈그림 4-23〉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	145

〈그림 5-1〉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행량 추정 예시	160
〈그림 5-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버스 외부 디자인	163
〈그림 5-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64
〈그림 5-4〉 스마트챌린지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165
〈그림 5-5〉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167

1

CHAPTER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1
- 4. 연구의 기대효과 | 13

서론

국가균형발전 신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화되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상생발전의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2019년 12월 기준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 12 이전)을 마지막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모두 이전이 완료되었다.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는 지방세 수입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의 점진적 증가 등으로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지방세는 2014년 2,128억 원, 2016년 4,5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¹⁾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2년 8%, 2014년 10.2%, 2016년 13.3%,

1) 2016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토지 취득 및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일회성 납부세액(취등록세)이 감소하였다. 이에 지방세도 2018년 3,813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4,228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b, 혁신도시 통계자료, 12월 31일)

2018년 23.4%로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2019b).

반면 혁신도시 시즌1의 한계는 혁신도시 정책이 기관 이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혁신 도시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한 당초의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주변 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구도심이 쇠퇴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고 파급시키기 위한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에는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상생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 혁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혁신도시에서는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잡았다. 또한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지역대학,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구도심 연계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 방지 및 재생 필요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는 모도시의 외곽에 대규모 신시가지 및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유희시설 발생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는 신시가지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군), 경북(김천) 혁신도시는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특히 전남광주, 강원, 전북, 경북 혁신도시는 모도시에서의 인구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혁신도시-원도심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쇠퇴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사업의 경우 쇠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개발로 모도시로부터 인구가 이동하므로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의 원인은 상당 부분 도시외곽의 신도시로 건설된 혁신도시로 인구이동의 영향

이 크므로,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인근 원도심의 유희시설 및 부지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 상생발전 전략 필요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중요한 지역 혁신자산을 보유하고 된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들의 특성 및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연계하여 원도심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혁신도시-원도심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 원도심 유희자원 활용 등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한 영향을 진단한다.

둘째,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주요 개념

□ 혁신도시의 정의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춘 미래형도시’를 말한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

□ 도시재생의 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혁신도시-원도심 물리적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성 강화, 원도심 유흥자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재생’으로 정의한다.

2)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10개 혁신도시와 관할 광역사도(11개)를 공간적 분석 범위로 한다.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원도심 연계 재생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0개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가 소재한 관할 광역사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림 1-1 | 10개 혁신도시 현황



자료: 저자 작성.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의 기준년도는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

(3) 내용적 범위

□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실태 분석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모도시의 인구유출, 기업과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여 원도심 쇠퇴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인구, 산업, 물리적 환경 등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 현황을 분석하여,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재생의 과제를 도출한다.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도시-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원도심 재생 정책 방향과 지자체 차원의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분석하여, 정책적 한계 검토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한다.

□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역 자산, 공공기관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재생 사례 검토한다. 특히, 세종시 등을 포함한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지역상생 발전전략 및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 전략 수립 사례,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문화·소비공간으로써 원도심 유희공간의 활용 사례, 혁신도시 및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접근성 강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기본 원칙을 도출한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 강화,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쇠퇴 예방,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중앙정부 혁신도시-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중앙정부 원도심 재생관련 사업을 고찰한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이행현황 및 모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원도심 재생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한다.

(2) 통계분석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와 모도시 간의 인구 유출입과 기업 및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모도시 인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혁신도시별 인근 원도심 쇠퇴 분석은 인구, 산업, 건축물 노후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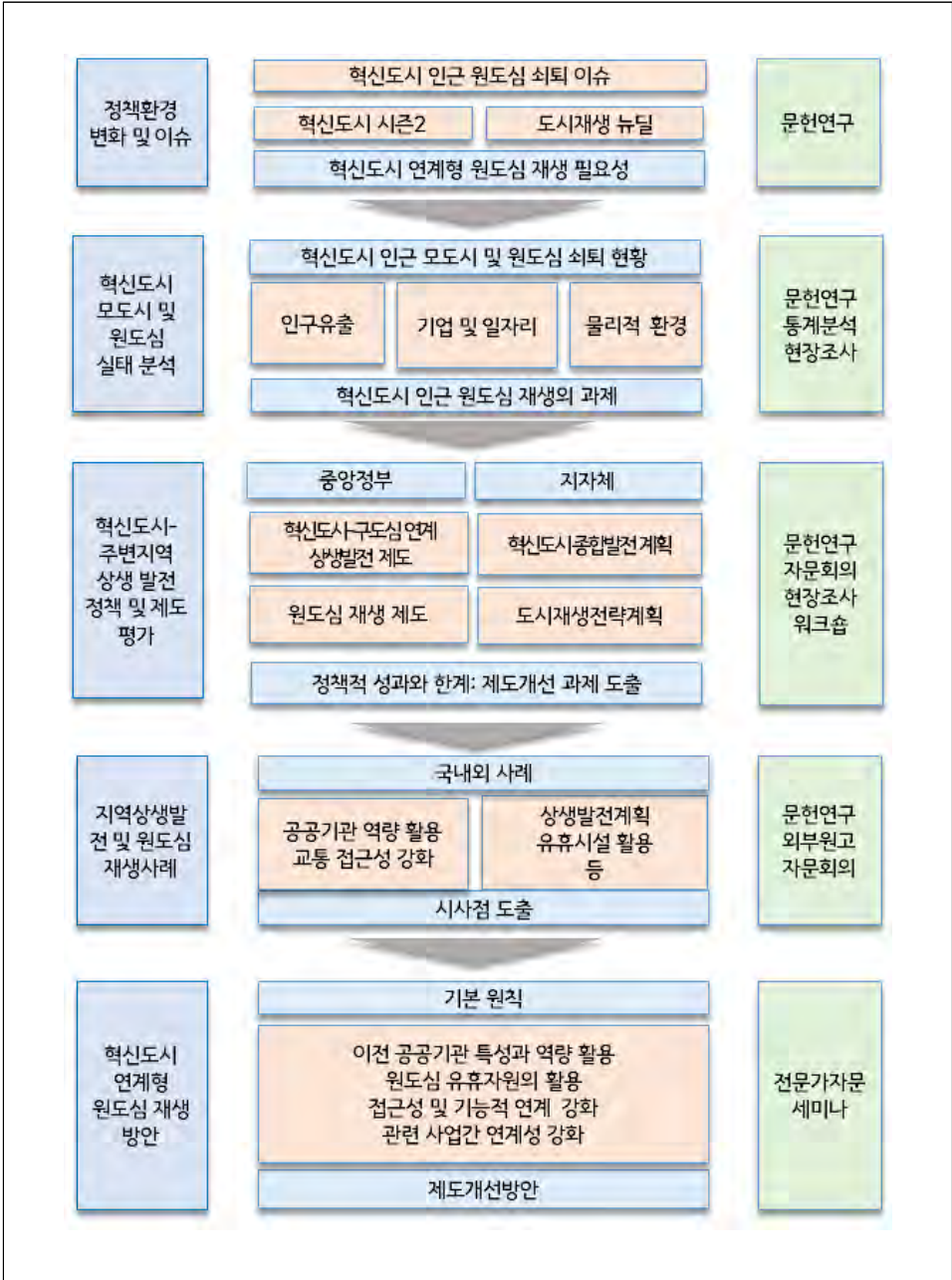
(3) 현장조사 및 인터뷰

혁신도시 10개 중 신도시, 신시가지형을 중심으로 모도시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조사한다. 혁신도시별 종합 발전계획 및 사업 현황 현장을 조사하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담당자, 도시재생 전문가, 공무원 등 면담하여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관련 이슈를 도출한다.

(4) 외부 전문가 및 지역연구기관 자문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전략,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위해 대학 및 지역연구원의 자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구 유출과 원도심 쇠퇴가 큰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2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에 관련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혁신도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정책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혁신도시 인구 및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활성화,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혁신도시 정책 초기부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발전효과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5),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국토교통부, 2015)가 진행되어 왔다.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및 정주여건에 대한 연구(윤영모 외, 2017),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초기 연구(김진범 외, 2017)부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2018c & 201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정책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연구(국토교통부, 2014 & 2016)도 이루어졌다.

도시재생 및 원도심 재생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 도시산업과 재생, 도시국공유지 및 유희시설의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연구로는 이왕건 외(2017)의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과 서민호 외(2018)의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등이 있다. 도시경제산업과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로는 권규상(2018)의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와 김은란 외(2014)의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등이 있다. 국공유지 및 유희시설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이승욱 외(2018)의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와 박소영 외(2016)의 ‘도시 내 국·공유 유희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신우화·신우진(2017)의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성과관리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가 있다.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국토교통부(2019c) - 연구자: 윤영모 외 - 연구목적: 2018~2022년 5년간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 및 사업계획 제시	- 현황 및 여건 분석 - 지자체, 지역연구단과 TF 구성 및 워크숍 - 관련 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토론회	-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을 위한 전략 도출 -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여가, 교통체계 등 정주환경 조성방안 - 스마트시티 특화모델 등 구축 지원 - 지역인재 양성 전략 - 혁신도시-인근 지역 간 상생발전 전략 도출 10개 혁신도시별 발전 전략
	2	- 과제명: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자: 윤영모 외(2017) - 연구목적: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분석하고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3	- 과제명: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 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 발주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5) - 연구자: 권영섭 외 - 연구목적: 이전한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지역경제에 미친 유무형적 효과 검증	- 문헌연구 - 공공기관 조사 - 설문조사 - 통계 분석	- 공공기관 이전의 국내외 사례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효과 측정 -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4	- 과제명: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연구자: 서민호 외(2018) - 연구목적: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고려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 도출 및 체계 제언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공간분석 - 협동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재생 뉴딜 여건·실태분석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사례분석 - 컴팩트-네트워크 지역거점 조성방안 - 쇠퇴 심각지역 대응방안 - 지역 주도 사업 추진방안 - 법제도 개선방안
	5	- 과제명: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연구자: 김은란 외(2014) - 연구목적: 창조산업계층 유치 및 육성과 연계한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문헌조사 - 통계 분석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도시특성별 창조산업-창조계층 도출 -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입지요인 -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 분석 -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국내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
본 연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원도심 재생전략 설정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위탁/협동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실태분석	-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원도심 쇠퇴 영향 진단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 원도심 재생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혁신도시 관련 선행연구는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거나,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혁신도시가 주변지역(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통한 원도심 쇠퇴 예방 및 처방은 미흡하다.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 유희시설 활용, 성과지표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나 혁신도시,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개발유형별로 혁신도시가 모도시(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처방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재생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키워드는 혁신도시,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 상생발전이다.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혁신도시로 인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현황,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과제, 상생발전 전략 및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높은 관심으로 본 연구결과가 2020년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요청으로 연구의 중간결과를 두 차례 발표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가 2019년 11월 19일에 개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와 전라남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주최한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의 요청으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위해 보고서 초안을 요청하여 이를 공유하였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구 측면과 일자리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모도시 및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성과를 정량적 결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먼저, 모도시 인구유출은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모도시로부터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를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기업도시 및 행정복합중심도시와 같은 정책적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HAPTER 2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 1. 혁신도시 현황 및 분석 방법 | 17
- 2. 모도시 인구유출 | 23
- 3.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 32
- 4.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원도심 쇠퇴 진단 | 46
- 5.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이슈 | 71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본 장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쇠퇴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2012년을 기준으로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 현황을 분석하여 원도심 재생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혁신도시 인구 분석결과 혁신도시 인구의 51%는 모도시에서 유입된 인구로 분석되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모도시 소재 사업체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주변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입지특성별로 원도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소재 혁신도시는 원도심 재생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와 더불어 다양한 외곽개발의 영향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새로운 기능과 수요에 따른 공간재편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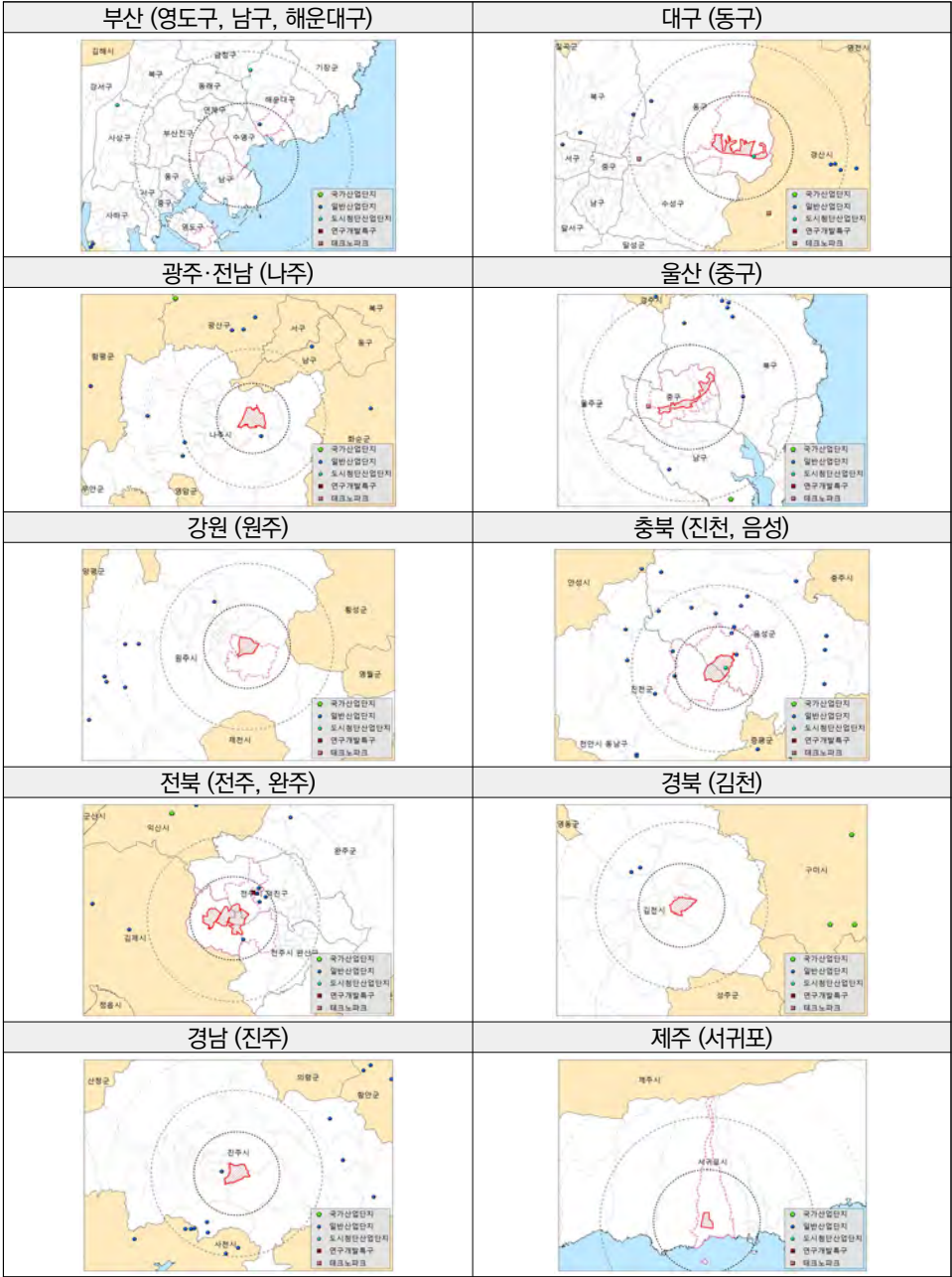
1. 혁신도시 현황 및 분석 방법

1) 혁신도시 입지여건

10개의 혁신도시 중 3개가 대도시에 입지하였고, 7개의 혁신도시는 중소도시 내 신시가지 혹은 도시 외곽의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는 혁신도시가 도시 내에 입지하였고,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는 신시가지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군), 경북(김천) 혁신도시는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중소도시 신도시에 개발된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남, 강원 혁신도시 등은 혁신도시가 모도시 원도심(시청)으로부터 7~1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도시 신도시로 개발된 광주·전남, 충북, 경남 혁신도시 순으로 관할지자체 총인구 대비 혁신도시 인구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에 입지한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관할지자체 대비 혁신도시 인구 비중이 낮다.

그림 2-1 | 10개 혁신도시 위치



자료: 국토교통부, 2018c.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촉진방안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체계 구축. pp.67-71.

표 2-1 | 10개 혁신도시 입지여건

혁신도시	시청과의 거리	계획인구/ 모도시인구	입지유형	총인구 대비 혁신도시 인구비중
부산 영도구· 남구·해운대구	2~4km 이내 ^{주)}	7천 명/350만 명	대도시 재개발형	0.2%(부산)
대구 동구	10km 이내	2만 2천 명/248만 명	대도시 신시가지형	0.9%(대구)
울산 중구	4km 이내	2만 명/117만 명	대도시 신시가지형	1.7%(울산)
경남 진주	5km 이내	3만 8천 명/35만 명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11.0%(진주)
제주 서귀포	2km 이내	5천 명/17만 명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3%(서귀포)
광주·전남 나주	9km 이내	4만 9천 명/10만 명	중소도시 신도시형	46.9%(나주)
강원 원주	7km 이내	3만 1천 명/34만 명	중소도시 신도시형	9.2%(원주)
충북 진천·음성	13~16km 이내	3만 9천 명/17만 명	중소도시 신도시형	23.5%(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	12km 이내	2만 9천 명/75만 명	중소도시 신도시형	4%(전주·완주)
경북 김천	8km 이내	2만 7천 명/14만 3천 명	중소도시 신도시형	19%(김천)

주: 동삼 3km 이내, 대연·문현 2km 이내, 센텀 4km 이내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p15, 통계청. 2019.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작성

2)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방법

(1) 분석목표

본 장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모도시 및 원도심의 쇠퇴영향을 분석하고, 원도심 재생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분석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입지여건에 따른 모도시 인구, 기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둘째,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재생 과제를 도출하였다.

(2) 분석지표

본 장에서는 모도시의 인구유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원도심 쇠퇴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모도시 인구유출 및 인구변화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모도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원도심 쇠퇴 현황은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에 활용된 쇠퇴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의 시간적 범위

먼저, 모도시의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산업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순유입 인구의 지역구성 및 혁신도시 생성 전후의 지역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 및 산업 변화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점 전후를 비교하였다. 모도시 인구유출 현황은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2005~2011년, 2012~2018년을 분석하였다. 인구성장추이는 2006~2012년, 2012~2018년, 두 기간 동안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하였다. 기업 및 일자리(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2007~2012년, 2012~2017년, 두 기간 동안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의 공간적 범위

10개 혁신도시와 모도시를 분석하기 위해 혁신도시, 모도시,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으로, 모도시는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으로,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조건을 만족하는 동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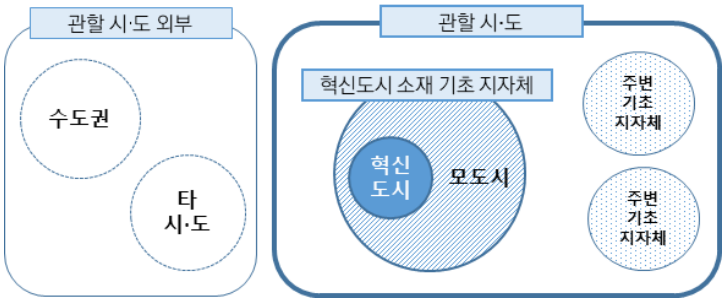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자체, 주변 기초지자체의 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자체: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 군, 구(혁신도시와 모도시를 포함)

- 혁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개발된 읍·면·동, 즉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¹⁾ 단, 혁신도시 개발 이후 분동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읍·면·동을 혁신도시로 간주
- 모도시: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 주변 기초지자체: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와 동일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
- 관할 시·도 외부: 수도권 및 타 시·도

표 2-2 | 분석대상 지역의 조작적 정의

구분			공간적 분석 단위(읍·면·동)
관할 시·도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
		모도시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주변 기초지자체		혁신도시와 동일한 광역시도에 포함된 시·군·구
관할 시·도 외부			수도권 및 타 시도



자료: 저자 작성.

1) 혁신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읍·면·동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모도시 인구유출 및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10개 혁신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읍·면·동 수준에서 다음과 같다.

표 2-3 | 10개 혁신도시의 공간적 범위(읍·면·동)

혁신도시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자체	공간적 범위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영도구 동삼1동, 남구 문현2동, 해운대구 우2동, 남구 대연3동 일원
대구	동구	안심2동, 안심3·4동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동, 북정동 ¹⁾ , 성안동, 복산1동, 약사동, 병영2동
강원	원주시	반곡관설동
충북	진천군, 음성군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완주군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혁신동 ²⁾ , 완산구 효자4동, 완주군 이서면
광주·전남 ³⁾	나주시	빛가람동(금천면, 산포면)
경북	김천시	울곡동(남면, 농소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문산읍, 금산면, 가호동)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

주: 1) 2014년 9월 1일 북정동(행정동)이 폐지되어 북정동(법정동)은 중앙동에 편입되고, 성안동(법정동)과 북부순환도로 북쪽의 교동(법정동)이 신설되어 성안동(행정동)에 편입됨
 2) 2018년 7월 1일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 4동 일부를 편입하여 혁신동이 신설됨
 3)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2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조성한 혁신도시임을 감안하여 나주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주변 지자체를 함께 분석
 자료: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모도시 인구유출

1) 혁신도시 vs 모도시 인구변화

□ 혁신도시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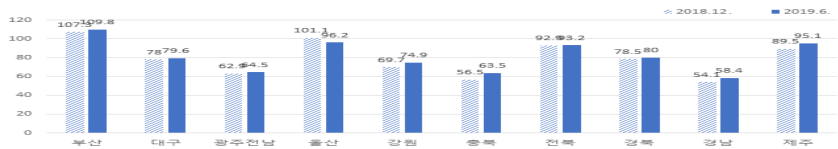
2019년 6월 말 기준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19.9만 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대비 74.7% 수준이다. 계획인구 달성률은 부산(109.8%), 울산(96.2%), 제주(95.1%), 전북(93.2%) 등이 높은 반면, 경남(58.4%), 충북(63.5%), 광주·전남(64.5%) 등 계획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별 인구규모는 광주·전남혁신도시 31,592명, 전북혁신도시 27,033명, 충북혁신도시 24,762명 등의 순이다.

표 2-4 | 10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구분	계획인구	2018. 12 인구		2019. 6 인구	
		인구 현황(명)	계획인구 달성률(%)	인구 현황(명)	계획인구 달성률(명)
계	267,000	192,539	72.1	199,580	74.7
부산	7,000	7,509	107.3	7,687	109.8
대구	22,000	17,163	78	17,502	79.6
광주·전남	49,000	30,819	62.9	31,592	64.5
울산	20,000	20,213	101.1	19,241	96.2
강원	31,000	21,603	69.7	23,234	74.9
충북	39,000	22,031	56.5	24,762	63.5
전북	29,000	26,951	92.9	27,033	93.2
경북	27,000	21,203	78.5	21,588	80.0
경남	38,000	20,571	54.1	22,188	58.4
제주	5,000	4,476	89.5	4,753	95.1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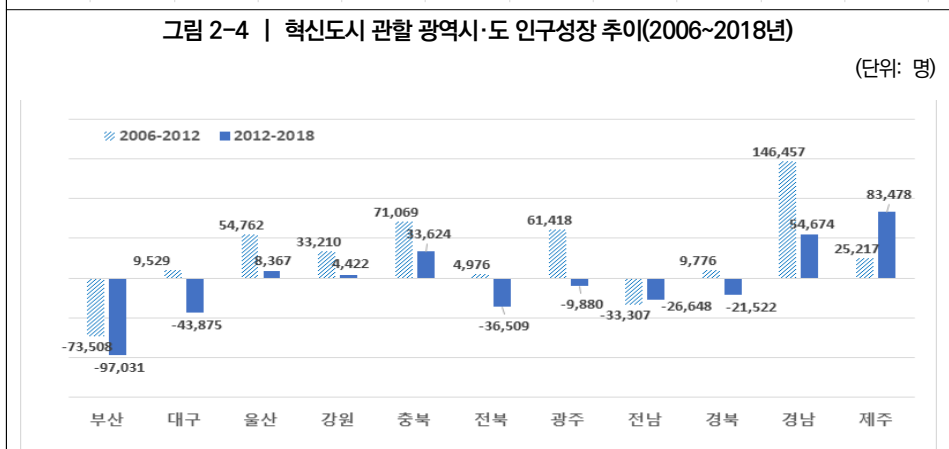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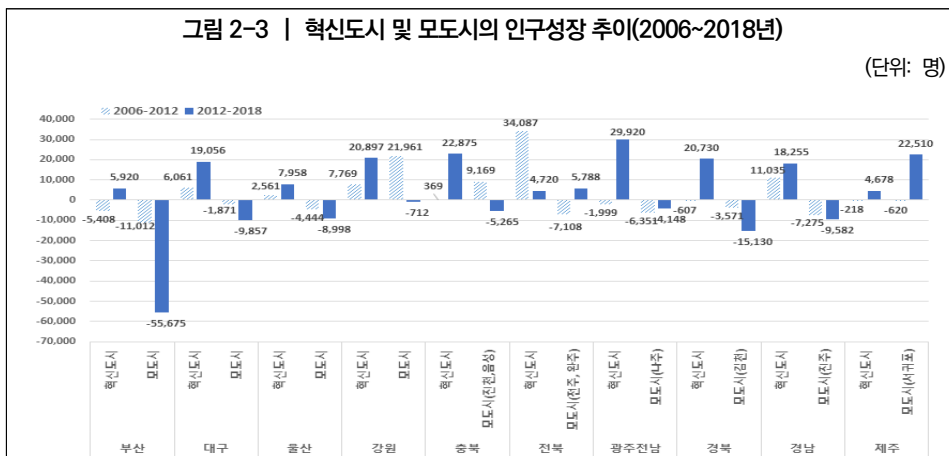
그림 2-2 |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15.

□ 혁신도시 vs 모도시 인구성장 추이

2012~2018년 동안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전북혁신도시와 제주혁신도시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 모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특히 울산, 강원, 충북,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광역시·도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모도시 인구는 감소하였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의 인구 감소가 관할 시·도 및 주변 지자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2006~2018.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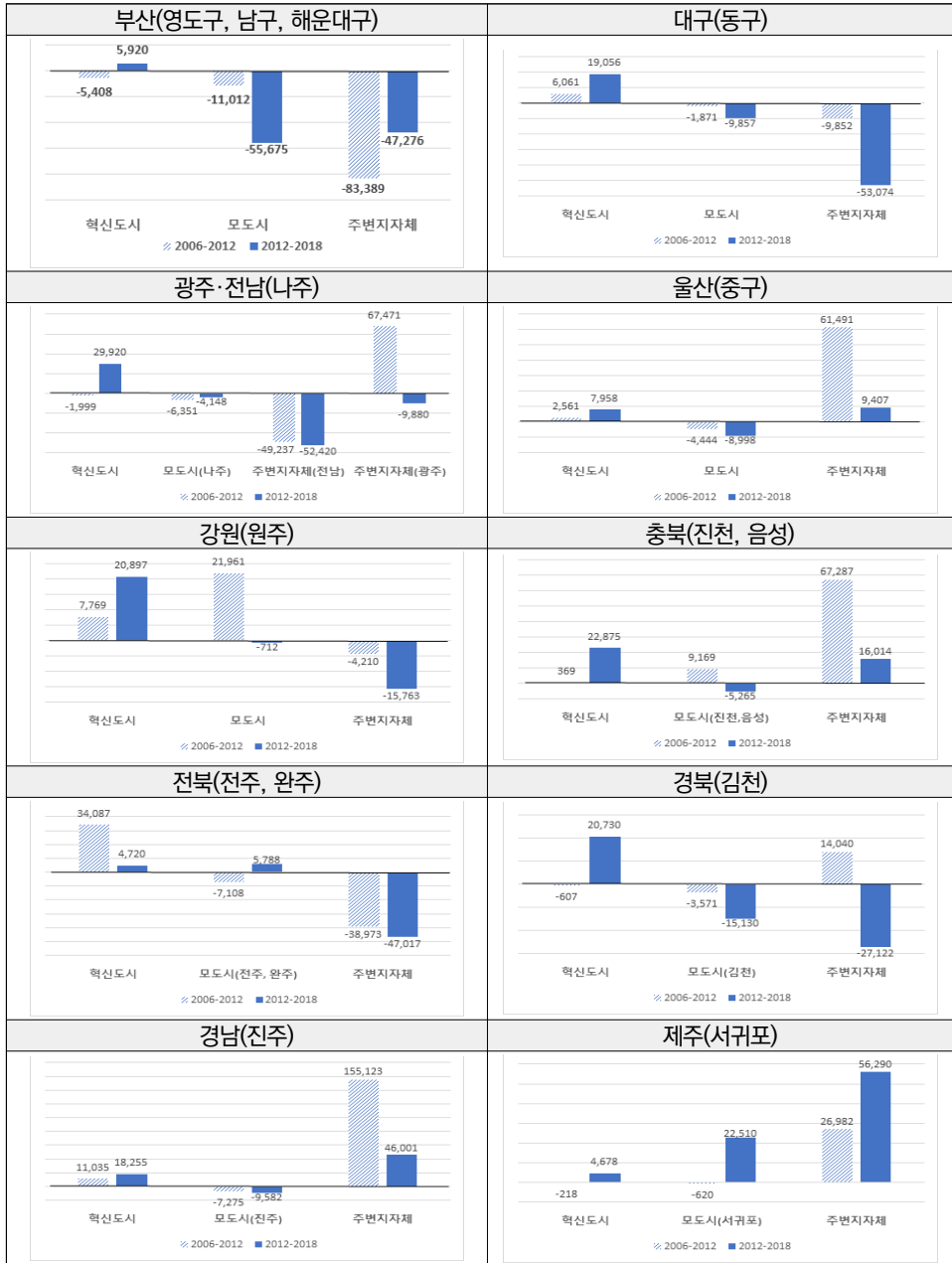
표 2-5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지자체 인구성장 추이(2006~2018년)

(단위: 명, %)

지역 구분		2006	2012	2018	증감		증가율	
					'06~'12	'12~'18	'06~'12	'12~'18
부산	소계	3,611,992	3,538,484	3,441,453	-73,508	-97,031	-2.0%	-2.7%
	혁신도시	103,165	97,757	103,677	-5,408	5,920	-5.2%	6.1%
	모도시	772,383	761,371	705,696	-11,012	-55,675	-1.4%	-7.3%
	주변지자체	2,736,444	2,679,356	2,632,080	-83,389	-47,276	-3.0%	-1.8%
대구	소계	2,496,115	2,505,644	2,461,769	9,529	-43,875	0.4%	-1.8%
	혁신도시	54,398	60,459	79,515	6,061	19,056	11.1%	31.5%
	모도시	283,504	281,633	271,776	-1,871	-9,857	-0.7%	-3.5%
	주변지자체	2,158,213	2,163,552	2,110,478	-9,852	-53,074	-0.5%	-2.5%
울산	소계	1,092,494	1,147,256	1,155,623	54,762	8,367	5.0%	0.7%
	혁신도시	107,234	109,795	117,753	2,561	7,958	2.4%	7.2%
	모도시	127,662	123,218	114,220	-4,444	-8,998	-3.5%	-7.3%
	주변지자체	857,598	914,243	923,650	61,491	9,407	7.2%	1.0%
강원	소계	1,505,420	1,538,630	1,543,052	33,210	4,422	2.2%	0.3%
	혁신도시	12,682	20,451	41,348	7,769	20,897	61.3%	102.2%
	모도시	281,473	303,434	302,722	21,961	-712	7.8%	-0.2%
	주변지자체	1,211,265	1,214,745	1,198,982	-4,210	-15,763	-0.3%	-1.3%
충북	소계	1,494,559	1,565,628	1,599,252	71,069	33,624	4.8%	2.1%
	혁신도시	10,655	11,024	33,899	369	22,875	3.5%	207.5%
	모도시(진천·음성)	136,245	145,414	140,149	9,169	-5,265	6.7%	-3.6%
	주변지자체	1,347,659	1,409,190	1,425,204	67,287	16,014	5.0%	1.1%
전북	소계	1,868,365	1,873,341	1,836,832	4,976	-36,509	0.3%	-1.9%
	혁신도시	47,059	81,146	85,866	34,087	4,720	72.4%	5.8%
	모도시(전주·완주)	660,989	653,881	659,669	-7,108	5,788	-1.1%	0.9%
	주변지자체	1,160,317	1,138,314	1,091,297	-38,973	-47,017	-3.4%	-4.1%
광주·전남	소계	3,350,723	3,378,834	3,342,306	28,111	-36,528	0.8%	-1.1%
	혁신도시	11,326	9,327	39,247	-1,999	29,920	-17.6%	320.8%
	모도시(나주)	85,091	78,740	74,592	-6,351	-4,148	-7.5%	-5.3%
	주변지자체(전남)	1,846,508	1,821,551	1,769,131	-49,237	-52,420	-2.7%	-2.9%
경북	소계	2,688,577	2,698,353	2,676,831	9,776	-21,522	0.4%	-0.8%
	혁신도시	7,552	6,945	27,675	-607	20,730	-8.0%	298.5%
	모도시(김천)	132,130	128,559	113,429	-3,571	-15,130	-2.7%	-11.8%
	주변지자체	2,548,895	2,562,849	2,535,727	14,040	-27,122	0.6%	-1.1%
경남	소계	3,172,857	3,319,314	3,373,988	146,457	54,674	4.6%	1.6%
	혁신도시	44,235	55,270	73,525	11,035	18,255	24.9%	33.0%
	모도시(진주)	289,319	282,044	272,462	-7,275	-9,582	-2.5%	-3.4%
	주변지자체	2,839,303	2,982,000	3,028,001	155,123	46,001	5.5%	1.5%
제주	소계	558,496	583,713	667,191	25,217	83,478	4.5%	14.3%
	혁신도시	9,498	9,280	13,958	-218	4,678	-2.3%	50.4%
	모도시(서귀포)	145,397	144,777	167,287	-620	22,510	-0.4%	15.5%
	주변지자체	403,601	429,656	485,946	26,982	56,290	6.7%	13.1%

자료: 통계청. 2006~2018.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5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2006~2012년)



자료: 통계청. 2006~2018. 주민등록인구통계.

2) 혁신도시로의 모도시 순유출 인구

□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2,996명 규모이다. 혁신도시 인구 중 모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51%에 달하며, 해당 광역시·도의 주변 기초지자체로부터 순유입 인구 26%,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 인구 16%로 나타난다. 혁신도시로의 순유출 인구가 가장 큰 모都市는 전북혁신도시(30,010명), 강원혁신도시(11,290명), 충북혁신도시(10,934명)의 모도시로 나타난다.

그림 2-6 | 혁신도시 조성 전후 지역별 순유입 인구
(2005~2011년, 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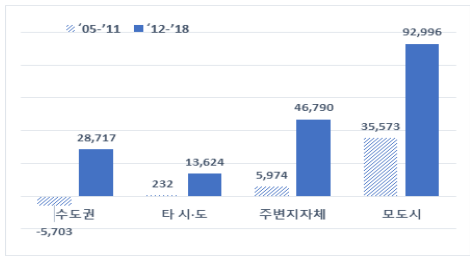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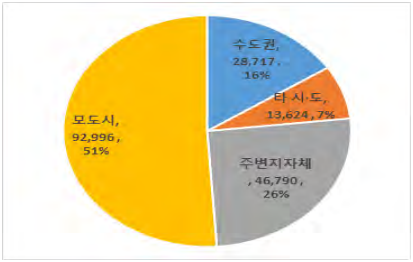


그림 2-7 |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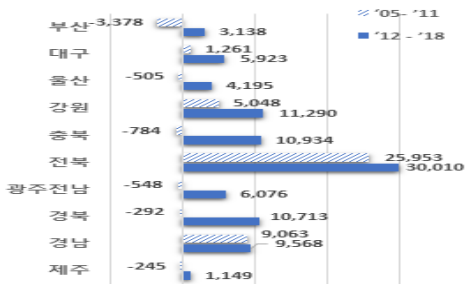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2-6 | 혁신도시로의 모도시 순유출 인구(2005~2018년)

(단위: 명)

구분	'05~'11	'12~'18
부산혁신도시	-3,378	3,138
대구혁신도시	1,261	5,923
울산혁신도시	-505	4,195
강원혁신도시	5,048	11,290
충북혁신도시	-784	10,934
전북혁신도시	25,953	30,010
광주·전남혁신도시	-548	6,076
경북혁신도시	-292	10,713
경남혁신도시	9,063	9,568
제주혁신도시	-245	1,149
계	35,573	92,996



자료: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 혁신도시별 모도시 인구유출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부산은 모도시에서의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구와 울산은 모도시보다 해당 광역시 내 주변 구·군에서의 순유입 인구비중이 가장 높다.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가 모도시로부터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지자체로부터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인구는 모도시인 나주보다는 인접한 광주광역시로부터 더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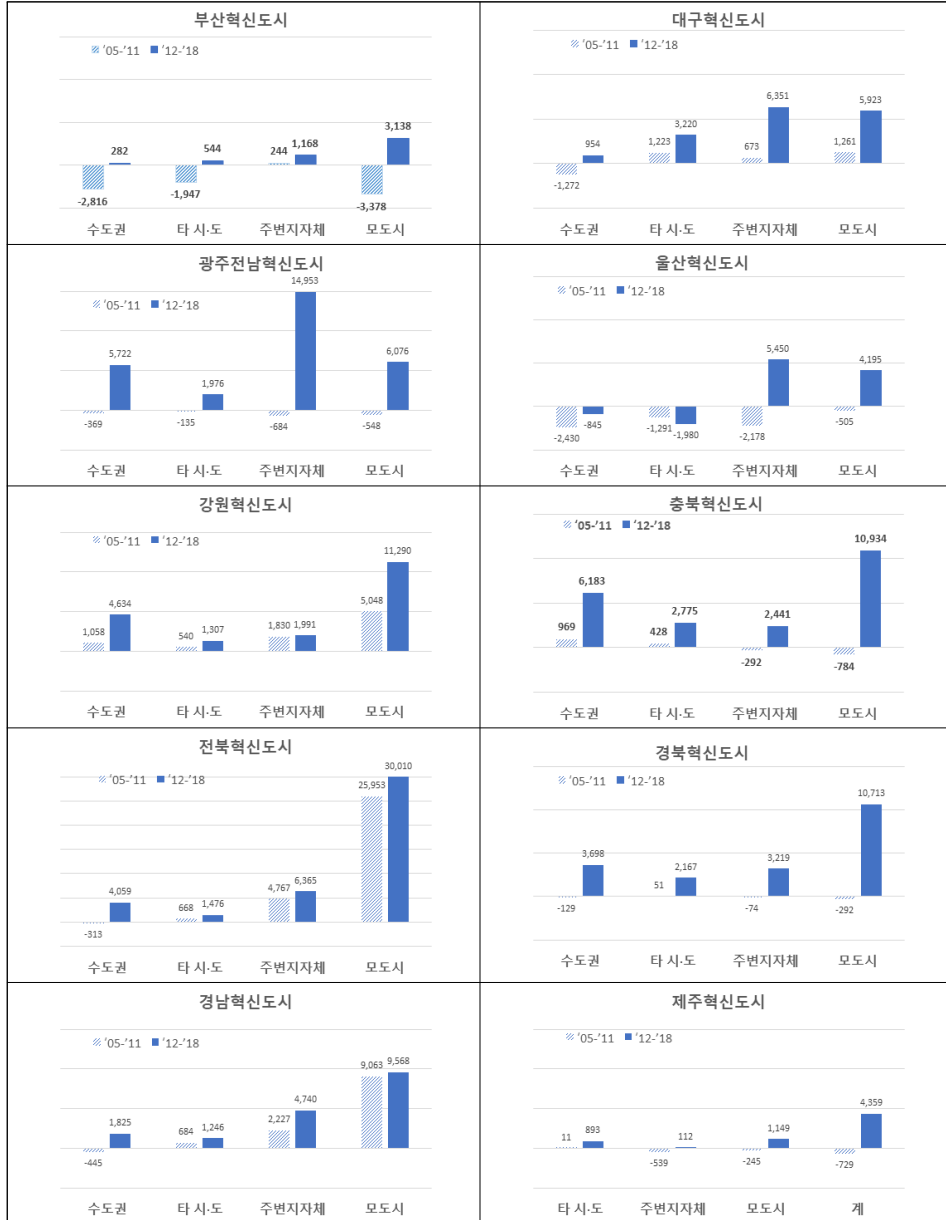
표 2-7 |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2005~2011년, 2012~2018년)

(단위: 명)

구분		수도권	타 시·도	주변 지자체	모도시	계
부산혁신도시	'05~'11	-2,816	-1,947	244	-3,378	-7,897
	'12~'18	282	544	1,168	3,138	5,132
대구혁신도시	'05~'11	-1,272	1,223	673	1,261	1,885
	'12~'18	954	3,220	6,351	5,923	16,448
울산혁신도시	'05~'11	-2,430	-1,291	-2,178	-505	-6,404
	'12~'18	-845	-1,980	5,450	4,195	6,820
강원혁신도시	'05~'11	1,058	540	1,830	5,048	8,476
	'12~'18	4,634	1,307	1,991	11,290	19,222
충북혁신도시	'05~'11	969	428	-292	-784	321
	'12~'18	6,183	2,775	2,441	10,934	22,333
전북혁신도시	'05~'11	-313	668	4,767	25,953	31,075
	'12~'18	4,059	1,476	6,365	30,010	41,910
광주·전남혁신도시	'05~'11	-369	-135	-684	-548	-1,736
	'12~'18	5,722	1,976	14,953	6,076	28,727
경북혁신도시	'05~'11	-129	51	-74	-292	-444
	'12~'18	3,698	2,167	3,219	10,713	19,797
경남혁신도시	'05~'11	-445	684	2,227	9,063	11,529
	'12~'18	1,825	1,246	4,740	9,568	17,379
제주혁신도시	'05~'11	44	11	-539	-245	-729
	'12~'18	2,205	893	112	1,149	4,359
계	'05~'11	-5,703	232	5,974	35,573	36,076
	'12~'18	28,717	13,624	46,790	92,996	182,127

자료: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8 |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변화(2005~2011년, 2012~2018년)



주: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타 혁신도시와 달리 2012년 이후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인구유출이 발생함
 자료: 통계청, 2005~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3)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모도시 인구변화

(1) 대도시 입지형

대도시 입지형인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 등은 사실상 대도시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울산(중구) 혁신도시의 경우 도시 내에 개발되었으나 대구(동구) 혁신도시의 경우 외곽에 개발되어 경산시 생활권과 인접해있다.

2012년 이후 모도시 자체의 인구는 세 지역 모두 감소하였다. 부산은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중 모도시 비중이 높아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에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구와 울산은 동구와 중구 외의 해당 광역시 내 주변 구·군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비중이 높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혁신도시의 모도시 인구감소는 광역시 자체의 인구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반면 울산(중구) 혁신도시의 경우 광역시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모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모도시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형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와 떨어진 신시가지형이나 신도시형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모도시 및 인근 도시에서의 원도심 쇠퇴, 새로운 지역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는 신시가지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혁신도시는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로 개발된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는 관할 시·도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모도시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모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제주(서귀포) 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측면에서는 양호한 지역이다.

(3)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으로 개발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다소 격차가 있으나 **모도시로부터의 혁신도시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모도시 인구감소가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는 모도시보다 주변지자체(광주 및 전남 주변지자체)로 부터의 유입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전북(전주·완주) 혁신도시는 모도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강원(원주)혁신도시가 입지한 강원도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모도시는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표 2-8 |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공간 위계와 인구변화

구분		특징	대도시			중소도시 신도시형		중소도시 신도시형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공간 위계상 특징	대도시 입지형	대도시생활권에 포함	●	●	●							
	중소도시 인근 신시가지형	중소도시에 인접하여 사실상 모 도시 생활권				●	●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	중소도시와는 거리가 있어 모도시 와의 생활권 연계가 필요한 지역						●	●	●	●	●
혁신도시 순유입 지역비중 1순위	모도시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 모 도시에 집중적으로 발생	●			●	●		●	●	●	●
	주변 지자체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이 모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 에도 영향을 미침		●	●			●				
'12~'18 모도시 인구변화	인구증가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도시 인 구성장					●				●	
	인구감소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변화에 따른 모도시 인구감소	●	●	●	●		●	●	●		●
'12~'18 관할사·도 인구변화	인구증가	모도시 인구성장에 긍정적 영향			●	●	●		●			
	인구감소	모도시 인구성장에 부정적 영향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p.139 토대로 저자 작성.

3.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1) 혁신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1)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 입주 현황

2019년 6월 말 기준 10개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총 1,117개사이며,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1,017개사, 혁신도시 외부 입주기업 1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 355개사, 광주·전남혁신도시 328개사, 부산혁신도시 151개사, 대구혁신도시 129개사 등 순으로 나타난다.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동 기간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직원 수는 총 14,637명이며, 광주·전남혁신도시(4,562명), 부산혁신도시(3,229명), 대구혁신도시(2,784명) 등의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사, 명)

구 분	합 계 (A+B+C)	혁신도시 내			혁신도시 외 ¹⁾ (C)	직원 수 ²⁾
		클러스터 내(A)	클러스터 외(B)	소계(A+B)		
합 계	1,117	776	241	1,017	100	14,637
부 산	151	-	142	142	9	3,229
대 구	129	129	-	129	-	2,784
광주·전남	328	175	67	242	86	4,562
울 산	34	33	1	34	-	324
강 원	43	42	1	43	-	401
충 북	40	26	14	40	-	777
전 북	4	2	-	2	2	144
경 북	33	15	15	30	3	677
경 남	355	354	1	355	-	1,739
제 주	-	-	-	-	-	-

주: 1) 혁신도시 외 기업 현황은 2019년 3월 말 기준

2) 직원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27.

□ 혁신도시 내 입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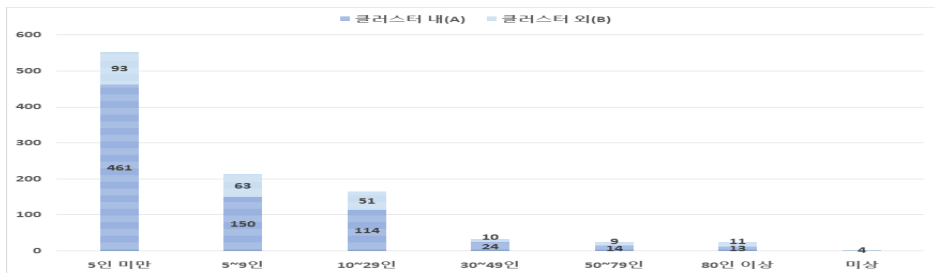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 기준 10개 혁신도시 내에 1,017개사가 입주하였으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776개사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에 입주해 있으며, 약 24%에 해당하는 241개사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외에 입주하였다. 혁신도시 내 입지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355개사), 광주·전남(242개사), 부산(142개사)²⁾, 대구(129개사) 등의 순이다. 2019년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규모(고용규모 기준)는 1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 기업 54.5%(554개사), 5~9인 미만 20.9%(213개사), 10~29인 16.2%(165개사), 30~49인 3.3%(34개사)이다.

그림 2-9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입주 현황(2019. 6)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그림 2-10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의 고용규모(2019. 6)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2)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공급하지 않았다.

표 2-10 |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규모(고용자수 기준, 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사, %)

구 분	기업 수	고용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79인	80인 이상	미상
부산	142	64	47	19	-	2	6	4
대구	129	35	22	47	13	5	7	-
광주·전남	242	125	50	46	10	7	4	-
울산	34	11	14	7	1	1	-	-
강원	43	22	16	2	2	-	1	-
충북	40	15	6	10	5	2	2	-
전북	2	-	-	1	-	1	-	-
경북	30	10	7	7	1	4	-	-
경남	355	272	51	26	2	1	3	-
제주	-	-	-	-	-	-	-	-
계	1017	554	213	165	34	23	24	4
비율	100.0	54.5	20.9	16.2	3.3	2.3	2.4	0.4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종전 소재지는 혁신도시 동일 시·도가 69.4%(706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전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는 15.7%(160개사), 타 시·도인 경우는 5.5%(56개사)이다.

표 2-11 |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종전소재지(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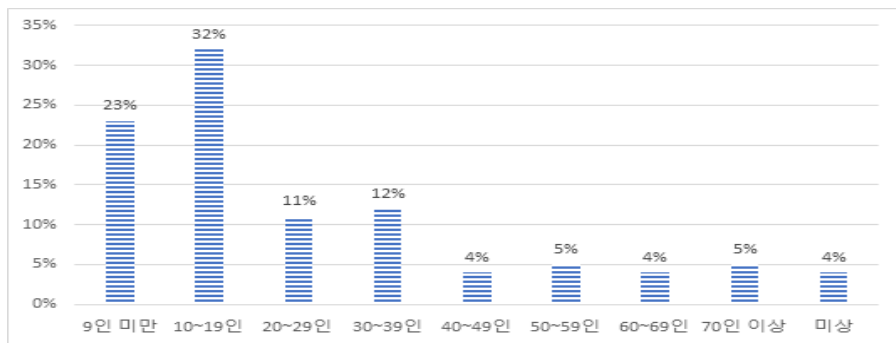
구 분	기업수	동일 시·도	타 시·도	수도권	국외	미상	신규
부산	142	105	2	24	1	5	5
대구	129	80	29	20	-	-	-
광주·전남	242	120 (광주: 32)	10	63	-	48	1
울산	34	25	5	4	-	-	-
강원	43	25	2	11	-	-	5
충북	40	3	1	9	-	-	27
전북	2	-	-	-	-	2	-
경북	30	8	3	18	-	-	1
경남	355	340	4	11	-	-	-
제주	-	-	-	-	-	-	-
계	1017	706	56	160	1	55	39
비율	100.0	69.4	5.5	15.7	0.1	5.4	3.8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 혁신도시 외 입주 현황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 중 혁신도시 외부 입주기업은 100개사(2019년 6월 말 기준)이며, 광주·전남(86개), 부산(9개), 경북(3개), 전북(2개) 순으로 많다.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규모(고용규모 기준)를 살펴보면 19인 미만 중소기업이 약 55%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모는 10~19인 미만 기업 32.0%(32개사), 9인 미만 23.0%(23개사), 30~39인 12.0%(12개사), 20~29인 11.0%(11개사) 등이다.

그림 2-11 |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 고용규모(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표 2-12 |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규모

(단위: 개사)

구 분	기업 수	고용규모								
		9인 미만	10~19인	20~29인	30~39인	40~49인	50~59인	60~69인	70인 이상	미상
부산	9	-	-	-	2	1	2	2	2	-
광주·전남	86	23	30	11	8	3	3	2	2	4
전북	2	-	-	-	2	-	-	-	-	-
경북	3	-	2	-	-	-	-	-	1	-
계	100	23	32	11	12	4	5	4	5	4

주: 고용자수 기준,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종전 소재지는 수도권이 4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전소재지가 동일 시·도인 경우는 27개사이며, 타 시·도인 경우는 26개사이다.

표 2-13 |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종전 소재지

(단위: 개사)

혁신도시	기업수	동일 시·도	수도권	타 시·도
부산	9	3	5	1
광주·전남	86	24	38	24
전북	2	-	2	-
경북	3	-	2	1
계	100	27	47	26

주: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혁신도시 외 입주한 기업은 전남이 79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산 9개사, 광주 7개사, 경북과 전북이 각 3개, 2개사이다. 광주광역시에 입주한 기업은 7개로 광주 진곡산업단지과 평동산업단지에 입지해 있으며 그 외는 광주 시내에 개별 입지해 있다. 전남에 입지한 기업 모두 혁신도시가 소재한 나주시에 입지하고 있다. 나주혁신단지, 나주신도산단에 입지해 있으며, 개별 입지 역시 나주 구시가지와 혁신도시 인근 산포면 등에 입지하고 있다. 부산, 경북혁신도시 인근에 입지한 기업 모두 개별 입지로 부산시 내와 김천시 내에 입지해 있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입지한 2개사는 전주1산단에 입지해 있다.

표 2-14 |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현소재지

구 분	기업수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주변 지자체	
		산업단지	개별 입지	산업단지	개별 입지
부산	9	-	9		
광주·전남	광주	7		4	3
	전남	79	74		
전북	2	2	-		
경북	3	-	3		
계	100	76	17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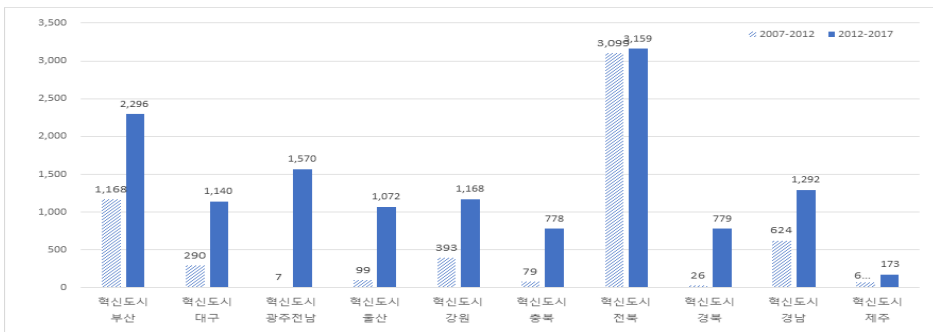
주: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2) 10개 혁신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2007~2012년, 2012~2018년): 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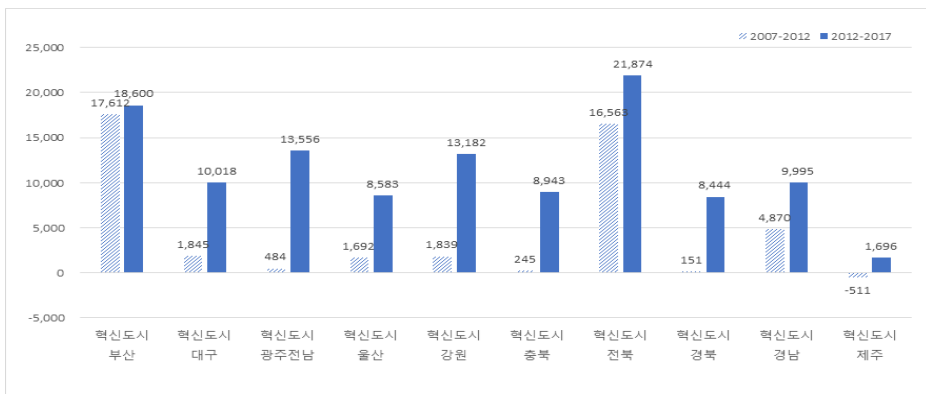
2012~2017년 동안 혁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읍·면·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추이를 보면, 10개 혁신도시 모두 기업과 일자리가 2007~2012년 대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기업과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혁신도시는 전북(3,159개, 21,874명), 부산(2,296개, 18,600명), 광주·전남(1,570개, 13,5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 혁신도시 사업체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3 | 혁신도시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2)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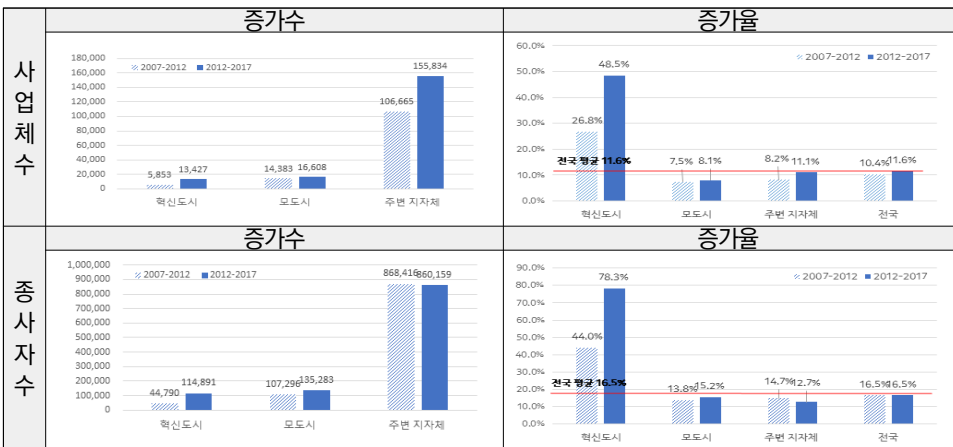
(1) 혁신도시 vs 모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2012~2017년 혁신도시 모도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7~2012년 대비 다소간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다소간 향상하였다. 그러나 모도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2~2017년 혁신도시 소재 사업체수 증가율은 48.5%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2년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2007~2012년, 26.8% 증가). 동 기간 모도시 소재 사업체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11.6%), 주변 지자체(11.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2007~2012년, 7.5% 증가).

2012~2017년 혁신도시 소재 종사자수 증가율도 78.3%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2년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2012~2017년, 44.0% 증가). 동 기간 모도시 소재 종사자수 증가율은 15.2%로 전국 평균(16.5%)보다는 낮으나, 주변 지자체(1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2007~2012년, 13.8% 증가).

그림 2-14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표 2-15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사업체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단위: 개, %)

구분	2007	2012	2017	증감		증감률	
				2007~ 2012	2012~ 2017	2007~ 2012	2012~ 2017
전국	3,262,925	3,602,476	4,019,872	339,551	417,336	10.4%	11.6%
수도권	1,527,803	1,709,193	1,897,843	181,390	188,650	11.9%	11.0%
계	서울특별시	728,614	780,887	52,273	41,976	7.2%	5.4%
	경기도	640,490	751,108	110,618	127,167	17.3%	16.9%
	인천광역시	158,699	177,198	18,499	19,507	11.7%	11.0%
	혁신도시	21,840	27,693	5,853	13,427	26.8%	48.5%
	모도시	191,080	205,463	14,383	16,608	7.5%	8.1%
부산	주변 지자체	1,301,001	1,407,666	106,665	155,834	8.2%	11.1%
	혁신도시	6,075	7,243	1,168	2,296	19.2%	31.7%
	모도시	40,547	41,477	930	1,757	2.3%	4.2%
대구	주변 지자체	216,284	221,338	233,798	5,054	2.3%	5.6%
	혁신도시	3,071	3,361	4,501	290	9.4%	33.9%
	모도시	18,826	19,600	21,195	774	4.1%	8.1%
울산	주변 지자체	158,007	169,639	183,680	11,632	7.4%	8.3%
	혁신도시	4,741	4,840	5,912	99	2.1%	22.1%
	모도시	9,923	10,100	10,354	177	1.8%	2.5%
강원	주변 지자체	52,505	59,638	67,606	7,133	13.6%	13.4%
	혁신도시	944	1,337	2,505	393	41.6%	87.4%
	모도시	21,383	23,730	26,621	2,347	11.0%	12.2%
충북	주변 지자체	94,378	100,125	110,932	5,747	6.1%	10.8%
	혁신도시	749	828	1,606	79	10.5%	94.0%
	모도시	10,180	11,495	14,161	1,315	12.9%	23.2%
전북	주변 지자체	90,457	100,327	110,457	9,870	10.9%	10.1%
	혁신도시	2,733	5,832	8,991	3,099	113.4%	54.2%
	모도시	41,878	48,422	50,611	6,544	15.6%	4.5%
광주·전남	주변 지자체	75,451	81,745	88,667	6,294	8.3%	8.5%
	혁신도시	475	482	2,052	7	1.5%	325.7%
	모도시	5,245	5,480	6,004	235	4.5%	9.6%
경북	주변 지자체	216,154	232,861	263,633	16,707	7.7%	13.2%
	혁신도시	351	377	1,156	26	7.4%	206.6%
	모도시	8,488	8,694	9,252	206	2.4%	6.4%
경남	주변 지자체	174,550	190,476	215,671	15,926	9.1%	13.2%
	혁신도시	2,187	2,811	4,103	624	28.5%	46.0%
	모도시	23,348	24,177	25,932	829	3.6%	7.3%
제주	주변 지자체	190,745	215,135	244,455	24,390	12.8%	13.6%
	혁신도시	514	582	755	68	13.2%	29.7%
	모도시	11,262	12,288	14,707	1,026	9.1%	19.7%
	주변 지자체	32,470	36,382	44,601	3,912	12.0%	22.6%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표 2-16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12년	2017년	증감		증감률	
				2007-2012	2012-2017	2007-2012	2012-2017
전국	15,943,672	18,569,354	21,626,902	2,625,682	3,057,548	16.5%	16.5%
수도권	8,106,512	9,454,355	11,108,046	1,347,843	1,653,691	16.6%	17.5%
	서울특별시	4,005,831	4,541,393	535,562	578,520	13.4%	12.7%
	경기도	3,334,921	4,041,430	706,509	912,359	21.2%	22.6%
	인천광역시	765,760	871,532	105,772	162,812	13.8%	18.7%
계	혁신도시	101,896	146,686	44,790	114,891	44.0%	78.3%
	모도시	780,009	887,305	107,296	135,283	13.8%	15.2%
	주변 지자체	5,902,753	6,771,169	868,416	860,159	14.7%	12.7%
부산	혁신도시	26,583	44,195	17,612	18,600	66.3%	42.1%
	모도시	159,520	171,994	12,474	27,823	7.8%	16.2%
	주변 지자체	971,750	1,059,756	88,006	101,949	9.1%	9.6%
대구	혁신도시	13,007	14,852	1,845	10,018	14.2%	67.5%
	모도시	71,968	75,942	3,974	11,248	5.5%	14.8%
	주변 지자체	647,153	743,042	95,889	88,068	14.8%	11.9%
울산	혁신도시	14,608	16,300	1,692	8,583	11.6%	52.7%
	모도시	27,423	29,699	2,276	2,011	8.3%	6.8%
	주변 지자체	364,815	406,131	41,316	58,758	11.3%	14.5%
강원	혁신도시	4,011	5,850	1,839	13,182	45.8%	225.3%
	모도시	88,736	102,898	14,162	22,161	16.0%	21.5%
	주변 지자체	355,451	411,811	56,360	60,347	15.9%	14.7%
충북	혁신도시	8,394	8,639	245	8,943	2.9%	103.5%
	모도시	62,648	77,962	15,314	24,214	24.4%	31.1%
	주변 지자체	409,018	482,949	73,931	79,163	18.1%	16.4%
전북	혁신도시	16,403	32,966	16,563	21,874	101.0%	66.4%
	모도시	184,445	213,057	28,612	21,036	15.5%	9.9%
	주변 지자체	301,413	356,965	55,552	35,740	18.4%	10.0%
광주·전남	혁신도시	3,024	3,508	484	13,556	16.0%	386.4%
	모도시	21,507	25,188	29,767	4,579	17.1%	18.2%
	주변 지자체	951,061	1,093,179	1,262,079	168,900	14.9%	15.5%
경북	혁신도시	2,042	2,193	10,637	151	7.4%	385.0%
	모도시	34,269	39,137	44,351	5,214	14.2%	13.3%
	주변 지자체	793,275	925,017	1,041,380	116,363	16.6%	12.6%
경남	혁신도시	10,373	15,243	25,238	9,995	46.9%	65.6%
	모도시	87,170	102,232	108,754	6,522	17.3%	6.4%
	주변 지자체	975,609	1,132,987	1,244,750	111,763	16.1%	9.9%
제주	혁신도시	3,451	2,940	4,636	1,696	-14.8%	57.7%
	모도시	42,323	49,196	59,671	10,475	16.2%	21.3%
	주변 지자체	133,208	159,332	198,440	39,108	19.6%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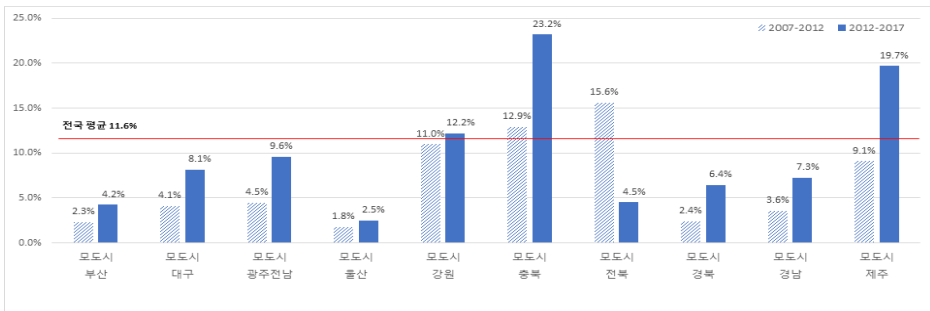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2) 10개 혁신도시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혁신도시 조성이 대부분 모도시의 기업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거나 일 자리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2012~2017년 동안 모도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를 보면, 2007~2012년 대비 기업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전북을 제외 한 9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6개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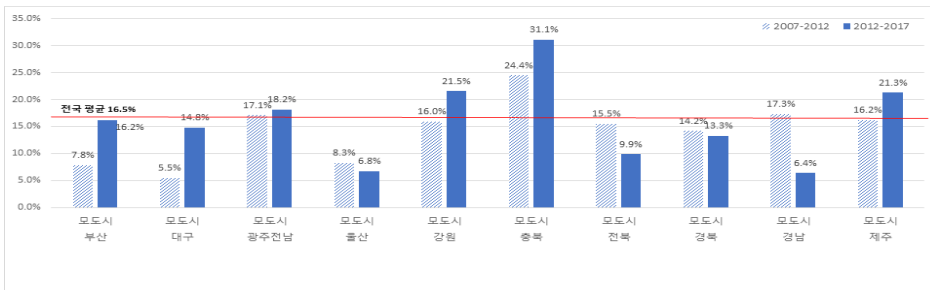
또한 2012~2017년 전국 평균 대비 기업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3개, 일자리 증가 율이 높은 모도시는 4개에 불과하다. 동 기간 모도시 기업과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 곳은 충북(23.2%, 31.1%), 제주(19.7%, 21.3%), 강원(12.2%, 21.5%), 광주·전남(9.6%,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15 | 모도시 사업체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6 | 모도시 종사자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7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 증감비율(2007~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8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종사자수 증감비율(2007~2017년)



자료: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3)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관계: 기업과 일자리

표 2-17 | 혁신도시와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구분		기업 및 일자리 증가 순
혁신클러스터 기업 유치 현황		· 경남(355개사), 광주·전남(297개사), 부산(151개사), 대구(129개사)
	혁신도시 내 유치	· 경남(355개사), 광주·전남(242개사), 부산(142개사), 대구(129개사)
	혁신도시 외 유치(모도시)	· 광주·전남(55개), 부산(9개), 경북(3개), 전북(2개)
혁신도시(행정동) 기업 및 일자리 증가: 2012~2017년		· 전북(3,159개, 21,874명), 부산(2,296개, 18,600명), 광주·전남(1,570개, 13,556명)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2012~2017년(전국 평균 11.6%, 16.5%)		· 충북(23.2%, 31.3%), 제주(19.7%, 21.3%), 강원(12.2%, 21.5%), 광주·전남(9.6%, 18.2%)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pp.30~77;
통계청. 2007~2017. 전국사업체조사.

□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동반성장: 광주·전남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내 기업 및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였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모도시(나주)와 주변 지자체(광주)에도 유치하였다. 광주·전남의 경우 모도시(나주) 사업체 증가율은 9.6%로 낮지만 주변 지자체(광주·전남)의 사업체 증가율이 13.2%로 나타나며, 모도시(나주) 종사자수 증가율은 18.2%로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난다.

□ 혁신도시 성장 그러나 모도시 파급력은 미진: 경남, 대구, 부산, 전북

경남, 대구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이 혁신도시 내에 가장 많이 유치되었으나 모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혁신도시 내 기업 및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였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모도시(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에도 유치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모도시의 기업 및 일자리가 전국 및 주변 지자체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여 혁신도시 조성이 모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은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는 4개에 불과하지만 2012~2017년 동안 혁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동에 기업 및 일자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모도시(전주, 완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이 4.5%와 9.9%로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날 뿐 아니라 2007~2012년(15.5%, 16.5%)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 모도시 성장, 그러나 혁신도시의 영향은 미약: 충북, 제주, 강원

충북, 제주, 강원은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는 많지 않거나 전무한 상태이지만,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다. 충북 10개 혁신도시 중 모도시(음성, 진천)의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주변 지자체(충북의 다른 시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제주는 서귀포시보다 제주시(주변 지자체)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귀포시의 기업과 일자리 증가의 원인이 혁신도시라기보다는 제주도 전반의 경기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강원은 강원도 내 다른 시·군보다 모도시(원주)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주 내 혁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도시가 입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혁신도시와 모도시 모두 어려움: 울산, 경북

울산과 경북은 혁신도시 내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고, 또한 모도시(김천)의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 전국 및 주변 지자체 대비 매우 저조하다.

4.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원도심 쇠퇴 진단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모도시의 원도심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원도심으로 정의된 지역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도심부의 동지역으로 정의하고,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동으로 한다. 충북혁신도시가 소재한 진천군, 음성군, 전북 혁신도시가 소재한 완주군의 경우 동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절에서는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 쇠퇴 현황과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혁신도시 입지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대도시 입지형,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중소도시 신도시형 등 혁신도시의 입지 특성에 따라 해당 도시의 공간구조가 상이하므로, 이로 인해 혁신도시가 원도심 쇠퇴 및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 현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으로 사용되는 인구, 산업, 물리환경의 쇠퇴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법적 기준

지정요건	기준	세부기준
인구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산업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물리환경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5. 제13조 제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 제17조.

표 2-19 | 혁신도시별 소재 지자체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동지역)

입지 특성	혁신 도시	지자체	도시재생활성화 지정요건 충족한 동지역		활성화지역 지정된 동지역
			2개 부문 쇠퇴	3개 부문 쇠퇴	
대도시 입지형	부산	영도구	남항동, 동삼1동	영선1동, 영선2동, 봉래1동, 청학1동, 청학2동, 동삼3동, 신성동, 봉래2동	봉래1동, 남항동, 영선1동
		남구	대연3동, 용호1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문현2동, 문현3동	대연2동, 대연4동, 대연6동, 용호2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1동, 문현1동, 문현4동	우암동
		해운대구	반여4동	재송2동, 중2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동, 반송2동, 반송3동	반송2동, 반송1, 3동, 반여2, 3동
	대구	동구	신천4동, 효목2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 안심2동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2동, 효목1동, 도평동, 볼로·봉무동, 지저동	신암3, 4동, 신천3, 4동, 효목동
	울산	중구	반구2동, 중앙동, 병영2동, 약사동	학성동, 반구1동, 복산1동, 복산2동, 우정동	중앙동, 학성동, 병영2동
중소 도시 신시가 지형	경남	진주	천전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이현동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신안동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신안동, 이현동, 천전동, 상대동, 하대동
	제주	서귀포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예래동	중앙동	월평동
중소 도시 신도시 형	광주·전남	나주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이창동	영강동, 영산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영강동
	강원	원주	태장2동, 봉산동	명륜1동, 우산동,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학성동
	충북	진천 ^{주)}	-	-	-
		음성 ^{주)}	-	-	-
	전북	전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삼천1동, 효자1동, 효자2동, 진북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우아1동, 팔복동		완산구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서학동, 효자1·2동, 삼천1동 덕진구 우아동3가, 인후동
		완주 ^{주)}	-	-	
	경북	김천	대곡동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남산평화동

주: 군지역의 경우 인구가 집적된 동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도심 분석에서 제외

진천군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 중으로 활성화지역 지정이 되지 않음

음성군은 음성읍, 금왕읍, 심성면, 대소면, 감곡면 등에 활성화지역 지정

완주군은 심례읍, 봉동읍, 용진읍, 고산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이서면 등에 활성화지역 지정

자료: 김천시. 2015; 나주시. 2017a, 대구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2015; 완주군. 2019; 울산광역시. 2015; 원주시. 2018; 음성군. 2019; 전주시. 2019; 진주시. 2017. 각 도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의 쇠퇴현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분석 절차(예시)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에서 쇠퇴도 진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분석 단위를 도시지역에 한하여 행정동 단위, 집계구 단위로 검토	
[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분석 절차	
구 분	내 용
도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행정 단위 (법적기준 적법성)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 단위와 면소재지 일원의 읍·면 단위 분석  
집계구 단위 (세부쇠퇴 검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행정단위 기준 내 집계구 단위 분석 * 집계구 :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일정한 통계요소의 개체수(64±20가구, 50±20산업체)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대상구역  
자료: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240.	

2) 대도시 입지형

(1) 부산

□ 도시공간구조와 혁신지구의 입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6부도심, 4지역 중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혁신지구는 도심권인 남구, 영도구, 부도심권이 해운대구에 각각 입지하고 있다.

표 2-20 |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중심지체계		공간구조
4도심	광복, 서면, 해운대, 강서	
6부도심	하단, 사상, 신공항, 덕천, 동래, 기장	
5지역특화핵	가덕, 녹산, 금정, 정관, 장안	

자료: 부산광역시. 2017.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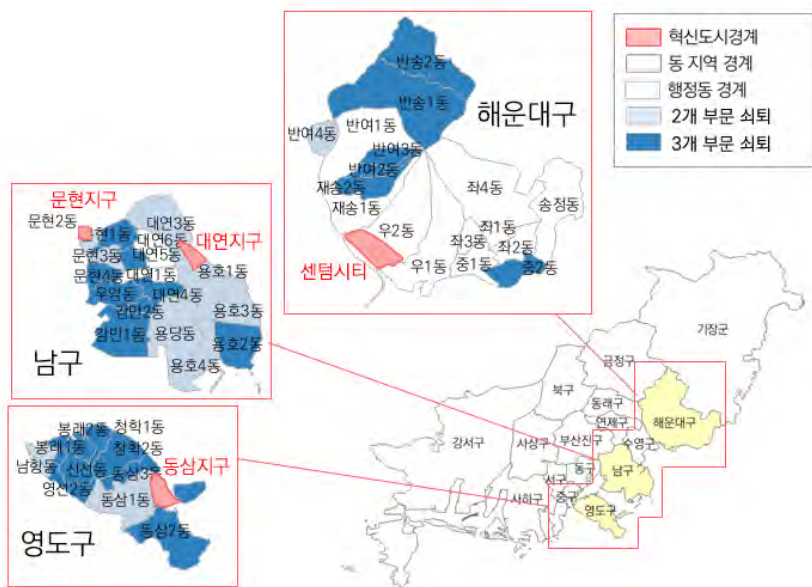
□ 혁신도시 소재 영도구·남구·해운대구 쇠퇴 현황

영도구와 남구는 부산의 중심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정통적 원도심에 해당하는 광복, 서면의 영향권에 속하는 도심권으로 쇠퇴 분석결과 모든 동지역이 쇠퇴하였다. 해운대구는 부산의 부도심으로 신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쇠퇴

되는 일부 동지역(재송2동, 반여1~4동, 중2동, 반송1~3동)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동지역 중 반여4동(인구, 물리환경 2부분 쇠퇴)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구, 산업, 물리환경 모든 측면에서 쇠퇴하여 인근 동지역 대비 상대적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1 |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쇠퇴 현황 및 혁신지구 위치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3개 부문: 영선1동, 영선2동, 봉래1동, 청학1동, 청학2동, 동삼3동, 신성동, 봉래2동	3개 부문: 대연2동, 대연4동, 대연6동, 용호2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1동, 문현1동, 문현4동	3개 부문: 재송2동, 반여1~3동, 중2동, 반송1~3동
2개 부문: 남향동, 동삼1동	2개 부문: 대연3동, 용호1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문현2동, 문현3동	2개 부문: 반여4동
쇠퇴 현황 지도		



자료: (상)(하) 부산광역시. 2015.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p.138~143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부산의 3개 혁신지구 건설과 도시재생의 관계

① 도시재생전략의 공간적 구상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중 도심 및 부도심에 해당하는 8개 지역 중 도시재생을 통해 상업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강서 및 해운대를 제외한 6개 지역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도시 특성에 맞춰 구분된 권역별로 도시재생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전략을 구상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2-22 | 부산 재생권역 구분 및 특성

 (그림 3-5) 재생권역 구분도	도심권(서면, 광복 일원)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 근대 이후 부산의 중심기능을 수행했으며, 쇠퇴 심화 - 상업지역 28%
	중부산권 -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 개항 전 부산의 부리에 해당한 지역이나 쇠퇴심화 - 문화재 155개소
	동부산권(수영강 동측 지역) -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 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지역 - 최근 10년간 인구 3.4% 증가
	서부산권(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 북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 사상공단 등 노후공업지역 입지 및 신개발 지속

자료: 부산광역시. 2015.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p.248~249.

② 혁신지구와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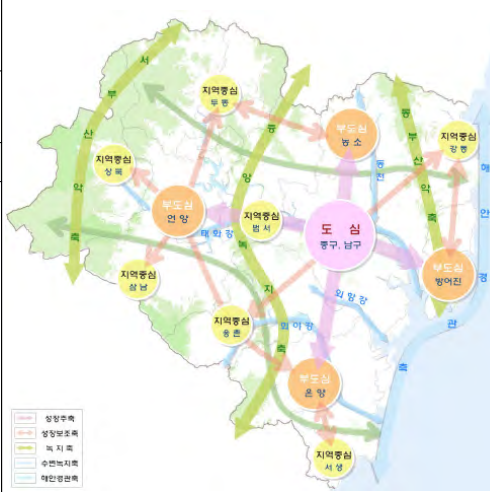
영도구, 남구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해운대구의 경우 혁신도시가 신개발지에 건설되어 부도심 기능의 강화를 제고하였다.

(2) 울산

□ 울산의 공간구조와 혁신도시의 입지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혁신도시가 소재한 중구는 울산의 도심이다. 혁신도시는 도심부인 중구에 입지하였다. 인구·사회 측면에서 중구 원도심과 울주군 일부지역이 쇠퇴, 산업·경제 측면에서 도심지역과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쇠퇴, 물리·환경 측면에서 중구, 동구지역과 남울주지역을 중심으로 쇠퇴하고 있다.

표 2-23 | 울산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조

중심지 체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성
도심	중구 · 남구	
부도심	동구 방어진, 북구 농소, 울주 언양, 울주 온양	
지역중심	강동, 범서, 두동, 상북, 삼남, 웅촌, 서생	
울산광역시 내 도시지역 쇠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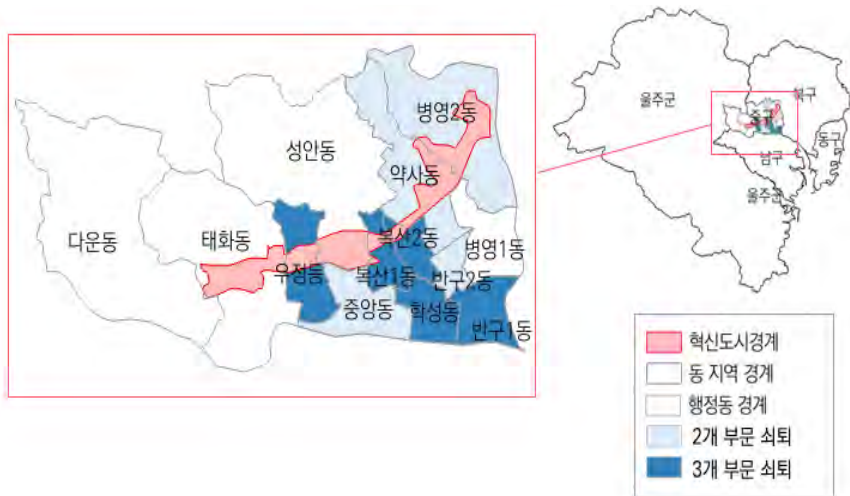
자료: (좌) 울산광역시. 2016.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p.134.

(우) 울산광역시. 2015.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86.

□ 혁신도시 소재 중구의 쇠퇴 현황

중구의 9개 동지역 모두 쇠퇴하고 있으며, 학성동, 반구1동, 복산1동, 복산2동, 우정동 등 5개 동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모든 측면에서 쇠퇴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쇠퇴의 원인은 울산의 도시 형성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오랫동안 시가지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태화강 남쪽으로 신도심이 생겨나 격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2-19 | 울산 중구의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위치



자료: 저자 작성.

□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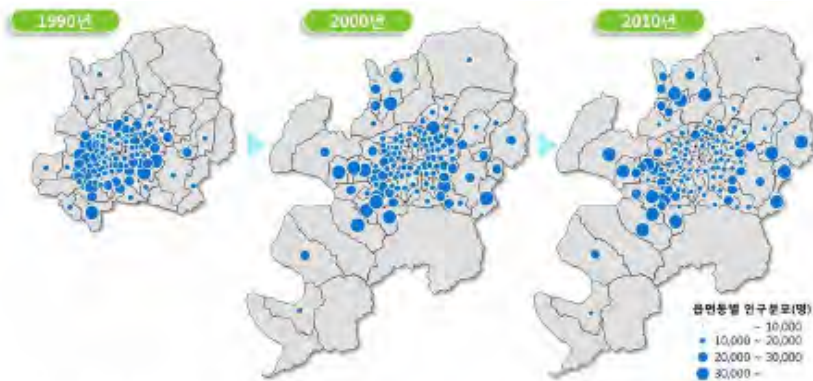
울산의 경우 중구의 원도심과 인접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적 효과를 꾀하고 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이행계획 중 혁신도시와 원도심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로 2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3) 대구

□ 대구의 공간구조와 혁신도시의 입지

대구 중심지 체계는 1960년대 1도심(중구), 1부도심(동대구) 단핵구조로 출발하여 2000년대 이후 2도심(중구, 동대구), 4부도심(칠곡, 안심, 달서, 성서), 1신도시(현풍) 분산다핵화 구조이다. 1990~2000년대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시작되어, 2000~2010년대 외곽지역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혁신도시는 도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동편 외곽(동구)에 경산시와 인접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2-20 | 대구 읍·면·동 인구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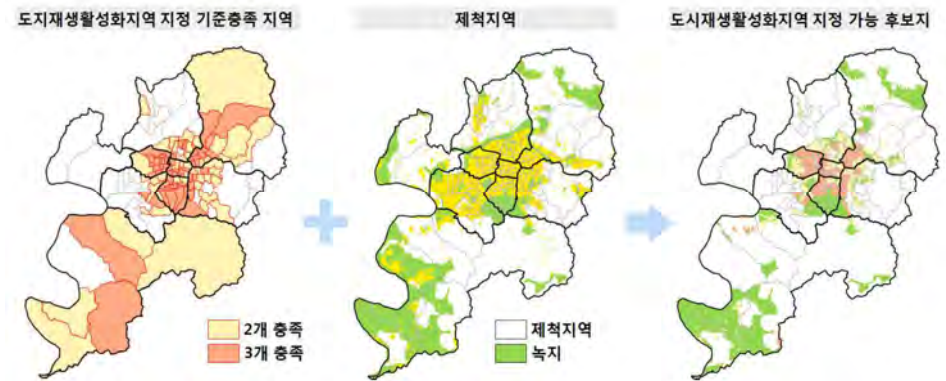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각 연도: 대구광역시. 2016.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35에서 재인용.

□ 혁신도시가 입지한 동구의 쇠퇴 현황

동구의 20개 읍·면·동 중 18개에서 2~3개 부문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공적 규제와 신규개발지,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동대구 권역의 일부 기성 시가지가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21 | 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 후보지



자료: 대구광역시. 2016.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86.

□ 대구 도시재생 방향과 혁신도시와 관계

혁신도시의 조성은 대구의 대표적 외곽 개발사업 중 하나이며, 도심에는 대규모 유희지가 발생하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외곽 확장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지를 중심으로 6대 재생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표 2-24 | 대구 유희부지 및 이전적지, 도시재생권역

대규모 유희부지 및 이전적지	도시재생권역
경북도청이전(2016년) - 면적: 대구 신도시 - 면적: 142,000㎡ - 개발방향: 정부청사지구 조성 논의 중 두류영수당 재개발(2009년) - 면적: 159,000㎡ 대구교도소 이전(2016년) - 면적: 105,000㎡ - 개발방향: 용암 초상 논리 중 K-2군공창 이전 - 면적: 용암 지역을 일괄 - 면적: 6,418,000㎡ - 개발방향: 용암역사지구 조성 미군기지(광복원역 등) - 면적: 남구 용암동 - 면적: 973,000㎡ - 개발방향: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예정	상위/관련 계획 정합성 2010 대구물원(안) 2010 대구도시기본계획(안) 재생거점 파급효과 - 대규모 이전적지/유희지 - 공간 중요도 자원 간 연계 시너지 창출 - 사회적, 문화적 통합성 - 재생자원의 유사성

자료: 대구광역시. 2016.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72, 144.

3)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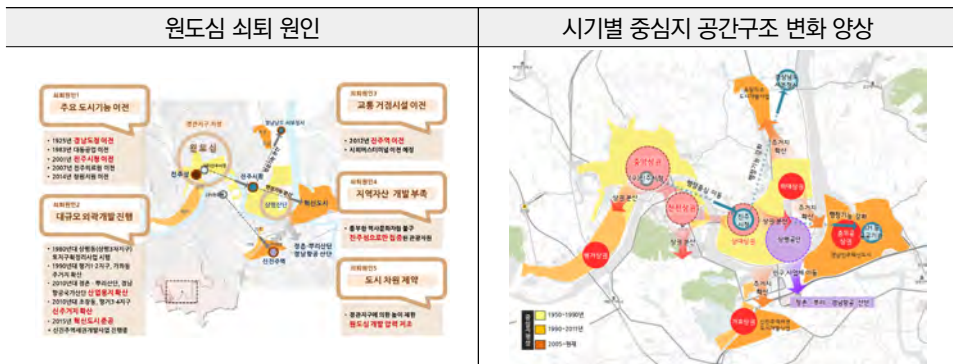
(1) 진주(경남혁신도시)

□ 진주시 공간구조와 변화와 원도심 쇠퇴

진주시는 1도심(평거, 강남, 상평지역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 1부도심(문산), 1지역 중심(반성) 체계이며, 경북혁신도시는 진주시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동편(충무공동)에 입지해 있다. 진주시는 진주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1980년대 상평동 일원으로 산업용지가 조성되고 원도심 일원의 시가지가 확장되어 이현동, 유곡동 일원까지 시가지화가 이루어졌다. 1995년 농촌지역인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어 도농 통합도시로 공간구조가 확장되고, 2001년 시청사의 이전으로 행정·업무 기능이 분산되어 원도심의 상권 위축이 발생하였다. 원도심 중심(진주성 일대)의 단일공간구조 범위가 확산되고, 2000년 이후 개발사업(상평산단, 혁신도시, 평거택지지구 등)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계획적인 공간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외곽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중심지의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사업지역 간의 공간연계가 취약하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가속화되어 공간구조와 인구배분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표 2-25 | 진주시 공간구조 변화와 원도심 쇠퇴



자료: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44, 118.

□ 진주시 동지역 쇠퇴 현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에서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진주시 동 지역 16개 동 중 11개 동으로 분석된다. 원도심에 해당하는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신안동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3개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 가장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쇠퇴기준에 부합되는 도시지역(11개 동지역)에 대해 집계구 단위의 세부지역 쇠퇴 분석결과,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동지역이 쇠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주시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의 쇠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6 | 진주시 동단위 쇠퇴 분석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쇠퇴지역	3개 부문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신안동	4개동
	2개 부문	천전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이현동	7개동
비쇠퇴지역		초장동, 평거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혁신도시 소재)	5개동
진주시 동지역 및 혁신도시 입지		동단위 분석 쇠퇴지역	
			
■ 혁신도시 ■ 2부문 쇠퇴 ■ 3부문 쇠퇴			

자료: (상단)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249. (하단 좌) 저자 작성.

(하단 우)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250.

□ 진주시 원도심 쇠퇴 현황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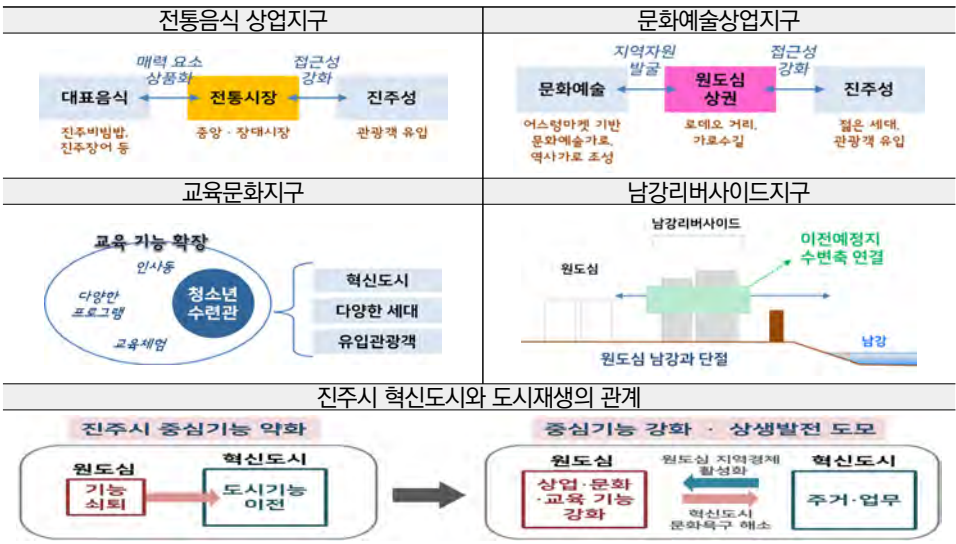
인구사회 측면상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앙동 권역은 인구 감소율 및 노령인구수가 가장 높아 신주거지로 인구유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비하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중심상권 기능 약화로 사업체가 유출되고 있으며, 물리·환경

측면상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봉동, 상대동, 성북동 원도심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진주시 원도심은 주요 도시기능 이전, 대규모 외곽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풍부한 역사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혁신도시 및 경상남도 항공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의 관계

원도심 활성화 3대 과제는 ‘진주성, 진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진주 유등 빛 프로젝트, 남강 리버사이드지구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특히 ‘진주성, 진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는 옛 진주성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교육지구에서는 평생학습 및 교육체험을 위한 교육기능 강화라는 취지에서 인재, 지역 중소기업 교육 지원 및 시니어를 활용한 특수목적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및 사회지원사업을 발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표 2-27 | ‘진주성, 진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자료: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274.

(2) 서귀포(제주혁신도시)

□ 제주도 서귀포시 도심권과 혁신도시 입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의 주요 기능 및 개발전략을 고려하여 제주의 6대 도시재생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도심권은 동 지역이며,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 도심권의 대륜동 일원에 입지하고 있다.

표 2-28 | 제주시 도시재생권역, 쇠퇴 현황, 혁신도시 입지

제주도 도시재생권역		서귀포 도심권 쇠퇴현황 및 혁신도시 입지	
구 분	행정동		비 고
쇠퇴지역	3개 부문	중앙동	1개동
	2개 부문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예래동,	4개동

자료: (좌)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p.6. (우) 저자 작성.

□ 혁신도시 소재 서귀포시의 쇠퇴 현황

12개 동지역 중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은 총 6개 동이며, 중앙동의 경우 인구, 산업, 물리·환경 3부문 모두 쇠퇴하고 있으며,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예래동은 인구와 물리·환경 2부문에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원도심 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 이상으로 노후 거주지가 다수 분포하고 쇠퇴에 따른 임대료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계층의 비율이 높다.

□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의 관계

혁신도시는 대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연계한 교육·연수 특화도시 조성을 도시재생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4) 중소도시 신도시형

(1) 나주(광주·전남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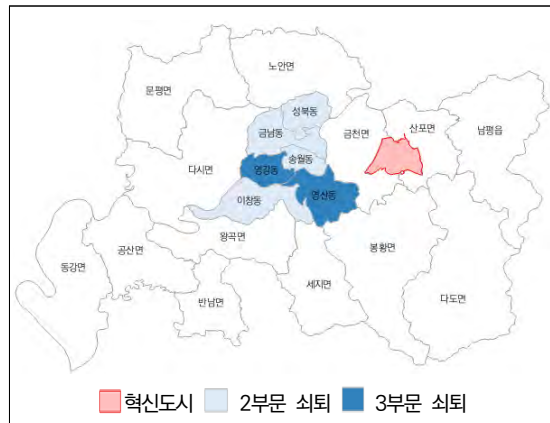
□ 나주시 공간구조와 혁신도시의 입지

나주시의 중심지 체계는 1도심(나주읍성), 1부도심(금천), 2지역 중심(남평, 동강) 체계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중심지 동쪽 외곽에 신도시로 조성되었다.

□ 나주시 동지역 쇠퇴 현황

나주시(2017a)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 세 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영강동, 영산동이며, 두 가지 조건(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을 충족하는 지역은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이창동 4개 지역이다.

그림 2-22 | 나주시 동지역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입지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 도시재생 방향과 혁신도시의 연계

읍성권역의 경우 혁신도시 연계 U-도시재생 등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재생전략

[그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재생방향



자료: 나주시. 2017a.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16.

나주시(2017a)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읍성지역, 영산포지역 및 남평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는 나주시의 공간적 대표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및 재생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읍성지역, 영산포지역, 남평지역의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읍성권역의 경우 혁신도시연계 U-도시재생 등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방향

권역 전략	읍성권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영산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남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방향	역사·문화기반 재생 / 도시환경 정비	근대문화거리 재생 / 문화적 정주환경 정비	지역연고 전략산업 육성 / 수복형 정주환경 정비
추진전략	- 서성문 역사공간 조성 - 지붕없는 역사박물관 혁신도시연계 U-도시재생 - 전통음식문화거리 - 읍성문화도시가로경관조성 - 역사문화루트조성	- 전통음식문화타운 - 근대역사문화가로조성 - 영산강수변공간조성	- 나주로컬푸드존(나주밥상) - 지역농축산물할인점 - 신한옥형 주거단지조성 - 취약지역 집중개조사업
연계방안	나주 도시재생의 거점조성 / 혁신도시와 연계한 도심재생	원도심재생의 파급효과 / 근대건축문화자원 활용	수변자원 활용 및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수요 흡수 / 광주광역시 중간거점 조성

자료 : 나주시. 2017a.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16.

□ 김천 원도심 쇠퇴 현황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김천시 자체 쇠퇴지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읍·면을 제외한 도심지역(동지역)인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대곡동 4개 지역이 모두 쇠퇴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천시 자체 쇠퇴지표 분석결과, 도심지역에서 쇠퇴 1등급은 평화남산동, 양금동으로 나타났으며, 쇠퇴 2등급은 대곡동, 자산동이 나타난다. 국토부 지침 기준으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분석결과, 도심지역(읍·면을 제외한 동단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의 3개 부문이 해당하는 지역은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2개 부문이 해당하는 지역은 대곡동으로 나타난다.

4개 동의 통단위 쇠퇴 분석결과, 대곡동 1개 지역, 평화남산동 9개 지역, 자산동 4개 지역, 양금동 1개 지역이 쇠퇴 1등급으로 총 166개 통에서 15개 통(9%)이 쇠퇴 1등급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평화남산동의 쇠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김천시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전략

원도심을 중심으로 3대 거점이 연계되도록 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원도심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직지사-원도심-혁신도시).

그림 2-23 | 김천시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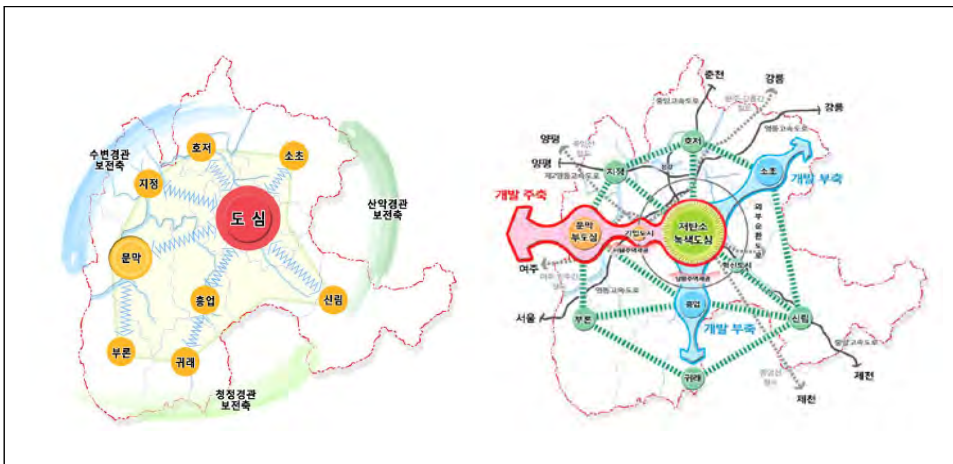
자료: 김천시. 2015. 2025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p.153.

(3) 원주(강원혁신도시)

□ 원주시 공간구조와 혁신도시 입지

원주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은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5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혁신도시는 중심권의 소생활권 중 하나이며, 현재 반곡관설동으로 통합되어 있다. 원주시 중심지 체계는 1도심(혁신도시, 판부, 남원주역세권), 1부도심 문막(서원주역세권, 기업도시), 7생활거점(흥업,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신림)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주의 주요 개발축은 문막 부도심과 기업도시, 서원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축이며, 개발 부축은 소초와 흥업 방향으로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표 2-30 | 원주시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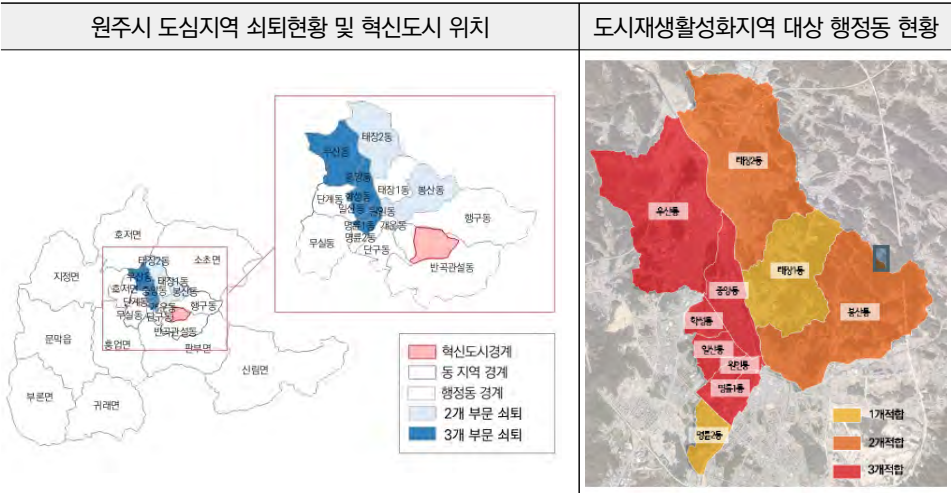
자료: 원주시. 2014.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p.103.

□ 원도심 및 쇠퇴 현황

원주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명륜1동, 우산동, 일산동, 태장2동, 봉산동, 중앙동, 학생동, 원인동 등 8개동이 쇠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혁신도시와 가깝게 위치해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중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명륜1동, 우산동,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이며, 두 가지 조건(인구사회, 건축물 노후화)을 충족하는 지역은 태장2동, 봉산동 2개 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총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중심시가지형 2개소, 일반근린형 3개소, 주거재생형 6개소이다.

표 2-31 | 원주시 원도심 쇠퇴 현황



자료: (좌) 저자 작성. (하단 우) 원주시. 2018.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p.93.

□ 원주시 도시재생 방향과 혁신도시의 연계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에서 혁신도시는 기업도시 등 다른 개발사업과 함께 원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도시기반 지원 이외에 별다른 연계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4) 전주(전북혁신도시)

□ 전주시 도심과 혁신도시 입지 현황

전주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은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5개 대 생활권과 8개 소생활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혁신도시는 서부권 대생활권의 효자 소생활권에 속해 있다. 전주시 중심지체계는 1도심, 3부도심(효자, 덕진, 팔복), 4지역중심(송천, 인후, 평화, 서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혁신도시는 서부 중심인 효자지역에 속한다. 전주의 주요 개발축은 서북부의 첨단산업권역, 도심의 도심재생권역, 서부 신시가지의 복합행정업무 권역 등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혁신도시는 이 중 친환경 첨단복합공간, 만성동 복합공간, 영상제작공간 등과 함께 첨단산업권역의 산업 개발축에 속한다.

표 2-32 | 전주시 생활권 현황 및 중심도심(2030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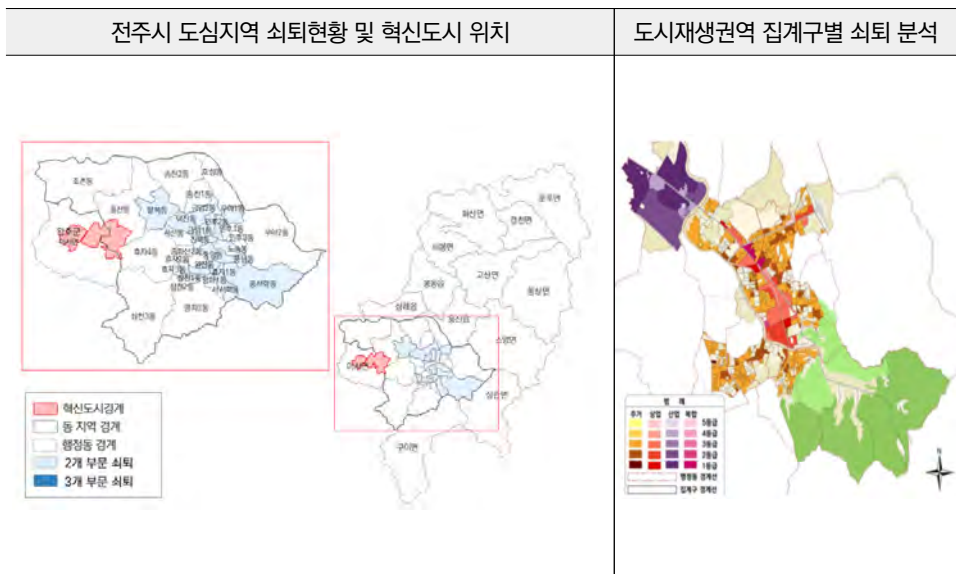


자료: (좌) 전주시. 2012. 202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 p.107. (우) 전주시. 2012. 202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 p.95.

□ 원도심 및 쇠퇴 현황

전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속하는 행정동은 팔복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우아1동, 인후2동, 진북동,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완산동, 효자1동, 효자2동, 심천1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등 총 16개이며, 전통문화거점, 광역교류거점권역, 첨단산업육성권역 3개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총 18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심시가지형 3개소, 일반근린형 15개소이다.

표 2-33 | 전주시 원도심 쇠퇴현황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자료: (좌) 저자 작성. (우) 전주시. 2019. 전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p.20.

□ 전주시 도시재생 방향과 혁신도시의 연계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광역교류거점권역 계획에서 혁신도시와의 교통체계 및 여건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북대학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며, 법원, 검찰청 이전지가 발생하는 거점 지역이다.

5) 분석결과 요약: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 쇠퇴 현황과 파급효과

본 절에서는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혁신도시 입지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도시 입지형,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중소도시 신도시형 등 혁신도시의 입지 특성에 따라 원도심 쇠퇴 및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도시 소재 혁신도시도 입지여건에 따라 원도심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와 같이 쇠퇴한 원도심에 입지한 경우 도시재생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구혁신도시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오히려 도심부 쇠퇴에 일조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부산 영도구와 남구, 울산의 중구는 쇠퇴하는 도심부였으며,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이 지역의 쇠퇴를 다소 간 늦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전반적 쇠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혁신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중소도시 소재 혁신도시도 인근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① 혁신도시와 더불어 다양한 외곽개발이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원도심 쇠퇴의 원인이 반드시 혁신도시 때문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 전라도의 중심이 원래 나주였으나 광주로 옮겨갔다가 혁신도시가 추가된 상황이어서 나주 원도심 쇠퇴는 광주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전주·음성) 전북혁신도시보다 인근 도시개발지구(법원과 경찰청이 이주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때문에 모도시가 쇠퇴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남혁신도시-진주) 2001년 시청사의 이전으로 행정·업무 기능이 분산되어 원도심의 상권이 위축되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외곽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중심지의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표 2-34 | 혁신도시 입지특성별 원도심 (동지역) 쇠퇴현황과 파급효과

입지 특성	혁신 도시	혁신도시 위치	원도심 쇠퇴 현황원도심 쇠퇴현황	혁신도시 파급효과
			혁신도시 2부문 쇠퇴 3부문 쇠퇴	
대도시 입지형	부산	해운대구 부도심권 (신개발지)		-
		남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영도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대구	동구 도심 외곽		혁신도시+각종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인구유출 도심부 대규모 유휴지 및 이전적지 (경북도청 이전, k-2 군공항 이전, 두류점수장 폐쇄, 대구교도소 이전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필요
중소 도시 신시가 지형	울산	중구 도심 (원도심)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진주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제주	서귀포 도심권 (원도심 인근)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입지 특성	혁신 도시	혁신도시 위치	원도심 쇠퇴 현황원도심 쇠퇴현황	혁신도시 파급효과
			혁신도시 2부문 쇠퇴 3부문 쇠퇴	
중소 도시 신도시 형	광주· 전남	나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강원	원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충북	진천· 음성 ^{주)} 도심 외곽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군지역에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중심지 생성
	전북	전주 완주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경북	김천 도심 외곽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

주: 군지역의 경우 인구가 집적된 동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도심 분석에서 제외
 자료: 김천시. 2015; 나주시. 2017a; 대구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2015; 완주군. 2019; 울산광역시. 2015; 원주시. 2019; 전주시. 2019; 진주시. 20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② 혁신도시로 인한 양질의 정주환경 제공과 일자리 증가

반면에 김천, 나주, 음성·진천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는 지역민에게는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충북, 광주·전남과 같이 실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이 발생했지만 모도시의 기업이나 일자리는 증가하기도 한다.

5.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이슈

본 절에서는 앞 절의 분석결과 및 현장전문가 면담 및 자문내용을 종합하여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의 주요 이슈와 재생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현장답사와 공무원 및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와 재생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1)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와 재생에 대한 지역의 인식 전환 필요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재원투자 집중과 분산에 대한 갈등

혁신도시 대(對) 모도시의 시각은 재원투자 집중과 분산에 대한 갈등에서 출발한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충북혁신도시 지역전문가).” 상대적으로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지역전문가들은 원도심 재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하기도 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담당공무원과 지역전문가의 현장 자문결과 혁신도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혁신도시 내부 정주환경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원도심이나 모도시에 대해 공무원과 지역전문가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 혁신도시 대 원도심이 아니라 혁신도시-원도심 상생으로서 재생전략 인식 필요

이런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 원도심 재생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갈등이 아니라 상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도심 재생을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은 해당 사업을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배분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원도심 연계 교통문제 해소 등 두 지역의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재원은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서 이전 공공기관이나 혁신도시의 수요를 잘 반영할 경우 사업선정이 되기 쉽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간재편 전략 필요

□ 혁신도시-원도심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처방하기에는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

대도시 소재 혁신도시도 입지여건에 따라 원도심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와 같이 쇠퇴한 원도심에 입지한 경우 도시재생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구혁신도시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오히려 도심부 쇠퇴에 일조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부산 영도구와 남구, 울산의 중구는 쇠퇴하고 있는 도심부였으며,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이 지역의 쇠퇴를 다소간 늦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전반적 쇠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혁신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소도시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와 재생도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원도심 쇠퇴의 원인이 반드시 혁신도시 때문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신도시를 포함한 외곽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중심지의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반면에 김천, 나주, 음성·진천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민에게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충북, 광주·전남과 같이 실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은 발생했지만 모도시의 기업이나 일자리는 증가하기도 한다.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에 따른 공간재편 전략이 필요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의 외곽화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원도심의 주요 기능을 문화관광, 소비, 상업, 공공서비스 등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 나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원도심의 공간적 기능 분화를 수용하고, 원도심의 소비·관광·문화기반을 강화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CHAPTER 3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 77
- 2.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92
- 3. 정책적 한계와 제도개선 과제 | 103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지역 상생발전 및 원도심 재생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계획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및 제도, 원도심 재생 관련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자체 계획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새뜰마을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생발전부문 과제 중 2018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2019년 예산 투입계획 중인 사업은 총 18개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까지 혁신도시 모도시에서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5개만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본 절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쇠퇴지역 및 원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뉴딜과 새뜰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쇠퇴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을 세분화하고 확대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새뜰마을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의 생활인프라, 집수리,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1) 혁신도시 시즌 2의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방향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서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이 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구도심 재생 연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이행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우선 선정, 문화진흥 네트워크의 구축, 로컬푸드 직매 장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 상생발전기금 조성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표 3-2).

표 3-1 |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향(2018년)

비전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혁신성장 지역 거점화	
추진 과제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도시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지역인재 채용확대 지역발전 사업추진 기업, 대학교 유치촉진 오픈캠퍼스 운영	스마트시티 조성 정주인프라 투자확대 교통체계 개선 가족동반 이주지원	국가혁신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강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혁신성장 인큐베이팅	지방대학,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구도심 재생 연계 등	종합발전 계획수립 혁신 거버넌스 체계구축 혁신도시 특별회계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p.4.

표 3-2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과제와 이행계획

추진과제	이행계획	이행시기	주관부처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산학 협력 클러스터 육성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2018. 12	교육부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	김천, 나주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우선선정 고려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시 인센티브 상생발전기금 조성 유도	2018. 2~ 2018. 2~ 2018. 12 2018. 12 2018. 12	국토부 문화부 농림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p.16.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2 초기 정책은 관계기관 유인책이 부족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실행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기업입주 유인책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을 수정하였다.

2019년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의 4대 추진과제는 살기 편한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양성·채용, 추진동력 강화로 조정되었으며,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은 살기 편한 혁신도시 추진과제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으로 주민주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지원이 제시되었다.

표 3-3 |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수정내용(2019)

비전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혁신성장 지역 거점화	
추진 과제	살기 편한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양성·채용	추진동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	기업유치 기반구축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 강화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의무화 시즌2 맞춤형 예산 편성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d.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 내부자료. p.3.

표 3-4 |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

이행계획	추진 현황
지역주민 주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2019. 6~11)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지원(3개소)	〈지원내용〉 혁신도시별 특징을 살린 사업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추진경과〉 공모사업 제출(지자체→국토부, 2019. 8), 사업선정(2019. 10) 〈공모 제출사업〉 - 강원: 지나온 기억을 공유하는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 경북: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 경남: 나눔과 머뭇, 도심을 치유하다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d.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 내부자료. p.5.

2)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방안 추진 현황

(1)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

정부는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고 지역생활권 내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목하고, 향후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발굴·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별 특징을 살린 사업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대상은 강원 원주(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경북 김천(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경남진주(나눔과 머뭍, 도심을 치유하다)이다.

표 3-5 | 2019년 하반기 지원·선정된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지역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사업구역	사업내용
강원	■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2020 ~2023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02-71번지 일원	■ 주거환경 개선 및 노령인구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주민의 공동체역할 강화, 노인 및 교통약자 보행길 조성 확대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등 지역 내 주거지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북	■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2020 ~2024	경상북도 김천시 감호동 44번지 일원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모형」으로 설정하여, 경북혁신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토대로 감호 원도심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성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쇠퇴한 감호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경남	■ 나눔과 머뭍, 도심을 치유하다	2020 ~2024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51번지 12 일원	■ 진주성과 쇠퇴한 상권 및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역사문화공간을 창조하고 활력상업문화가로 조성으로 가로상권 활성화, 산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정비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료: 원주시. 2019; 진주시. 2019; 김천시. 2019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농림부)

로컬푸드 직매장은 혁신도시 인근 농촌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혁신도시 내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농산물과 관련 제품 등 지역생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교육컨설팅(국비 100%), 매장시설비(국비 30%) 지원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13). 2019년 12월 기준 7개 혁신도시에 14개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표 3-6 |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지역	매 장 명	개장 일자	주 소	매출액 (2018년)	매출액 (2019년)	비고
	합계			18,615	19,495	
강원도 (3)	원주원예농협 로컬푸드(봉화산점)	2014. 7	강원 원주시 로아노크로 28	1,910	1,583	폐점 (2020. 1)
	원주원예농협 로컬푸드(모란점)	2016. 6	강원 원주시 모란1길 69 (현재 원주시 양지로 26로 이전)	632	366	관내이전 (2020. 1)
	원주축협 로컬푸드	2016. 6	강원 원주시 원일로 233 (학성동)	1,744	1,796	관외
충북 (4)	진천농협 로컬푸드	2014. 1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5길 12	2,343	2,500	관외
	음성농협 로컬푸드	2015. 7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9	860	1,350	관외
	덕산농협 로컬푸드	2019. 8	진천군 덕산읍 용몽2길 17-7		8	관외
	맹동농협 로컬푸드	2019. 8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34		15	관내
경남 (2)	진주로컬푸드	2014. 6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61번길9	646	477	관외
	진주텃밭	2015. 5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5	450	547	관외
대구	대구 로컬푸드	2017. 11	대구 동구 동촌로 73	1,520	1,310	관외
전북	완주로컬푸드 (혁신점)	2016. 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20	4,776	5,100	관내
전남 (2)	나주로컬푸드 빛가람점	2015. 11	전남 나주시 그린로 216 (빛가람동 668-1)	3,332	3,452	관내
	나주산포농협점	2019. 8	나주시 한빛로 171		444	관내
제주	안덕농협 로컬푸드	2015. 7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2	402	547	관외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b. 혁신도시 통계자료. 12월 31일. p.34.

(3) 발전기금 조성 유도과 의무화 추진

2018년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초기에는 지역 내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유도하였다. 상생발전기금은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조성되며, 전북 지역균형발전기금은 35억 원을 목표액으로 2017년 9억 원을 조성하였다.

표 3-7 |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 혁신도시개발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 ③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자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④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 제49조.

표 3-8 | 전북혁신도시 상생기금 운영 사례

- 전라북도는 2016년 11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방안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확정
- 그러나 기금 조성규모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주변 지자체 지원사업 시행은 불투명한 실정
 - 2017년 8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운영할 예정
 - 이전 공공기관 등이 납부한 지방세를 활용하여 23억 원 조성(2019년 6월 기준)
 - 기금 적립액 35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전라북도 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실정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p.161.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도시 시즌 2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컨트론타워)¹⁾을 모델로 하여 10개 혁신도시에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발전기금 조성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²⁾

1) 발전재단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행안부 심의(2019. 1)→조례제정(2019. 3)→발기인 총회(2019. 8)→법인허가(2019. 12)

2) 2019년 12월 기준 국토위 소위계류 중이다.

3) 원도심 재생관련 공모사업

(1) 도시재생 뉴딜

2019년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 5대 과제를 추진 중이며,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21)

표 3-9 | 뉴딜사업의 4대 목표와 5대 추진과제

4대 목표	5대 추진과제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도시 활력 회복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자료: 국무조정실, 2019b.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10월 8일. 보도자료. p.21.

표 3-10 | 뉴딜사업의 다섯 가지 유형

추진 과제	주거환경 정비		혁신거점 조성		
5개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	저층 주거밀집지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역사,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권장면적	5만㎡ 내외	5만 ~ 10만㎡	10만 ~ 15만㎡	20만㎡ 내외	50만㎡ 내외
국비/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선정주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국토부)	
선정물량	전체 물량의 70% 수준			전체 물량의 30% 수준	

자료: 상계서. p.21.

2019년 8월 1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사항 간소화,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강화 등을 담은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³⁾.

표 3-11 |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내용

신설 및 변경	상세 내용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지역의 일부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공영개발자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총괄관리자 제도	-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 -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
경미한 변경 간소화	-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국공유재산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임대료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하였음 (주요내용) ① 임대기간 10년→ 20년 확대 ②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 1% 인하

자료: 국토교통부, 2019f.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로 토대로 재구성.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반기 22곳, 하반기 76곳이 선정되었으며(국토교통부, 2019a, 2019b), 하반기 사업에는 활성화계획 평가에 가점 및 감점 요소가 도입되었다. 가감점이 도입되는 내용은 부처연계 사업, 생활 SOC,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위기 재생모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장기 미집행 공원활용사업 우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국토교통부, 2019h:23-30)이나 현재까지 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청유형이나 가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추가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별도 선정하였으며, 2019년 동안은 상반기에 1곳, 하반기 3곳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당 국비 최대 30억 원 추가 지원(지방비 매칭), 스마트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19f:3-4).

3) 국토교통부, 2019f.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2일. 보도자료.

표 3-12 | 활성화계획 평가 주요 가감점 요소

구분		해당 유형	주요 내용
부처연계사업(2점)		5개 유형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8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생활 SOC(1점)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활 SOC를 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
지역 특화 재생 사업 (2점)	대학타운형	중심, 일반	•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시설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건축·경관 특화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국토경관 품격 향상 유도
	건축자산 연계형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
	역사문화 특화	중심, 일반	•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
	지역상권 특화	중심, 일반	•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여성친화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정부방설계 등 여성친화형 공간 조성, 여성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농촌지역 특화발전	일반, 주거, 우리동네	•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 추진
	공공생활서비스 특화	일반, 주거, 우리동네	• 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일반, 주거, 우리동네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 공급사업(1점)		5개 유형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1점)		5개 유형	•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
경제위기 재생모델(1점)		5개 유형	•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대규모 공공주택공급 기초지자체(2점)		5개 유형	• 수도권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1점)		5개 유형	• 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 부여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1점)		5개 유형	• 가장 최근에 실시한 「도시재생법」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가감점
시도 부여 가감점(±2점)		일반, 주거, 우리동네	• 시·도 선정사업 평가 시, 시·도에서 지정한 가·감점항목

자료: 국토교통부. 2019h.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p.21~32. 재구성.

(2)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⁴⁾은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집수리 지원, 돌봄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선정된 곳은 농어촌 3년 이내, 도시지역 4년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b:1~3).

새뜰마을사업의 목표는 환경개선사업과 복지사업을 병행하여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주민참여 사업은 거주민이 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d:5). 사업 내용은 시설개량 등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복지 소프트웨어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생활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를 지원하며, 집수리 지원 차원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 2018d:5). 소프트웨어 사업인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사업으로는 노인돌봄(반찬나눔, 건강관리 등), 역량강화 사업 등(마을기업 육성, 한글교육 등) 맞춤형 휴먼케어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 2018d:5).

(3)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생활 SOC 관련 국고보조사업 2개 이상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1). 복합화 사업 유형은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① 돌봄플랫폼, ② 체육플랫폼, ③ 문화플랫폼, ④ 복합플랫폼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6).

4)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2015년 말 사업명칭 공모를 통해 새뜰마을사업으로 명명하였다. 현재는 두 가지 사업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균형위, 금년 9월말까지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보도자료 p.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6월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로 2022년까지 연간 10조 원씩 3년간 30조 원을 생활 SOC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복합화하는 경우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현행 대비 10%p 인상하여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9:12).

표 3-13 | 생활 SOC 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부처	시설(사업)명	회계	사업추진 방식
문체부	공공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복지부	어린이집(국공립)	일반회계	공모 선정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기금	공모 선정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국토부	주거지주거장	양평기금	공모 선정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6월 12일. p.4.

생활 SOC 복합화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계획의 경우, 이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신청의 선정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 연계를 위해 컨설팅 과정에서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에서는 복합화 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지자체에게 사업 메뉴판으로 제시하고, 지자체는 희망사업을 선택하여 연계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앞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더불어 지역 단위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통한 다각적 포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중앙 주도 혹은 부처 간 칸막이식 지원사업을 지역주도의 통합 패키지로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 지원하는 개념이다. 균형발전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 생활 SOC 복합화와 지역투자협약 연계의 예를 들자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설물과 연계하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하드·소프트웨어사업, 접근성과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사업을 통한 생활거점 구축 등이 있다. 인구증감, 인구구조,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과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3-2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개념도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추진일정(안) 〉

- ①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침 마련 (9월, 국토부) ⇨ ② 연계사업 발굴 및 협약안 초안 마련(~10월, 시도지사) ⇨ 부처협의 및 협약서 심의의결(사도↔중앙부처)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6월 12일, p.20.

표 3-14 |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 지역발전지원 사업 리스트(예시)

	사업명	사업 개요(사업내용/지원조건)
문 체 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참가자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국비 50%(국민체육진흥기금)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재생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학이 협업하는 컨설팅 지원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복 지 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 지자체의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기획 지원 · 국비 70%(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환 경 부	생태휴식공간 확대 (생태놀이터)	· 도시지역의 유휴 자투리땅을 활용, 소규모 생태자연공원 조성 · 국비 3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생태휴식공간 확대 (자연마당)	· 도심과 그 주변의 불법경작지, 내대지 등 유휴 · 방치된 훼손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농 림 부	농촌형 교통모델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 · 최대 100만 원(국고 50%, 지방비 등 50%/ 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국 도 부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어울림센터)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도시재생사업 (거점형 어울림센터)	· 서울 40%, 광역시 50%, 기타 6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기선정된 사업에 한함
	성장축진지역개발 (지역수요맞춤지원)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하드 + 소프트) 지원 · 국비 100%(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주차환경 개선지원	·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 지원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행 안 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위험도로 구조개선	· 지방도로상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인구 급감 지자체에 생활 인프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 · 국비 50%(특별교부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지원(부처)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국비 80%(균특회계 지역자율(시군구)계정)
	지역사회 활성화기반조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 국비 50%(균특회계 지역자율(시도)계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6월 12일, p.22.

(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70~1980년대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1차 산업시설 중 수명을 다해 방치된 곳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12개소, 2015년에 5개소, 2016년에 6개소, 2017년에 6개소를 지원 중이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도시재생사업 뉴딜의 부처연계사업 중 하나로도 제시되어 있다.

표 3-15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 대상 - 혁신도시 모도시

선정	위치	사업명	사업기간	계획
2014	광주 광산구 소촌동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2014 ~2015	문화거점공간 -레지던시 공간, 뉴미디어룸, 아트플 랫폼, 생태공원 등
	전남 나주시 (구)나주잠사	나주 나비센터	2014 ~2015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교 육 선순환 거점공간
201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농협 비료창고	책마을 문화센터	2015	책마을 헌책방, 북카페, 문헌아카이브 센터, 공연장 및 강연장 조성
	전라북도 완주군 (구)호남잠사	다목적 에코에너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2015	방문자 센터 및 전시관 조성, 기술공 방, 에너지 기술 DIY 제작실 조성
20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쓰레기 공장건물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	2016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 팔복동 기업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완주 잠업사업지 문화재생사업(2단계)	2016	로컬 디자인과 창조공간, 생활문화공 간, 교육공간 조성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평가 및 효과제고 방안 연구. p.34.

(5)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구청, 동사무소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이 선투자하여 복합 개발함으로써 기존 공공건축물 기능은 갖추면서 주민편의시설, 임대 수익시설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개발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 2018e). 2018년까지 총 12곳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에서는 진천군 전통 시장이 선정되었다.

표 3-16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현황 - 혁신도시 모도시

대상	위치	경과년수	선정사유
·진천군 구)전통시장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일원	41년	전통시장 이전에 따라 군에서 건물을 우선 철거하였으며 유휴 공유지의 체계적 개발 필요, 복합문화시설 설치 시 충북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 고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자료: 국토교통부. 2018e.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1월 3일. 보도자료

(6)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공공주도 정비를 지원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까지 혁신도시 인근 원주시와 울산 중구에는 3곳이 선정되었으며, 이외에 2019년 예비사업으로 원주시 태장동에 1곳이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2019d:2).

표 3-17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현황 - 혁신도시 모도시

연도	대상지	용도	공사 중단시기	추진 현황
2015	원주시	공동주택	1994. 11	1994년 공사 중단된 주상복합건축물을 LH 청 년매입임대주택으로 487호 오피스텔 신축
2018	원주시	판매시설	1997. 1	정비모델 수립
2019	울산 중구 성남동	문화 및 집회시설	2007.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 검토

자료: 국토교통부. 2019d. 공사중단 건축물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9월 3일. 보도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2.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본 절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혁신도시-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검토하였다. 관련 계획으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이 있다.

먼저 혁신도시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상생발전 전략 중 원도심 재생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원도심 재생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관련 사업계획이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별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과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

□ 지자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정부지원

10개 혁신도시는 2018년 10월에 혁신도시 발전계획(2018~2022)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정주환경 조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부문별 전략과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발전계획의 이행촉진을 위해 기획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근거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로, 해당 조항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i). 지원대상은 사업내용 우수하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며, 지원내용은 공모제안서 수립에 필요한 기획비를 지원한다. 해당 우수사업 3건을 선정하여, 사업별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9월 말 우수사례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12월 중 우수사례와 우수지자체를 시상하였다.

그림 3-3 |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혁신도시 중심으로 新지역성장 거점 구축	
목 표	■ 이전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한 혁신성장 지역거점화 - 입주기업수 1,000개사, 고용 20,000명, 지역인재채용률 30% ■ 수준 높은 정주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가족동반이주율 58% ⇨ 75%, 주민 삶의 질 만족도 52점 ⇨ 70점
3대 부문	주요 추진전략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 기업 입지여건 개선 ■ 기업활동 지원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문화·교통편의 향상 ■ 보육·의료 여건 개선 ■ 스마트 라이프 구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 원도심 발전 지원 ■ 상생발전 기반 구축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p.74.

표 3-18 | 2019년 상반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선정 결과

부문	사업명	지역
■ 특화발전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광주·전남
■ 정주여건	- 중구대표도서관 건립	울산
	-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전북

자료: 국토교통부, 2019i. 혁신도시 시·군2, 우수사업기획비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6월 21일. 보도자료. p.4.

□ 상생발전 부문 관련 예산투입사업 현황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0개 혁신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생발전부문 추진과제 중 2018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2019년 예산투입 계획 중인 사업은 18개이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은 7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3개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2019d).

표 3-19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중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18개 사업)

구분	2018년 이전 사업	2019년 사업
부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희망을 주는 시설 및 주거 개선사업 (HOPE with HUG 등) - 동천 생태하천 복원	-
대구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
광주·전남	-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리빙랩 특화사업 - 유희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 활성화	-
울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강원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반곡역 도시재생사업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 및 운영	혁신도시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전북	-	- 농촌정원 조성사업 -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북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추진	로컬푸드 판매장터 확대 및 운영
경남	-	- 상생 농식품마켓 플랫폼 및 공공급식지원 센터 설립 - 혁신도시 지역청년심핀드 조성
제주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마을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2019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자료집을 발췌하여 저자 재구성.

표 3-20 |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 사업개요

구분	주요 추진과제	사업기간	사업구역	사업개요
부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2018 ~2019	부산 전체	■ 부산광역시와 은행 간 전략적 공조를 통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함(연간 120건 이상 지원)
	■ 희망을 주는 시설 및 주거 개선 사업(HOPE with HUG 등)	2018 ~2022	주거취약지역	■ 부산광역시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산 행복·새뜰마을 연간 70가구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주택·사회복지시설·마을거점시설 등 5개소 개보수 지원
	■ 동천 생태하천 복원	2015 ~2019	혁신도시 인접	■ 문현지구 인근에 있는 동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악취해소로 시민 및 내방객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동천유역 친수형 공간 창출
대구	■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2018 ~2021	중구 수창동 29-1번지	■ 대구지역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구시-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협력하여 대구행복연합기숙사(대구보건소 부지)를 건립
광주·전남	■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리빙랩 특화사업	2018 ~2022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 원도심	■ 광주광역시와 나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 에너지 특화 분야의 마중물 사업으로 '리빙랩'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 유희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활성화	2018 ~2025	나주시 원도심	■ 나주 원도심 유희상가 및 오피스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유도 ■ 나주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울산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속추진	2016 ~2020	울산 중구 중앙동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 울산, 중구로다 - 방치여관 활용 청년 CEO 창업몰 조성 - 창업공간융합 도심형 문화공원 - 울산읍성 쉼터공간, 도시재생 어울림 공간 조성
		2018 ~2021	울산 중구 학성동	■ 도시재생뉴딜사업 - 군계일학, 학성 -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 -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 학성주민 동력 형성사업
강원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반곡역 도시재생사업	2019 ~2022	혁신도시 반곡역 일대 나대지	■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공간으로서 반곡역을 활용하여 정주공간 개선 및 도시 활력 재생 추진

구분	주요 추진과제	사업기간	사업구역	사업개요
충북	■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안전체험관 조성 및 운영	2018 ~201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81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공모에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선정
	■ 혁신도시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2019 ~2022	혁신도시 내	■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 농협 및 소비자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매장 설치, 로컬푸드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 및 농식품 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등
전북	■ 농촌정원 조성사업	2019 ~2022	읍면별 1개소	■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매년 5개 마을 조성)
	■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9 ~2025	전라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농업마을 만들기, 농업관련 자원 활용 도시재생, 책 및 출판을 주제로 하는 '책마을' 도시재생사업, 전기 및 안전을 도시재생 테마로 하는 '빛의 마을' 도시재생사업, 대규모 농작물에 의한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농업 단지' 조성,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한 음식타운 조성 등
경북	■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추진	2018 ~2020	김천 평화동	■ 평화동 도시재생사업(KT&G 창고매입 복합문화센터 설립, 김천역 활용 커뮤니티 거점 조성, 빈집포 활성화 사업 등)
	■ 로컬푸드 판매장터 확대 및 운영	2019~	혁신도시	■ 경북혁신도시 일원에 로컬푸드 직매장 및 판매장터 설치
경남	■ 상생 농식품마켓 플랫폼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2019 ~2023	혁신도시	■ 혁신도시 내 농촌지역 및 주변 시군의 농업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
	■ 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	2019 ~2023	인근 지자체 대학	■ 지역청년십 펀드는 혁신도시 배후도시 소재 대학(경남과기대, 경상대 등), 관련 지자체(경상남도 및 진주시 등), 혁신도시 입주 지역공공기관(LH, 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민간기업(KAI 등)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협력 펀드로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제주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2018 ~2022	제주 전체	■ 공무원연구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체 등의 판로지원
	■ 마을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	2019 ~2022	1단계 : 혁신도시 반경 10km 2단계 : 1단계 제외 전 지역	■ 제주혁신도시 방문 연수생 및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마을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의 유희공간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 2019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자료집- 혁신도시별 핵심과제 사업계획서.; 울산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unggu.ulsan.kr/URC/urban> (2019. 9. 10 검색). 해당 자료의 상생발전 부문을 발췌하여 저자 재구성.

2)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혁신도시에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 산업, 물리환경의 쇠퇴로 인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진천은 2019년부터 전략계획을 수립 중으로 2020년에 완료예정이다.

표 3-21 |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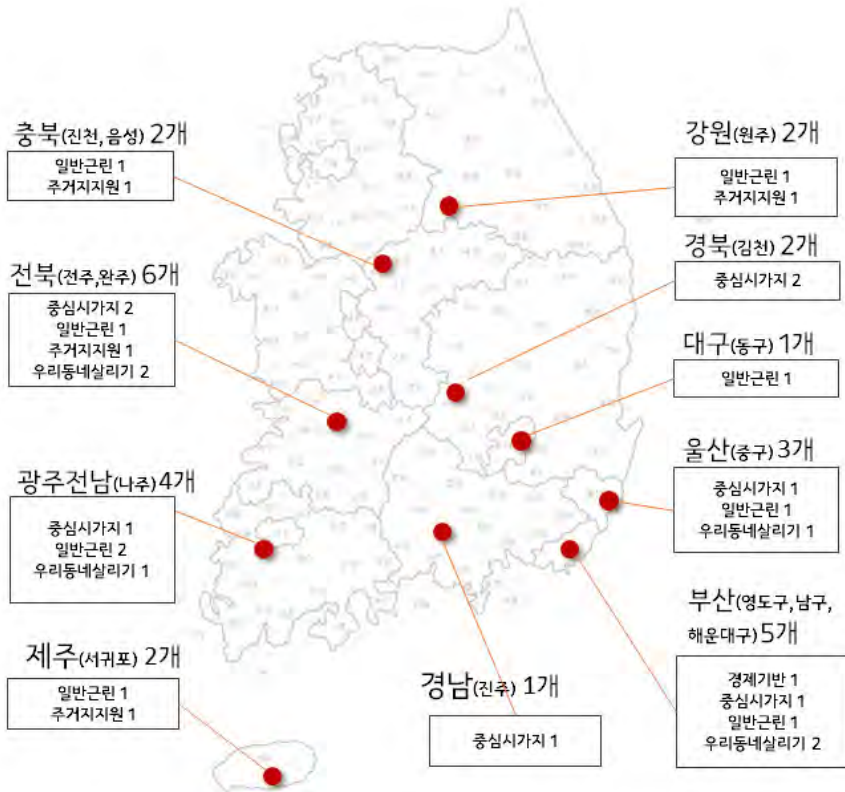
지역		승인	비전	공모 선정	사업대상지 (행정동)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2015.11.25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 산·강·바다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부산 공동체	5	영도구 봉래1동, 봉래2동 해운대구 반송2동
	대구	2017.1.10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 - 젊어지는 대구, 젊음이 가득 찬 대구	1	동구 효목동
광주·전남	나주	2017.7.1	역사·문화자산과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를 통한 나주 재생	3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영강동
울산	중구	2016.3.10	시민의 창조적 참여로 조화와 성장이 지속되는 품격 도시 울산	4	중구 중앙동, 학성동, 병영2동
강원	원주	2018.8	건강한 주민들이 만드는 활력 넘치는 활력도심, 원주	2	학성동
충북	진천	2019 수립중	-	-	-
	음성	2019.4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음성	2	음성읍 읍내1~4리
전북	전주	2016.1.7	사람·생태·문화의 가치를 살린 천년전주 도시공간 재창조	4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서학동 덕진구 우아동3가
	완주	2019.7.16	성장원동력 팔색기능과 함께하는 원공간의 재창조	2	봉동읍
경북	김천	2016.3.18	Heart Alive IN GimCheon(‘김천의 심장’ 원도심을 살리다)	2	남산평화동,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일부)
경남	진주	2017.9.29	『가치』 있는 『진주성·남강의 역사문화』 도시의 빛(活力)을 찾는 『진주도시재생』	1	성북동, 중앙동
제주	서귀포	2017.5.10	역사, 문화, 사람중심도시 제주 (제주도 전체 계획)	2	대정읍 상하모리, 월평동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municipality/statusInfo/link.do> (2019. 8. 12 검색); 국토교통부. 2013; 국무조정실. 2016, 2017, 2018, 2019a, 2019b.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공모 사업 선정수와 사업대상지 작성.

□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2019년 현재까지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2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북(전주, 완주) 6개,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5개, 광주·전남(나주) 4개, 울산(중구) 3개, 충북(진천, 음성)과 제주(서귀포), 강원(원주), 경북(김천)이 각 2개, 대구(동구)와 경남(진주) 각 1개씩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3-4 |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3; 국무조정실. 2016, 2017, 2018, 2019a, 2019b.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부록 1 참고).

□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된 28개 도시재생사업 중 5개 사업(광주를 포함하면 6개)만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인력양성 및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나주), 경북(김천)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고,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참여한 곳이 3곳(강원, 경북, 경남)으로 모두 선정되었다. 강원, 전북, 제주 3곳 등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상 2019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3-22 |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 사례

지역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사업구역	혁신도시와 연계성
부산	■ 근대조선산업의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 기지로 전환(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 ~2024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119일원	■ 쇠퇴한 선박 수리산업지역에 '선용품센터'와 '수리조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수리조선 산업을 고도화,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인력 및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 '지역산업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광주·전남	■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리빙랩 특화사업	2018 ~2022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 원도심	■ 광주광역시와 나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 에너지 특화분야의 마중물 사업으로 '리빙랩'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 유희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활성화	2018 ~2025	나주시 원도심	■ 나주 원도심 유희상가 및 오피스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유도 ■ 나주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원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반곡역 도시재생사업	2019 ~2022	혁신도시 반곡역 일대 나대지	■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폐철로 및 반곡역을 기반으로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 강의, 워크숍, 실습 등의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의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운영 -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주민참여 문제해결 도입
	■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2020 ~2023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02-71번지 일원	■ 주거환경 개선 및 노령인구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주민의 공동체역할 강화, 노인 및 교통약자 보행길 조성 확대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등 지역 내 주거지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지역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사업구역	혁신도시와 연계성
전북	■ 이천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9~2025	전라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이천공공기관 역량 활용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농업마을 - 마을텃밭, 주말농장 등 주민들과 마을에서 도시농업을 마을 특색으로 재생 - 농촌진흥청의 농업관련 신기술 및 농법을 적용한 농업 기술 기반 도시농업마을 재생 ■ 책마을 등 테마형 도시재생사업('도시농업마을', '책마을') 추진 - 다수 동네서점이 있거나 고서를 수집·판매하는 지역에서 책 및 출판문화를 특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적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재생
경북	■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추진	2018~2020	김천 평화동	■ 평화동 도시재생사업(KT&G 창고매입 복합문화센터 설립, 김천역 활용 커뮤니티 거점 조성, 빈집포 활성화 사업 등)
	■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2020~2024	경상북도 김천시 감호동 44번지 일원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모형」으로 설정하여, 경북혁신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토대로 감호 원도심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성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쇠퇴한 감호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주	■ 마을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	2019~2022	1단계 : 혁신도시 반경 10km 2단계 : 1단계 제외 전지역	■ 제주혁신도시 방문 연수생 및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마을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의 유희공간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경남	■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2020~2024	경상남도 진주시 남포로 661번지 12 일원	■ 진주성과 쇠퇴한 상권 및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역사문화공간을 창조하고 활력상업문화가로 조성으로 가로상권 활성화, 산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정비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2019d, p.154; 부산광역시, 2020; 원주시, 2019; 진주시, 2019; 김천시, 2019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3) 새뜰마을사업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에서 총 13개 새뜰마을사업이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충북(진천, 음성), 전북(전주, 완주), 경북(김천),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등 6개 지역에 사업이 있으며, 사업 수는 전북(전주, 완주) 4곳, 경남(진주) 3곳, 충북(진천, 음성) 2곳 등 순으로 많게 나타난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의 내용 중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혁신도시와 연계성은 미비한 편이다.

그림 3-5 | 혁신도시별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2016; 국토교통부, 2017b, 2018d;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019.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부록 2참고).

4)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그림 3-6 | 혁신도시별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현황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과 제주(서귀포)가 각 3개, 강원(원주), 전북(전주, 음성), 경남(진주)이 각 2개,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 울산(중구), 충북(진천, 음성), 경북(김천)이 각 1개씩 사업이 선정되었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3 | 혁신도시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지역		사업명	시설구성
부산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남구,	남구청 별관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해운대구	우암동 복합청사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대구	동구	행복복지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광주·전남	나주	나주시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울산	중구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강원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충북	진천, 음성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북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완주	전주 청년센터 청년청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경북	김천	Happy Together 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경남	진주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장애인 문화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제주	서귀포	서귀포시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 보도자료. 혁신도시 소재지역 사업현황을 발췌하여 저자 재구성.

3. 정책적 한계와 제도개선 과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혁신도시 종합계획수립 담당자(지역연구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혁신도시 현장방문 및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1) 중앙정부 차원

□ 상생발전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 부재

2019년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는 시·도 2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부문의 이행전략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의무화 등에 새로운 정책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혁신거점으로써 주변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므로 혁신도시의 성숙 단계에 맞추어 상생발전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간 연계성 미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추가되거나 관련 사업내용이 반영되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는 혁신도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관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사업공모가 진행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공모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주로 신규 개발지 중심으로 공모되는 중이며, 이후 사업 공모 시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지자체 차원

□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상대적 시급성 결여로 관심 부족

지자체의 공무원과 지역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자체의 정주체계를 완성하고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혁신거점의 발전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워야 그 낙수효과를 원도심이나 모도시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혁신, 정주, 상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 사업 중 상생부문의 수가 적고 실효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혁신도시 담당공무원, 지역전문가 면담결과, 혁신도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혁신도시 자체의 정주여건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제주, 광주·전남, 경북혁신도시 공무원 및 지역전문가).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의 협의채널 및 실효성 미비

계획 수립기간이 촉박하고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적 의견교환이 부족하여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이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발전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재단 설립과 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발전재단의 자립성을 구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 이전 공공기관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미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은 기획단계에 그치고 실제 협이가 미진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와 혁신도시 담당부서가 달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과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공기관 참여 유도, 지자체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CHAPTER 4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 1. 사례 개요 | 107
- 2.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 109
- 3.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 116
- 4.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희공간의 활용 사례 | 133
- 5.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 사례 | 141
- 6.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의 시사점 | 146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계획을 통해 나주 원도심과 조치원 원도심 재생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재생사례와 공공주도형 지역기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원도심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조치원 사례와 나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행복도시-조치원 BRT 계획과 혁신도시와 광역교통거점간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원도심 지역자산(유희부지·유희공간)의 적극적 발굴과 문화·소비 공간으로의 전환, 교통인프라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담보와 거버넌스 구축, 단기로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의 활용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사례 개요

본 장에서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여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계획 수립 사례,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재생사례,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혁신도시·신시가지-원도심·지역거점 접근성 강화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의 개요는 <표 4-1>과 같다. 사례별 시사점 도출을 위해 지역전문가(지역대학, 지역연구원, 민간연구소)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교통연구원)을 실시하였다.

표 4-1 | 사례 개요

사례 유형	사례 지역	사례 특징
■ 지역상생발전계획 수립 사례	광주·전남 (나주)	■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 도모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세종 (조치원)	■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연계 -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역량 활용 사례	부산 (영도구 대평동)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공기업(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전 공공기관)이 공동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혁신도시 (9개 사례)	■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 -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선정된 혁신도시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157개의 우수사업 및 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9개 사례
■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사례	세종 (조치원)	■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사례: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 폐공장 유휴부지 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문화 활성화'
	광주·전남 (나주)	■ 유휴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 활성화: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 나주 원도심 유휴상가 및 오피스 등에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지원 -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콘텐츠 발굴·제작, 원도심 내 유휴공간에 전시
■ 혁신도시(신시가지) - 원도심(지역거점) 접근성 강화 사례	세종 (행복도시↔조치원)	■ 신시가지와 원도심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 광역거버넌스: 행복청과 인근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가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Bus Rapid Transit)) 종합계획: 반경 40km 광역도시권을 40분대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 - 행복도시-원도심 연계계획
	충북 (혁신도시↔오송역)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광역교통거점) 연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 데이터 기반 통행량 추정: 이전기관 대상 업무통행 실태조사, 시외버스 일평균 탑승인원 분석,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제시: B2C(Business to Consumer) 기반의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도입

자료: 나주시. 2017b, 2018a, 2018b; 부산광역시. 202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b;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성장환 외. 20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국토교통부. 2018a,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본 절에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같이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발전전략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행복중심 복합도시와 조치원의 상생발전계획 내용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나주시는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 기술자원의 시너지 도모를 위해 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 도모: 나주 원도심

나주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2019)’과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2017)’ 등 원도심의 문화 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2 |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지역상생발전계획

계획명	수립연도	연구책임자	개요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2019.8	김경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전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공동으로 나주 원도심의 경제·생태·교육·사회 등 상생발전방안 마련 -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IoT, 핀테크, ESS·EMS, 환경, 바이오테크노로지 등 자원과 나주 원도심의 역량을 결합하여 원도심의 발전방향 및 실행방안 마련
■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2017.6	이승권 (아시아도시재 생연구원)	■ 전통지구의 역사·문화자원과 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 보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도출

자료: 나주시, 2017b, 2019.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나주시(2019)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에 7개 이전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이 참여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전기관의 보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의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축 방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방안, 기타 원도심 발전을 위한 나주에너지복합관, 골목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나주시, 2019).

① 이전기관의 보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 모델, 차세대 EMS, ESS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상거래 편의시스템 구축, IoT 기술을 활용한 원도심 도시시스템 구축, 원도심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②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의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축방안: 나주·빛가람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빛 축제,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계한 장소마케팅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협동조합을 통한 교류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방안: 원도심 상인마케팅 및 서비스 확대 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학습동아리 구축 및 기초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교류 확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기타 원도심 발전방안: 나주 에너지 복합문화관 건립,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나주시, 2019).

□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나주시는 또한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문화클러스터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군별 3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개별 기능군과 연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나주시, 2017b).

①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트: 한전과 제휴를 통한 ‘스마트 에너지 문화관’ 조성, 한

전KPS와 제휴를 통한 ‘스마트 발전·설비 체험관’ 조성, 전력거래소와 제휴를 통한 ‘스마트 전력시장관’ 조성, KDN과 제휴를 통한 ‘스마트 Health Care 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하여 ‘정밀문화 농업경제관’ 조성,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 ‘스마트 팜 체험·학습관’ 조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업 ‘농수산식품 스마트 유통 체험·학습관’ 조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의 협업 ‘스마트 농업 교류센터’ 조성, 사학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 ‘은퇴시니어들을 위한 Smart Homo Hundred 학습관’ 조성, 우정정보센터와의 협업 ‘Smart Logistics 체험·학습관’ 조성,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의 협업 ‘농수산식품 기술 기획물 제작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스마트 콘텐츠 클러스터: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 콘텐츠 중심도시’ 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스마트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콘텐츠 중심도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나주시, 2017b).

표 4-3 | 스마트 에너지·농업·콘텐츠 클러스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성



자료: 나주시, 2017b.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p.133, 149, 205.

2)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연계: 행복도시 - 조치원 원도심

행정중심복합중심도시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조치원역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발전방안이 수립되었다.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성장환 외, 2014)’에서는 세종시 출범,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에 따른 충청권 여건변화를 고려한 세종 충청권 상생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2016a)는 ‘비전2030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을 통해 세종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능을 구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신시가지)와 주변지역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2016b)는 또한 구도심과 신시가지(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표 4-4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 지역상생발전계획

계획명	수립년도	저자	개요
■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2014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 기수립된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진단 ■ 세종시 출범,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에 따른 충청권 여건변화를 고려한 세종 충청권 상생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시 - 3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연구 ■ 국내외 광역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시 - 국내: 지역 핵심역량에 기반한 인프라 이용과 지역간 기업네트워크 구축, 산업생태계 선순환체계 활성화 - 국외: 광역상생 협력기구 조직운영,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다양한 참여주체간 협의에 의한 자립역량 강화
■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2016	세종시	■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법정계획 ■ 세종시를 5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기능 구상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야기되는 기존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 극복 ■ 조치원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활동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소집중형 도시재생전략을 마련 ■ 중부생활권 조치원읍의 특화방안이 제시
■ 조치원역 일원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2016	세종시	■ 폐공장 유희부지 활용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문화 활성화’ ■ 정주환경개선, 녹색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료: 성장환 외. 2014; 세종특별자치시. 2015, 2016a. 2016b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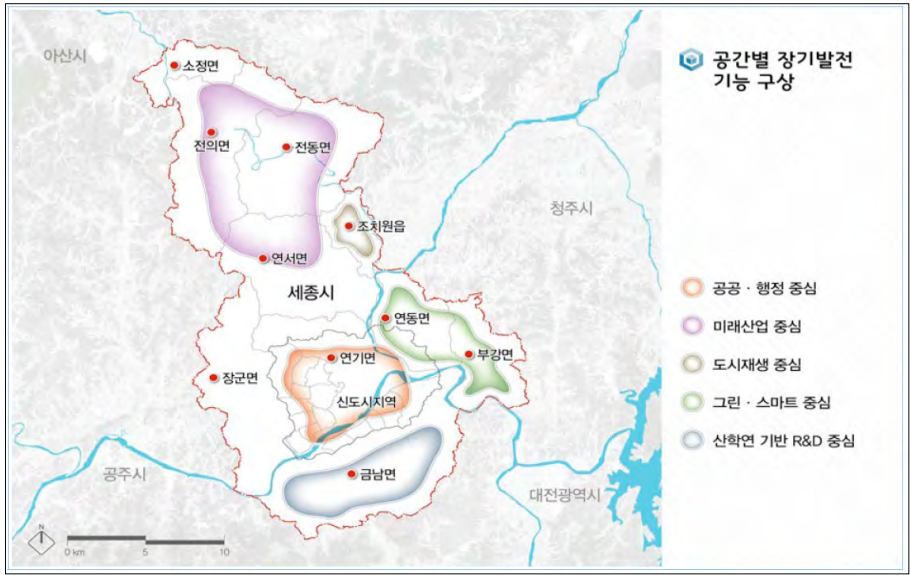
성장환 외(2014)는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을 통해 기수립된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을 진단하고, 세종시 출범,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에 따른 충청권 여건변화를 고려한 세종 충청권 상생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광

역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핵심역량에 기반한 인프라 이용과 지역 간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산업생태계 선순환체계 활성화, 광역상생 협력기구 조직운영,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의에 의한 자립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세종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5개 권역을 구분하여 기능을 구상하고 행정 복합도시(신도시)와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서 원도심인 조치원은 ‘청춘 조치원 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신도시 5생활권과 연동면 부강면을 연계하여 그린스마트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 4생활권의 연구단지, 대학교 등과 남측을 연계하여 산학연 기반 R&D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림 4-1 | 2030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a.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p.84.

□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16b)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야기되는 기존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치원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활동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소집중형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였다. 해당 전략계획에서는 중부생활권 조치원읍의 특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화방안에는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활용한 행정업무기능 보완, 건설지역과 연결되는 BRT 건설, 국철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문화마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 조치원역의 이용객 감소, 도시구조의 노후화 등 조치원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세종시는 신시가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중심축 육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목표년도 2025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전략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및 도로망 확충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지역과의 접근성 향상, 교통체증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모색,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성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2016b).

표 4-5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 인프라 구축전략

세부 사업	주요 내용
건설지역-조치원 BRT 연결 · 확장	연기면 연기리~조치원읍 번암리 5km 구간 BRT 연결 및 도로 확장
조치원 주변 광역도로 추가 건설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조치원 동 · 서 연결 교통 확충	- 경부선으로 인하여 단절된 조치원의 동서연결 횡단도로 신설 - 구 도심지의 동서연결 차도 확장(4차선)
주차공간 확충	- 조치원 내의 폐 · 공가, 노후주택,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 신규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및 주차문제 해소
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시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치원읍의 책임읍 승격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 구축과 북부권 주민불편 최소화
조치원 소방서 설치	- 중 · 북부지역의 재난대응 및 농촌 · 공장지역의 화재 대응력 강화 - 현장대응 인력배치 및 사무 분담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63.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youthsejong/sub02_02.do (2019.12. 3. 검색).

그림 4-2 | 청춘조치원 개발계획도(2019년 기준)



자료: 세종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youthsejong/sub01_02.do (2020. 2. 4 검색).

3.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본 절에서는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역자산, 이전 공공기관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기여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여사업 9개를 검토하였다.

표 4-6 | 이전 공공기관 혁신역량 활용 사례

사례 지역	사례 특징
부산 (영도구 대평동)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부산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공공기관 제안형): 지역 공기업(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전 공공기관)이 공동 제안 -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 3개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
혁신도시 (9개 사례)	■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 -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선정된 혁신도시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15개의 우수사업 및 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9개 사례

자료: 부산광역시. 202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b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기업, 지역자산 등의 활용과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2019년 하반기 선정된 부산 영도구 대평동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제안)으로 혁신지구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공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체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2020)는 과거 선박수리산업의 메카였으나 쇠퇴하고 있는 영도구 대평동 일원을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선용품센터’와 ‘수리조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수리

조선산업을 고도화,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인력 및 신산업을 육성, ‘지역산업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0: 95).

주목할 지점은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는 현재 문현지구(금융), 동삼지구(해양), 센텀지구(영상) 3개소의 혁신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은 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제안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계획에는 동삼지구의 해양과학기술과 센텀지구의 영상기술을 기반으로 대평동 수리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신산업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1) 대상지 특성과 도시재생의 필요성

대상지인 대평동(행정구역상 남항동) 일원은 부산 남항에 입지하여 자갈치시장과 더불어 어업이 발전했으며, 한국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다나카 조선소)가 생긴 곳으로 조선소와 선박수리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1970~1980년대 대평동은 한국의 선박기술과 인프라를 대표하는 곳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조선소들이 감천, 다대포, 경남 진해 및 거제 등지로 빠져나간 영도에는 소형 조선소만 남았으며, 관련 부품회사, 공장, 철공소마저도 불황으로 영세업체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대평동은 선박기술 장인들과 인프라에 기반한 도시재생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중고선 운영 확대와 환경규제에 따른 개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박의 수리·개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대평동(남항동)은 부산항과 영도를 잇는 길 뚝에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영도대교, 남측으로는 남항대교와 접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약 15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약 20분 거리에 입지하여 광역교통과의 연계가 유리한 지역이다. 대상지는 원도심의 자갈치시장,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과도 인접해있다.

그림 4-3 |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강강이마을과 주변 자원



자료: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한형). p.80.

(2)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의 잠재력과 재생전략

대상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어 체계적인 공간정비가 부재하다. 또한 수리조선산업은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름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하고 대부분의 작업장이 영세공업사로 작업환경도 열악한 편이다. 수리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치가 어려우며, 숙련된 기술자들은 연령층이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 도시재생의 잠재력

대평동을 포함하고 있는 영도는 성공적 도시재생의 경험과 지역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대외적으로는 선박수리산업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혁신역량을 가진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지구의 인접성 등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4-4 | 지역 자산(창고군) 및 지역경관자산을 활용한 영도 도시재생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안형). p.78.

① 성공적 도시재생의 경험과 지역역량

영도는 봉래동 대통전수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삼진이음)과 더불어 청년 창업가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봉래시장에 위치한 삼진어묵의 민간개발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는 100여개의 빈집들을 매입·관리하는 지역관리회사(CRC, 우리가 협동조합)를 만들었다. 대상지 일원의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은 최근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주제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처럼 영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과 지역역량(주민, 전문가, 행정)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② 선박수리산업의 수요와 고부가가치화 가능성

대평동은 선박수리기업들이 부산 신항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매년 7~8%의 산업 위축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은 남항 연안의 어선들과 북항에 도입될 마린나지구의 선박들에 대한 수리 수요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평동의 집적된 선박수리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리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연관산업과 융합을 통한 해양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부산광역시, 2020: 79).

③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지구와의 인접성

대평동 일원은 혁신지구와 인접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분진 및 수질 개선과 관련한 환경오염 저감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장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과 함께 맞춤형 디지털 전환기술(선박역설계, 선박가상화기술)을 적용하여 선박 수리와 개조, 기자재 제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부산광역시, 202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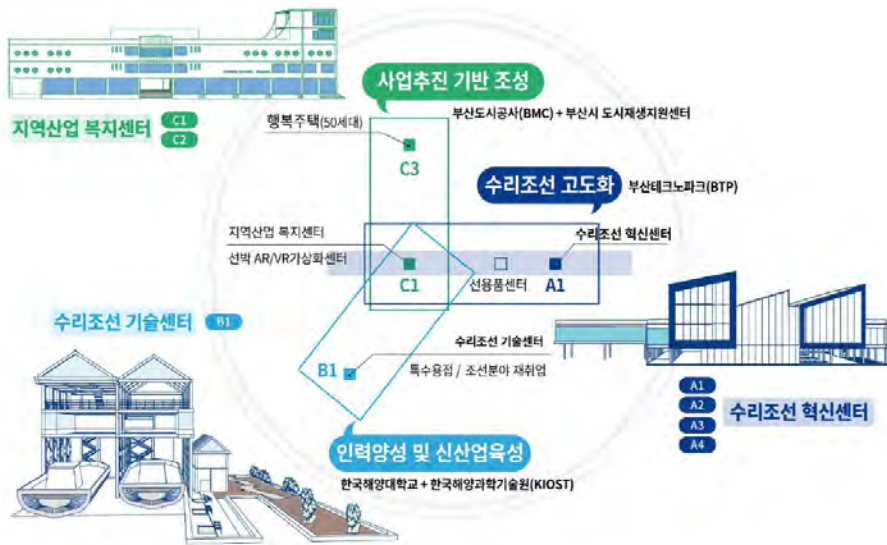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

대평동 도시재생산업의 비전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리·개조 해양 신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목표는 대평동 일대의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 전략은 쇠퇴한 선박수리산업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수리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유산(다나카조선소)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정비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하며, 공공과 민간(산·학·연)의 창의적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2020)의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선용품센터와 수리조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수리조선산업을 고도화한다. 둘째,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력 및 신산업을 육성한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인력기술 업그레이드 및 신규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산업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 내에 주민과 근로자, 방문자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한다.

그림 4-5 |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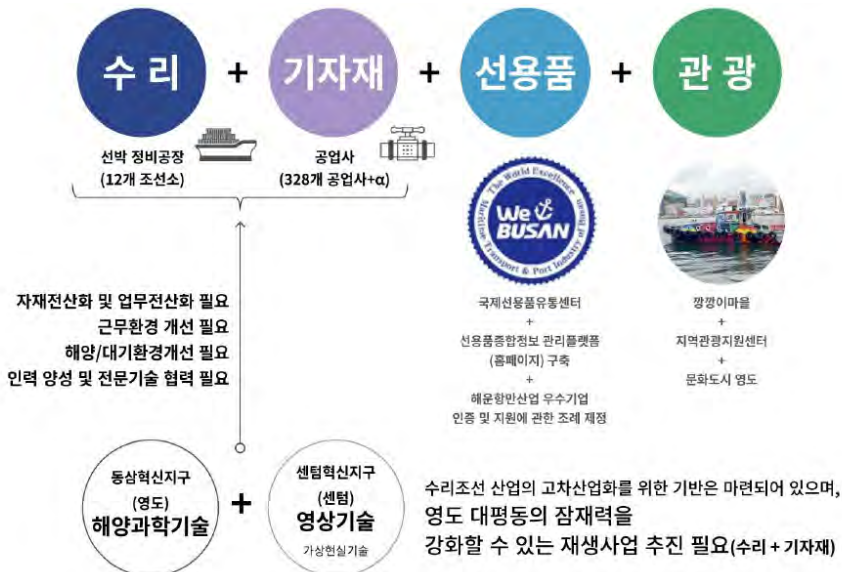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한형). p.95.

(3)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체계 구축

□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부산은 문현지구, 동삼지구, 센텀지구 3개소의 혁신지구가 지정되어 2017년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에는 동삼지구의 해양과학기술과 센텀지구의 영상기술을 기반으로 대평동 수리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신산업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현재 대평동에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와 선용품종합정보 관리플랫폼 등 선용품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갯강이마을에서는 ‘문화도시 영도’ 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지역관광지원센터도 영도대교 입구에 조성되고 있다. 부산광역시(2020)는 선용품과 관광 분야의 융합과 수리 및 기자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프라 확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수리조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6 |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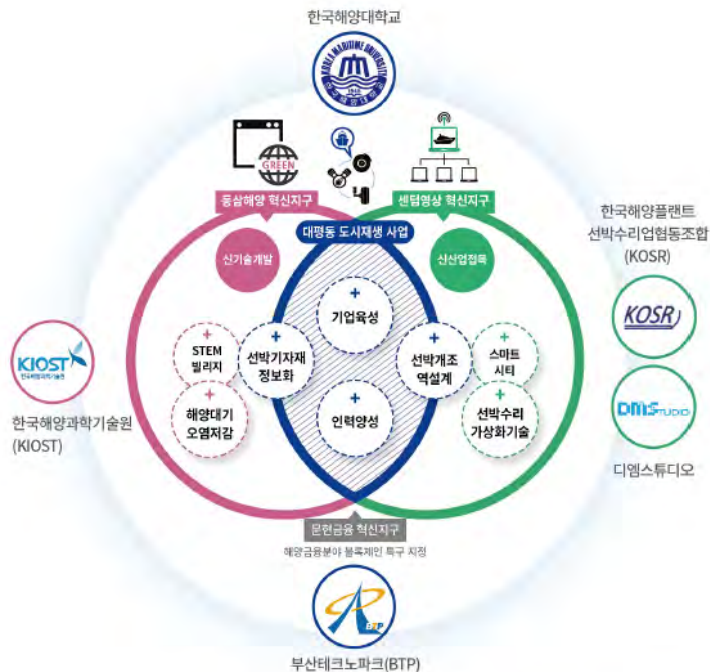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한형). p.89.

□ 3개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의 3개 혁신지구와 연계하여 대평동을 해양산업 혁신기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현지구는 해양산업 관련 금융 분야를 지원하고, 동삼지구는 해양산업 관련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센텀지구는 VR/AR 제작 관련 사업체 육성을 지원한다.

그림 4-7 |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3개 혁신지구와 연계



자료: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한형). p.90.

□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

부산광역시(2020)는 대평 혁신기지 추진 TFT를 구성하여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수리조선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한 영도 경제기반형 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과 산업전문가, 공공기관, 협력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부산광역시, 2020).

2)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제안 사업을 검토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전북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발전성과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성과보고대회에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우수지자체 3곳과 혁신도시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15개의 우수사업 및 사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우수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9개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15개 우수사례 중 9개가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이고, 5개 사례가 지자체 주도형, 1개 사례가 지방 공기업 주도형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들이 명확한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과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표 4-7 |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우수사례

부문	구분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내용
특화 발전	전북	■ (대표)국민연금공단 ■ (참여) 전북도, 전주시, 전북대, 전주대, 기업(12개사)	개방과 공유의 공간 「NPS+ IT R&D센터」 구축·운영	■ 「NPS+ IT R&D 센터」 설립 - 국민연금공단,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대, 원광대, 카카오펙 등 기업 11개사가 모여 연구와 협력사업 추진 ■ 지역 ICT 생태계 활성화 - 지역대학교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학점연계형 현장 실습과 방학중 공단 IT 체험기회를 제공 ■ 전북지역 GRAND 취업박람회 추진 ■ 전북지역 IT 스타트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R&D 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창업자금 지원 등 ■ 공공기관 공동 참여 2019년 정보화사업 합동설명회
	대구	■ (대표)한국가스공사 ■ (참여)대구광역시,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 지역기업 자판기(자금+판로+기술) 제공사업 시행 - (자금 지원) 대구 이전(2014. 10) 직후인 2015년부터 상생펀드를 조성 및 운영 - (판로 확보) 지역기업 홍보지원 및 사회적 기업 온라인 유통 전용몰 구축 지원 - (기술 육성) 지역 밸브 제작업체인 화성밸브(주)에 가스공사 3대 주요 기자재 Test-Bed를 제공 및 운영
정주 여건 개선	광주·전남	■ (대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빛가람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에너지 특화형 빛가람 스마트시티 조성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 시민 체험형 서비스 구현 - (교통)전기차 스마트 파킹, (안전)사회 안전망, (환경) 전력 IoT 활용 환경정보를 제공
	충북	■ (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여) 충북 지역주민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형 ICT 교육 제공	■ ICT 체험학습장 '무한 상상실' 운영 ■ 찾아가는 ICT 교육 제공 ■ 지역 내 장애인, 보육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ICT 체험 행사(드론, 로봇 메이커)를 개최
	전북	■ (대표) 국민연금공단 ■ (참여) 전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굴·제공 -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 지역주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등 9개 강좌를 운영
	진주	■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참여) 진주시	「영천강 특화공간 조성」, 「스마트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복합문화공원(가칭) 조성」	■ 영천강 특화공간 조성 -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 야간 수변공간 경관 개선 ■ 스마트클린버스 승강장 - 흡서기 및 흡한기 교통복지 향상 기여 ■ 복합문화공원 조성 -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부문	구분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내용
상생발전	진주	■ (대표)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 (참여) 진주 지역 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나래	지역 중소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KICET 상생발전 플랫폼 운영	■ 세라믹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라믹 기술사업화, 생애주기 확장형 세라믹 창업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 세라믹 오픈 캠퍼스 운영 - 교육 세대별 체험교실, 현장실습 및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중심 경제활력 확산 - 진주 푸드&리빙 페스티벌 브랜드 제고 및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오픈마켓 운영 주도 - 사회적 기업 Cafe 운영
	울산	■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No.1 HRD 파트너	■ 지역사회 협력 추진 -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구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울산 채용할당제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개최 ■ 지역사회 동반자 - 울산시-울산교육청-울산대 협업을 통해 '상생의 중심(中心) 2019 오픈캠퍼스' 운영 - HRD 분야의 맞춤형 교육 실시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2020년 전국 최초 고교 오픈스쿨을 추진 ■ 지역경제 상생 생태계 조성 - 울산지역 26개 농가와 함께 하는 무인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울산혁신도시 기반의 'HRD 어울림 행사'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장애인,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다문화 가정, 문화취약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지원 ■ 상생발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업 추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 양성사업 등 - 숙련기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숙련기술 인지원사업, 산업현장교수단 등 ■ 대·중소기업 간 울산 지역산업 육성 확산
	대구	■ (대표) 한국감정원	혁신도시 이전 1호 기관, 지역에 상생발전 문화를 이전하다!	■ 체증식 씨드머니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소셜 클라우드펀딩 -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 협력네트워크(달구벌커먼그라운드)를 통해 체증식 씨드머니를 조성 ■ 지역 ICT기업과 함께 한국형 공시제도 해외수출 ■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 혁신도시 교통망 부족문제 해결 - 감정원 소유 버스를 활용해 대구 혁신도시 내 유일한 학교(새문중학교)의 통학 지원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 콘서트 개최 ■ 공기업 최초로 식권발매기를 활용한 '한 끼 나눔' 도입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2019년 혁신도시 우수사업 및 우수 사례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지역 특화발전 기여

□ 개방과 공유의 공간 「NPS+ IT R&D 센터」 구축·운영

국민연금공단(전북)은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대, 원광대, 카카오뱅크 등 기업 11개사와 함께 「NPS+ IT R&D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지역 우수 IT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와 대우정보시스템 등 지역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학점연계형 현장실습과 방학 중 공단 IT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역 GRAND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여 2019년에 총 4건의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북도 내 IT 분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R&D 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 공동으로 2019년 정보화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정보화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IT업체를 홍보하였다.

□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한국가스공사(대구)는 지역기업에 자금, 판로, 기술을 제공하는 지역기업 자판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9년에 376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총 1,08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역 밸브제조기업에게는 성능검증 방안을 개발 적용하여 상업화를 지원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기업 홍보를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12). 사회적 약자 대상 열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100% 지역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노숙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였다.

그림 4-8 | 지역기업 자판기 사업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2019년 혁신도시 우수사업 및 우수 사례. p.12.

(2)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빛가람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는 에너지 특화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의 최적 공급·운영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에너지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특화형 빛가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설비 구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하고, 에너지와 도시 운영정보를 연계와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공개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형 ICT 교육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은 ICT 전문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ICT 교육 관련 교재, 콘텐츠를 지역주민 연령·계층 등으로 다양화하여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ICT 체험학습장 ‘무한 상상실 운영’을 통해 VR-AR 체험, 3D프린터 운영, 코딩교육 등을 제공한다. ICT 교재를 키트(Kit)화하여 지역 내 교육시설을 방문하고 맞춤형 ICT 교육을 실시한다. 진흥원 내 기반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내 장애인, 보육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ICT 체험 행사(드론, 로봇 메이커)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 이전 공공기관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민연금공단(전북)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 지역주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등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판소리, 전통술 빚기 등 지역 특화적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긍정적인 접촉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발전 및 공단의 지역

내 입지 구축에 기여하였다. 혁신도시 내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문화·여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직원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국토부·균형발전위원회, 2019a:20).

□ 지역의 특화공간과 여가공간 조성

경남 진주에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영천강 주변에 특화공간(쿨링포그, LED 경관조명, 쉼터 등)을 기획하여 핫스팟(Hot-Spot)을 조성하였다. LH가 주관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 직원 가족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이를 시민의 여가와 휴양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명소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영천강에 폭염 시에도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고압으로 물입자를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하였고,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또한 스마트 클린버스 승강장을 조성하여, 다기능 스마트 공기조화 시스템을 정류장의 밀폐공간에 적용하여 여름철에는 냉방, 환기, 제습,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난방 및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공원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지역주민들에게 복합레저공간(여름-물놀이장, 겨울-스케이트장)을 제공하고 있다(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그림 4-9 | 스마트 클린버스 승강장



자료: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2019년 혁신도시 우수사업 및 우수 사례, p.22.

또한 ‘진주 푸드&리빙 페스티벌’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오픈마켓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카페(Cafe)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기업 자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사례는 중소기업 수요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세라믹 분야 취업지원 우수기관 및 구직자 유형별 맞춤 취업지원을 하고,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 지역상생·협력 추진체계 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은 ‘고용위기 특별지구 울산’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역인재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26개 농가와 직업계약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울산과 동반성장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구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울산 일자리 해결을 위해 채용할당제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울산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채용을 실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시-울산교육청-울산대 협업을 통해 ‘상생의 중심(中心) 2019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공단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2020 오픈스쿨 개설이 확정(2020. 1. 6~10)되어 전국 최초 고교 오픈스쿨을 추진한다.

공단은 울산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징검다리울산지역 26개 농가와 함께 하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련기술인 활동 지원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숙련기술 인지원사업, 산업현장교수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 지역 특산물 사내특판 등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역에 상생발전 문화 이전

한국감정원(대구)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소셜 클라우드펀딩을 조성하였다.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달구벌커먼그라운드)를 통해 체증식 씨드머니를 조성하고, 지역방송사(대구 MBC)와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원기업에 대한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동시에 해결하며, 무담보 무이자 대출 혜택으로 씨드머니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림 4-11 | 클라우드 펀딩 사업



〈무담보 무이자 대출형 펀드〉



〈지역방송사(대구 MBC)와 공동추진 현장〉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p.32.

한국감정원은 한국형 공시제도를 베트남에 최초로 수출하여 지역 ICT 기업에 해외 동반진출 기회를 우선 제공하였다. 또한 감정원은 지역을 위해 문화·일자리·안전·봉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용 태블릿 PC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다문화가정 10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감정원 소유 버스를 활용해 대구 혁신도시 내 유일한 학교(새론중학교)의 통학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교통망을 보완하여 등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서점이 없는 혁신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은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유명 작가를 초청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식권발매기를 활용하여 ‘한 끼 나눔’을 도입, 감정원 임직원들이 식권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식권을 구매할 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상시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희공간의 활용 사례

본 절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을 문화·소비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과 나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였다.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의 쇠퇴 가속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유희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한 사례이다. 나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 사례이다.

표 4-8 |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개요

사례 지역	사례	사례 특징
세종 (조치원)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2016~2022)	- 공공기관이 이전한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 폐공장 유희부지 활용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문화 활성화' - 공공기관이 이전한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의 쇠퇴 가속화를 방지 - 새로운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유희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광주·전남 (나주)	나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018~2025)	-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 - 나주 원도심 유희상가 및 오피스 등에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지원 -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콘텐츠 발굴·제작,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6b; 나주시. 2018a, 2018b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의 쇠퇴 가속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유희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공장 등 원도심의 유희부지를 새로운 예술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은 폐공장 및 유희부지 활용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문화 활성화', 취약지역의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조치원 철도변 완충녹지, 중심가로 등의 활용을 통한 '녹색환경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자긍심 고취 및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2016b: 102~103)

지역 유류자산(폐공장 및 유헨부지) 현황 조사와 활용

현황사진	산업종	위치	주요 특징
	정유 폐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동 2-1	- 국내 유일의 정유 시설로 있는 대규모 산업 단지 -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오염 우려 있음 - 현재 철거 후 잔여토지로 사용
	구입철강 인쇄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동 2-1	- 조차원 대청역 인근에 위치함 - 인쇄소로 활용되다가 현재 폐업 상태임으로 사용
	전력 제지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쪽 60-1 일대	- 철강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예정 중 - 전력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으나 현재 건물만 남아 있음
	구미화학 공정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오성길 255	- 과거 미화학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현재 도로로 변경
	고령 제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동 2-1 일대	- 현재 고령제지소 공장이 이전됨 - 기존 건물은 철거 후 잔여토지로 사용
	제철중심 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청암 9-1	- 제철기 및 시멘트 생산시설로 한 때만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건물만 노후화 된 채로 남아 있음
	신용우량 제조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쪽 60-1 일대	- 과거 금속공업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현재는 폐업하고 있음
	남양 건설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동쪽 5-4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였으나 현재는 폐허로 남아 있음

기본구상

구조차원정수정 원도선 유류부지 중심으로
2개 문화예술 거점공간 형성
조치원과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원도선 중심 상업기능 수행
생산지·생활지·유통지 중심으로
생활문화기능 수행
충청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녹색환경축 형성
북한평화리안과 남한평화리안 사이를 중심으로
행정업무기능 수행

- 범 계 -

- 문화예술창작기능
- 상업기능
- 생활문화기능
- 행정업무기능
- 완충

추진전략

- **폐공장 및 유헨부지 활용과 ‘예술문화 활성화’**
 - 예술문화 거점공간 조성
 -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권 활성화
 - 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술문화 산업 기반 육성
- **취약지역의 복지·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 주민참여 및 공동체 문화 확대
 -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 **조차원 철도변 완충녹지, 중심가로 등의 ‘녹색환경 개선’**
 -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
 -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한 조치원 중심공간 조성
- **주민참여 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 및 커뮤니티 강화

(하)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p.102~103.

□ 원도심 폐공장 문화재생사업

원도심 폐공장 문화재생사업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폐공장 매입 및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취미·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공장 재활용을 통해 주민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밀착형 문화·예술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12 | 원도심 폐공장 현황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117.

폐공장 문화재생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은 폐공장부지의 매입,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업사이클링을 통한 문화예술 기능 설정, 활용 가능한 유휴자산의 지속적 발굴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 2016b: 118). 먼저, 원도심 폐공장의 상태와 쇠퇴 정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폐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폐공장의 역사적·문화적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조치원 원도심에 산재한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생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전략이다(세종특별자치시, 2016b: 118).

폐공장의 재활용 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외형적 구조는 그대로 보전하고 건축물의 기능 및 특성을 반영한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재활용되는 해당 폐공장 시설의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연계 개발을 실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 2016b: 120).

그림 4-13 |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118.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수원지 정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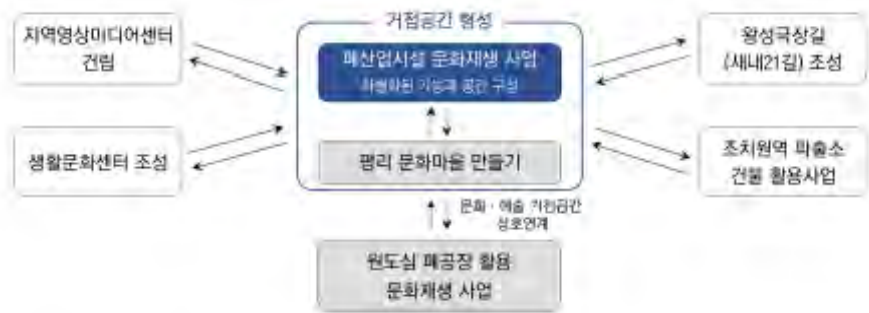
하천을 매립하여 건립된 수원지 정수장은 2013년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으로 폐쇄되어 활용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폐쇄된 시설들 대부분이 보존가치와 활용성이 높아 공간의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원도심과 달리 부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원도심 내 다른 문화재생사업과는 차별화된 기능과 공간 구성으로 지역 내 예술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 2016b: 134).

그림 4-14 | 조치원 정수장 현황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132.

그림 4-15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134.

그림 4-16 | 폐산업시설(수원지정수장) 문화재생사업 종합구상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137.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 7월 ‘조치원 문화정원’으로 준공되었으며, 기존의 정수장 시설을 전시동과 관람동 및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생태수로와 녹색정원, 놀이정원 등을 조성했으며, 교육실, 관리실, 휴게실 등이 입주하는 건물 1동(256㎡)을 신축하였다.¹⁾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공간재생사업단이 현재 운영주체이며, 마당극, 퓨전국악공연 등 문화행사, 전시, 체험, 강좌, 소규모 파티, 플리마켓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활용 중이다. 2019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4-17 | 조치원 문화정원 설계, 내부사진, 프로그램



자료: Architectural Studios DESIGN LAB. <https://www.designlab-architecture.com/blank-1> (2020. 2. 5 검색); 세종 아트컬리지 홈페이지. <http://www.jwart.co.kr/> (2020. 2. 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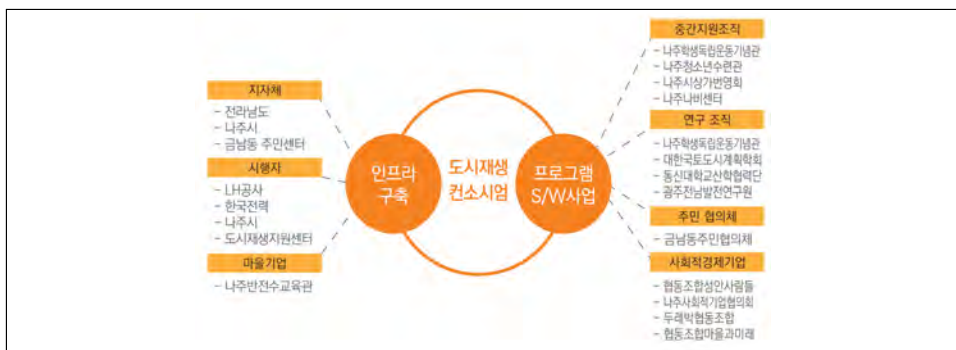
1) 세종의 소리. 2019. 조치원 문화정원, 준공식 갖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생, 7월 29일.

2)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 나주 도시재생사업

나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은 원도심 유희공간 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 재생사업 활성화로 공공기관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나주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한다. 사업대상지는 원도심인 나주 읍성권에 입지하며, 해당 지역은 상위계획상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산업단지 조성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현재 나주 읍성권은 나주시 문화재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주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협력하여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사도시기획, 도시재생, 문화재 관리, 경관 디자인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부시장 직속 역사도시사업단을 설치하였다. 나주시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지자체, 시행자,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조직, 주민협의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민 주도 조직 운영을 위한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림 4-18 | 나주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자료: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2019년 혁신도시 우수사업 및 우수 사례. p.26.

■ 나주 도시재생사업(공공기관 협업사업)

- 나주의 경우 공공기관 협업사업을 추가하여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주시는 한국전력,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실감 미디어센터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창업지원, 홍보전시관,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바닥 태양광 모듈설치 등을 지원한다.

[그림] 나주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사업내용



자료: 나주시, 2018b.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5.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 사례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통 접근성을 주축으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 검토는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교통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하였다.²⁾ 본 절에서는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한 행복도시-조치원 사례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광역교통거점) 연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을 고려한 충북혁신도시-오송역 사례를 검토한다.

표 4-10 |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사례

지역	연계방안	연결구간	특징
세종	■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행복도시 ↔ 조치원	■ 광역거버넌스: 행복청과 인근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가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 2017년 반경 40km 광역도시권을 40분대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계획 발표 ■ 행복도시-원도심 연계계획 - 10대 BRT 주요 거점에도 조치원역과 공주역 포함 - 조치원역의 경우 행복도시의 천안 방향 BRT와 연계 계획이 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충북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충북혁신도시 ↔ 오송역	■ 혁신도시-오송역 간 데이터 기반 통행량 추정 - 이천기관 대상 업무통행 실태조사, 시외버스 일평균 탑승인원 분석,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제시 - B2C(Business to Consumer) 기반의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도입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대 - 충북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성 강화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국토교통부.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교통전문가 자문 및 협업 실시: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교통계획 및 상생발전계획 문헌 조사, 2)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충북혁신도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방안에 대해 토론, 3) 지역연구원 및 교통연구원 전문가 자문: 혁신도시-원도심 교통연계 현안,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제도개선 관련 충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지역연구원의 자문을 실시, 교통 통행량 수요 추정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1)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행복도시-조치원

세종시의 신시가지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원도심인 조치원을 연계하는 BRT 계획은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연계되어 있어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BRT와 같은 교통인프라 구축은 비용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 BRT의 개념과 지원체계

BRT(Bus Rapid Transit)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의미하며, 철도운행시스템과 같이 버스 운행에 전용차로, BRT 우선 신호,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을 향상시킨 체계를 말한다. BRT는 지역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광역형과 도심형,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구분되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수준을 규정하고 있다³⁾.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대도시권에 BRT 건설을 위해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비 지원을 통해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 행복도시권 광역거버넌스의 구축과 계획 수립

세종시에서는 행복청과 인근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가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는 2017년 반경 40km 광역도시권을 40분대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http://www.molit.go.kr/mtc/USR/WPGEO201/m_36794/DTL.jsp (2020. 2. 5 검색).

□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BRT 연계: 행복도시-조치원

국토교통부(2018a)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18~2027)’ 상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중기 계획으로 공주 BRT, 조치원 BRT가 계획되어 있으며, 10대 BRT 주요 거점에도 조치원역과 공주역이 포함되어 있다. 조치원역 연계 노선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천안아산역 방향으로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다.

표 4-11 |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 중 원도심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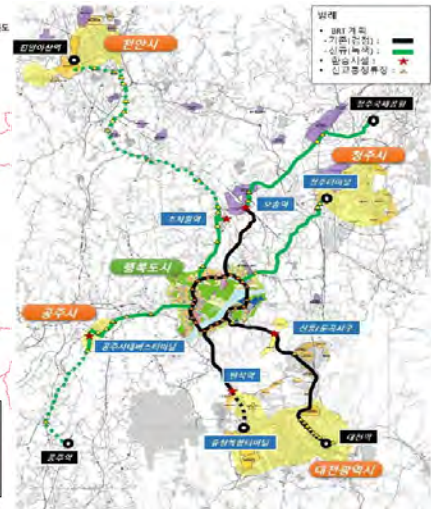
사업명	노선	연장(km)	사업기간	사업비(억 원)	비고
세종~공주터미널 BRT	정부청사~공주시내버스터미널	15	2022~2025	534	중기
세종~조치원 BRT	행복도시~홍익대학교	16	2022~2024	570	중기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생활권’으로 구축, 3월 21일. 보도자료. p.5.

그림 4-19 |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도



그림 4-20 | 행복도시권 광역 BRT 종합계획도



자료: (좌) 국토교통부. 2018a.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18~2027). p.41.

(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지주택공사. 2017. 행복도시 광역BRT 개선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p.85.

2)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충북혁신도시-오송역

(1) 충북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배경 그림 4-21 | 충북혁신도시-오송역 연계 현황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2017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에서 교통부문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로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 2017a). 특히 타 혁신도시 대비 광역교통거점과의 연계성이 약하다. 광역교통 거점인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는 하루 왕복 2회로 출퇴근 시간에 편중되어 있다.

소수의 시외버스 이용인원 및 높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정규 노선 확대보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이용자 니즈에 부응하는 교통서비스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p.60.

(2) 데이터 기반 통행량 추정

국토교통부(2019a)는 이전기관 대상 업무통행 실태조사, 시외버스 일평균 탑승인원 분석,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역 간의 실제 통행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10개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통행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에서 오송역 및 세종시 방면 업무출장은 2018년 기준 일평균 약 26.5건에 불과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시외버스 운행 당 탑승인원은 일평균 4.8인(2019년 1~5월)으로 집계되었다. 세종시→오송역→충북혁신도시 시외버스 탑승인원은 회당 4.2인이며, 충

북혁신도시→오송역→세종시 시외버스 탑승인원은 회당 5.4인으로 나타났다.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역 간의 통행량을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충북혁신도시에서 오송역으로는 일평균 47.3회 통행이 발생하고, 오송역에서 충북혁신도시로는 일평균 63.8회 통행이 발생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그림 4-22 | 요일별 탑승인원(2019년 1~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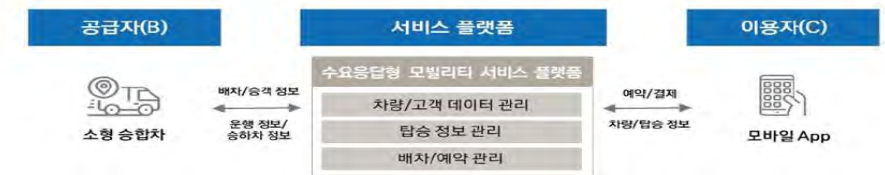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p.51.

(3)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제시

국토교통부(2019a)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평일 업무시간 중 광역대중교통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대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을 충북혁신도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재조정(Customizing)한 후 도입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a:91).

그림 4-23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p.90.

(4)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확대

장기적으로는 ‘충북혁신도시↔오송역’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 내부, 인근 산업단지, 모도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산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분포한 군지역과 연계성 강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다. 군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의 소형버스, 100원 택시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8개 시지역(도시형 교통모델)과 82개 군지역(농촌형 교통모델) 주민을 위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e:1).

6.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의 시사점

4장에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사례 등 네 가지 측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으로는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를 도모한 나주 원도심 사례,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한 세종시-조치원 원도심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조치원 원도심 사례는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2014), 세종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5),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도 두 가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인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선정된 부산 영도구 대평동의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이다(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제안).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는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 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 검토결과 15개 우수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이 9개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다.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들이 명확한 콘텐츠를 제시한다.

□ 원도심 지역자산(유희부지·유희공간)의 적극적 발굴과 문화·소비 공간으로의 전환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는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인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은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공장 등 원도심의 유희부지를 새로운 예술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인 사업이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인 나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 사례이다.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담보와 거버넌스 구축 및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의 활용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사례는 두 가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교통인프라를 구축한 세종시-조치원 원도심 BRT 연계계획은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연계되어 있으며 파급효과도 크므로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둘째, 혁신도시와 광역교통거점(KTX) 연계를 위한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사례는 광역교통 연계성이 취약한 충북혁신도시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통인프라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투자를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가변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일정 수준의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와 구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실행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BRT와 같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은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연계되어 있고 파급효과도 크므로 관련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CHAPTER 5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 151
2. 이전 공공기관 역량 활용 방안 | 153
3. 원도심 유휴자원의 활용 방안 | 157
4.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 159
5.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 166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이전 공공기관 참여형 사업에 가점 부여하거나 공공기관 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소비 공간으로서 원도심의 유희자원과 자산을 활용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별 맞춤형 전략과 원도심의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가 필요하며 투자를 단계화하여 실행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의 홍보 및 시범사례 제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을 활용한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지역자산으로써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쇠퇴를 예방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 기본방향과 연계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이전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가점부여, 공공기관 제안형 재생사업 유형 추가,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

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

표 5-1 |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제도개선 방안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 도시재생관련 사업들의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시 이전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공공기관 제안형 재생사업 참여 확대 ■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확대 - 지역발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평가 체계 구축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 ■ 지역자산으로써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	■ 혁신도시의 문화·소비 수요에 대응한 원도심 유희부지 및 유희공간의 활용 - 원도심 유희자원 실태조사와 문화역사적 자산의 활용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활용: 문화적 재생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추가 이전 수요에 대응한 유희부지 및 유희공간의 활용 - 추가 이전 시 신규 개발보다는 재생 측면에서 유희공간 및 유희부지 활용
■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	■ 혁신도시, 광역교통거점, 원도심 간 교통연계성과 수요 분석 ■ 혁신도시 지역특성별 맞춤형 전략 모색 - ①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교통연계 개선 - ② 광역 교통거점과의 교통연계 개선 - ③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서비스 보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단계화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 및 적용 -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 유도
■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 관련 사업간 연계성이 높은 사업에 공모 가점 부여 및 공모 유형 추가, 사업간 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이전 공공기관 연계) 공모 선정시 혁신도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혹은 한시적으로 새로운 공모 유형 추가 - (생활SOC복합화사업-도시재생 연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쇠퇴 원도심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생활SOC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시범사례 제시와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스마트챌린지사업-혁신도시발전계획 연계) 스마트챌린지사업 공모시 혁신 도시와 모도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도록 홍보 ■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둘째,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과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을 위해서는 원도심 유희자원 실태조사와 문화역사적 자산의 활용, 문화적 재생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추가 이전 시 신규 개발보다는 재생 측면에서 유희공간 및 유희부지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광역교통거점, 원도심 간 교통연계성과 수요 분석을 통한 혁신도시 지역특성별 맞춤형 전략 모색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단계화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 및 적용,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 유도가 필요하다.

넷째,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은 사업에 공모 가점 부여 및 공모 유형 추가, 사업간 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이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방향에 따른 각각의 제도개선 방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이전 공공기관 역량 활용 방안

1) 도시재생사업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원도심과 주변지역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은 계획서상에만 존재하고 실제 협력사업은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와 혁신도시 담당부서가 달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과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기획재정부 공기업 평가 시 가점 부

여,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시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제도적으로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가점을 부가하거나 새로운 공모 유형을 추가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적용방안 예시〉

제도 현황

- 2019년 하반기 활성화계획 평가에 가점 및 가점 요소를 도입하였음
- 부처연계 사업, 생활 SOC,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위기 재생모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장기 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가감점 부여
 - ※ 현재까지 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청유형이나 가점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추가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별도 선정하며, 2019년 동안은 5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상반기 1곳 선정
 - ※ 사업지역당 국비 최대 30억 원 추가 지원(지방비 매칭), 스마트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제도 개선(안):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가점 부여

-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유사하게 별도 분류하여 한시적으로 선정하거나 지역특화 재생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
-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은 이전 공공기관이 콘텐츠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시 협의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

(1)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가점 부여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이전 공공기관이 기획단계에 참여한 재생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유사하게 별도 분류하여 한시적으로 선정하거나 지역특화 재생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콘텐츠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시 협의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공공기관 제안형 재생사업 참여 확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는 대상은 LH공사, 부산공사 등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재생사업의 콘텐츠가 제안되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협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제안형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이전 공공기관, 지역기업, 지역자산 등의 활용과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기획한 도시재생 추진사례의 발굴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2019년 선정된 부산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혁신지구의 역할이 명확하고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도시에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리빙랩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중 원도심에 구축된 사례를 발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제안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5개 우수사례 중 9개가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들이 명확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고, 사업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과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제2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혹은 이노시티(혁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과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확대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주변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상생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북, 광주·전남 혁신도시 모도시(김천, 나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생발전계획을 세워 원도심 쇠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나 사업이 기획되지만 성과가 미비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계획들은 상당 부분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협의 부족 때문에, 혹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외부적 변수 고려 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한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지역기여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련 법 조항〉

혁신도시 특별법 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12. 29.]

□ 지역발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같이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에 개최된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좀 더 확대하여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의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원도심 유희자원의 활용 방안

1) 혁신도시의 문화·소비 수요에 대응한 원도심 유희부지 및 유희공간의 활용

(1) 원도심 유희자원 실태조사와 문화역사적 자산의 활용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 모도시에서는 혁신도시-원도심의 공간적 기능분화를 수용하고, 원도심의 소비·관광·문화기반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심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경남 진주, 광주·전남 나주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살펴보면, 빈집, 빈 상가, 나대지 등 유희공간을 숙박시설, 행사 및 교육공간, 주차장 등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희공간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회 등에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전략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거나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원도심의 유희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문화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적 재생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하는 ‘혁신도시 생활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업비(3억 원)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유희자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2). 2018년에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총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특히 도시재생 뉴딜 등 별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1곳당 3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별도)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3).

이외에도 ‘혁신도시 생활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및 동호인이 참여하여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서 직접 공연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2019년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2019년부터 ‘혁신도시형 생활문화 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해당 사업은 혁신도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유희부지 및 유희공간의 활용

추가 이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존재하며, 혁신도시의 입지 특성상 원도심의 부지 활용성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과 같이 대도시의 원도심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경우 영도구와 동구는 도심권 쇠퇴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혁신지구가 조성되었으며, 해운대구는 부도심으로 성장거점이 되는 곳이므로 혁신지구 조성이 도시발전과 결을 같이한다. 대구의 경우는 반대로 혁신도시가 도심부와 상당히 떨어진 외곽에 개발되어 대구 내 대규모 외곽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도심 쇠퇴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심부 주변으로 상당수의 대규모 이전적지 및 유희지가 존재한다. 대구혁신도시 공무원 인터뷰에 따르면, “추가 이전이 실시된다면 대구 내 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주환경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대구시로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다(대구혁신도시 공무원 A씨)”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울산혁신도시의 경

우도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중구)에 조성되어 도시활력을 제고한 측면이 있으며 추가로 이전하는 기관도 혁신도시 밖에 인접하여 이전하였다.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신도시로 조성되어 추가 이전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원도심 입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¹⁾ 김천의 경우 원도심의 부지가격이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보다 높고, 원도심에 입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나 정서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문화기반, 정주기반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기 조성된 혁신도시보다 환경이 열악하다. 강원혁신도시(원주) 추가 이전의 경우 원도심보다 혁신도시 용지가 더 싸기 때문에 원도심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현재의 혁신도시가 미처 성숙하지 못하고 혁신거점으로서 역할이 미진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혁신도시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 수요 발생 시 기 혁신도시 내 혹은 인접지역의 산업단지에 이전하거나 대도시 원도심의 대규모 이전지, 유희부지, 유희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4.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신시가지 혹은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혁신도시 내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원도심-광역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연계망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도시 외곽에 신도시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혁신도시-원도심 간의 교통연계성이 더욱 필요하다.

혁신도시와 모도시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는 대규모

1) 이외에도 진주, 원주, 김천 등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입장차가 있다. 추가 이전 이슈에 관해서는 모도시의 원도심보다는 인근지역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의 경우 혁신도시 가점이 있어 도의 재정이 혁신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불만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공모 외 사업은 다른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도 한다. 현재 혁신도시 모도시의 경우 해당 도시 내에 혁신도시를 확장하거나 인근 원도심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하기를 바라지만, 광역도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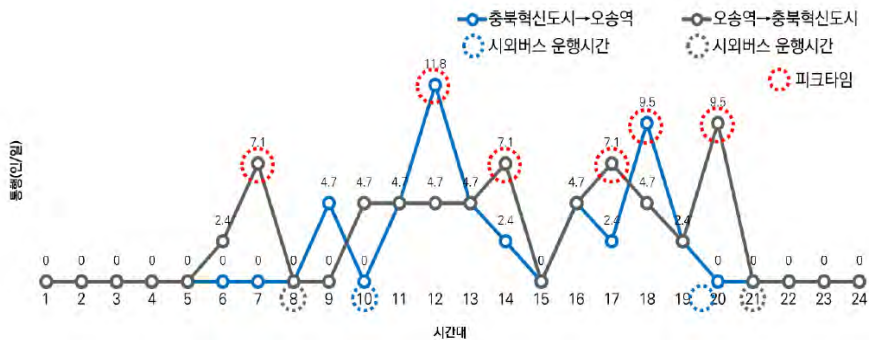
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인프라 투자를 단계화하여 초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실행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빅데이터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혁신도시 특성별 맞춤형 전략 모색

혁신도시와 모도시 간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교통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혁신도시, 주변지역거점(원도심 등), 광역교통 거점 간의 통행량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교통 수요가 분석되어야 한다. 통행량 추정은 모바일 빅데이터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KT와 계약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지원 고도화를 위한 모바일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송역과 혁신도시 간 통행량을 추정하여 교통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동전화사에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과 수신된 기지국 단말기 신호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별 이동궤적정보를 생성하고, 체류시간, 방문빈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1 |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행량 추정 예시(충북혁신도시-오송역)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p.50.

10개 혁신도시의 교통연계 현황 및 수요가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별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 쟁점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인근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연계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2018b)의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제안된 것처럼 혁신도시와 인근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의 연계 현황을 POI(point of Interest)²⁾, 철도역, 공항 접근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 2018b).

①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교통연계 개선

POI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POI 위주의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이 연계성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주변지역의 POI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POI 위주의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여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과의 연계를 개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a: 139-141).

② 광역 교통거점과의 교통연계 개선

POI 접근성은 양호하나 공항, 철도역 등 광역 교통거점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해당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셔틀이 제안된 바 있으며(국토교통부, 2018a), 최근에는 혁신도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교통부, 2019a).

③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서비스 보완

강원 혁신도시와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은 소형버스 및 공공형 택시 등이 활용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b:141).

2) POI(point of Interest)는 교육, 쇼핑, 여가, 사교, 의료 등 생활권 연결성을 강화하는 서비스인프라이다.

표 5-2 |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교통연계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	현황	개선방안
부산	- 김해공항 연결 부족 - POI 접근성 양호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공항 연결 위주)
대구	- 혁신도시-동대구역 접근성 부족 - POI 접근성 양호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철도역 접근 위주)
광주·전남	POI 접근성 부족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POI 접근 위주)
울산	- 울산역 접근성 부족 - POI 접근성 양호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철도역 접근 위주)
강원	- POI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공공형 택시 도입
충북	- 기관-군청 접근성 부족 - 청주공항-오송역 연계 부족 - POI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 소형버스 도입 -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도입(철도 및 공항 연결 위주)
전북	- 교육시설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POI 접근 위주)
경북	- POI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POI 접근 위주)
경남	- POI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POI 접근 위주)
제주	- POI 접근성 부족 -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POI 접근 위주)

자료: 국토교통부, 2018b.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pp.139~141. 재구성.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브랜드화된 모빌리티는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도시경관 요소 중 하나로서 활용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19a).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혹은 수요응답형 셔틀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원도심의 관광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경기도 광역버스 ‘G-BUS’, 세종시 BRT ‘바로타’ 등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전주와 광주의 경우 관광 상품화된 버스 외부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버스와 정류장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로고를 통해 도시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9a).

그림 5-2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버스 외부 디자인



전주시 79번 명품버스

광주광역시 아트버스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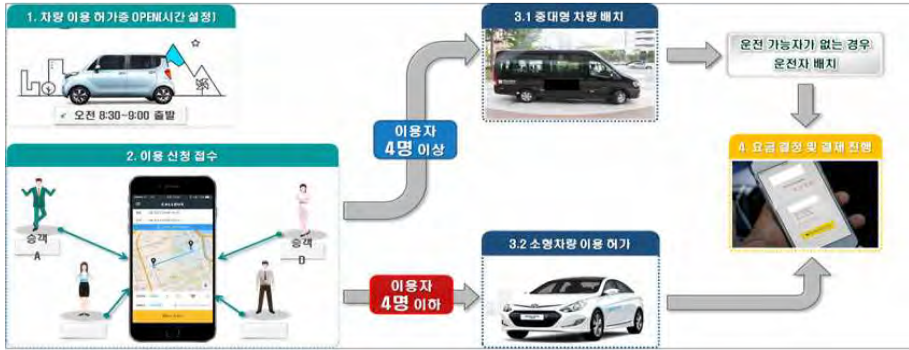
3)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의 단계화

교통인프라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투자를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실행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인접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과 적용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완전하게 성숙하기 못한 상황이므로 교통수요가 안정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유연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은 원도심 관광전략과의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 수요 창출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특정 노선을 관광브랜드와 함으로써 두 지역의 교통연계성 강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혁신도시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을 통해 혁신도시와 광역교통거점간의 연계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충북혁신도시가 오송역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5-3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자료: 국토교통부, 2018b.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p.131.

(2)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과 제도적 지원 유도

장기적으로 혁신도시의 안정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2020) 스마트챌린지 사업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18곳을 선정하고 262억 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단위 대규모 스마트시티 챌린지(2019년), 마을단위 중규모 테마형 특화단지(2018년)에 더해 2020년은 개별 솔루션 구축사업을 신설하였다. 3개 사업을 2020년부터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1월 17일부터 약 80일간 공모하여 4월 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2020). 각 유형별로 지원규모, 사업범위, 솔루션 규모 등이 다르다. 이외에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인접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그림 5-4 | 스마트챌린지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시티 속도낸다...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1월 17일. 보도자료. p.5.

5.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추가되거나 관련 사업내용이 반영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는 혁신도시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관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사업공모가 진행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공모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주로 신규 개발지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사업 공모 시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계획 수립기간이 촉박하고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적 의견교환이 부족하여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이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발전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재단 설립과 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발전재단의 자립성을 구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와 혁신도시 담당부서가 달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과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관련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3개 사업(원주, 김천, 진주)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오히려 2019년 하반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획과 내용상 혁신지구와 뚜렷한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혁신도시 연계형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전문적 컨설팅 제공,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 연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례 제시

관련 사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 시 연계 사업에 가점 부여 및 공모유형 추가, 사업 간 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이 요구된다. 예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한시적으로 새로운 공모 유형을 추가하고,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쇠퇴 원도심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 사업에 대한 시범사례 제시와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스마트챌린지사업 공모 시 혁신도시와 모도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 5-5 |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자료: 저자 작성.

2)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상생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발전계획에도 상생 발전부문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단기간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가 미진하여 상당 부분 실행력이 없는 상황이다.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김천대학에서 교육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으나 김천대학이 교육부 평가를 낮게 받아 사업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당 기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외부적 변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혁신도시에서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므로, 발전재단의 주요 기능 중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상시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과 특화발전뿐만 아니라 상생발전 부문의 기획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주변 모도시와 원도심 재생 관련 사업들은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 1. 결론 및 정책 제언 | 171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7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모도시와 원도심의 인구와 일자리 변화 분석,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제도 고찰,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재생의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혁신도시 인구유입, 일자리 측면에서 모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정책 기초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제안도 2020년 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검토되고 있다. 2019년 말을 기점으로 1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발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고찰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1.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한 영향 진단,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를 분석하였다. 본격적 분석에 앞서 1장에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을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혁신도시-원도심 물리적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성 강화, 원도심 유흥자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재생’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의 쇠퇴를 인구와 기업 및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2,996명 규모이다. 이 중 **모도시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51%**에 달하여 혁신도시가 모도시 인구유출에 미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2012~2017년 혁신도시 모도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7~2012년 대비 다소간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혁신도시 조성이 대부분 모도시의 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2012~2017년 동안 2007~2012년 대비 기업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전북을 제외한 9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모도시는 6개에 불과하다.

기업 및 일자리 변화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혁신도시와 모도시가 동반성장하는 유형이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내 기업 및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였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모도시(나주)와 주변 지자체(광주)에도 유치하였다. 둘째, 혁신도시는 성장하지만 모도시 파급력은 미진한 유형이다. 경남, 대구, 부산, 전북 혁신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모도시가 성장하지만 이를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충북, 제주, 강원 혁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는 많지 않거나 전무한 상태이지만,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다. 넷째, 혁신도시와 모도시 모두 어려운 유형이다. 울산과 경북은 혁신도시 내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고, 모도시의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 전국 및 주변 지자체 대비 매우 저조하다.

혁신도시-원도심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처방하기에는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하다. 대도시 소재 혁신도시도 입지여건에 따라 원도심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와 같이 쇠퇴한 원도심에 입지한 경우 도시재생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구혁신도시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오히려 도심부 쇠퇴에 일조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부산 영도구와 남구, 울산의 중구는 쇠퇴하고 있는 도심부였으며,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이 지역의 쇠퇴를 다소간 늦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전반적 쇠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혁신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소도시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와 재생은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원도심 쇠퇴의 원인이 반드시 혁신도시 때문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에 따른 공간재편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의 외곽화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원도심의 주요 기능을 문화관광, 소비, 상업, 공공서비스 등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김천, 나주, 음성·진천 등과 같이 혁신도시가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의 지역민에게는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충북, 광주·전남과 같이 실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은 발생했지만 모도시의 기업이나 일자리는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주, 나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원도심의 공간적 기능 분화를 수용하고, 원도심의 소비·관광·문화기반을 강화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의 위상을 살펴보면,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서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이 5대 추진과제 중 하나였다. 2019년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향의 4대 추진과제는 살기 편한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양성·채용, 추진동력 강화로 조정되었으며,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은 살기 편한 혁신도시 추진과제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들어갔다.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방안으로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문화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농림부), 발전기금 조성 유도과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재생 관련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새뜰마을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생발전 부문 추진과제 중 2018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2019년 예산투입 계획 중인 사업은 18개이며, 이 중 도시재생사업은 7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3개이다. 2019년

현재까지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5개 사업만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인력양성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광주를 포함하면 6개).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에서 총 13개 새뜰마을사업이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중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및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은 미미하다. 혁신도시 주변지역(인근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총 17개가 선정되었다.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군 2의 추진과제 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초점이 축소됨에 따라 상생발전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공기관 참여 유도, 지자체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장은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으로는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를 도모한 나주 원도심 사례,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한 세종시-조치원 원도심 사례가 있다. 특히 조치원 원도심 사례는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2014), 세종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5),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사례도 두 가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인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선정된 부산 영도구 대평동의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이다(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제안). 혁신지구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는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업 및 사례 검토결과, 15개 우수사례 중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이 9개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

은 성과를 보인다.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들이 명확한 콘텐츠를 제시한다. 셋째,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는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인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은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공장 등 원도심의 유희부지를 새로운 예술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해 가시적 성과를 보인 사업이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희공간 활용 사례인 나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발굴·제작하고, 이를 원도심 내 유희공간에 전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를 고찰하였다.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교통인프라를 구축한 세종시-조치원 원도심 BRT 연계계획 사례는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연계되어 있고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수록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도시와 광역교통거점(KTX) 연계를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사례는 교통 연계성이 취약하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 대안으로써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제안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을 활용한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원도심의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쇠퇴를 예방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어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참여형 재생사업에 가점을 부여

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를 발굴 혹은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여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소비공간으로써 원도심 자산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문화역사적 자산을 활용하고, 혁신도시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 기획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광역교통거점, 모도시(원도심) 간 교통연계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혁신도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인접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혁신도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혹은 한시적으로 새로운 공모 유형을 추가하고,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쇠퇴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 사업에 대한 시범사례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주변 모도시와 원도심 재생 관련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요청으로 연구의 중간결과를 두 차례 발표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가 2019년 11월 19일에 개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현황,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및 제도, 혁신도시와 인근 원도심의 상생발전 과제, 혁신도시와 원도심 상생발전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전라남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주최한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도 ‘구도심재생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혁신도시로 인한 모도시 인구유출에 대한 국회 및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의 요청으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위해 협의를 요구하고, 보고서 초안을 요청하여 이를 공유하였다.

본 연구의 혁신도시로 인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현황,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과제, 상생발전 전략 및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높은 관심으로 2020년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에 반영되거나 향후 관련 정책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모도시와 원도심의 인구와 일자리 변화 분석,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제도 고찰,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재생의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요 분석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중앙부

처의 정책 수요와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인구유입, 일자리 측면에서 모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정책 기초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제안도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지원정책과의 2020년 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은 처방 중 하나일 뿐이다. 2019년 말을 기점으로 1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발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고찰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과천: 건설교통부
-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내부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6월 12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균형위. 금년 9월말까지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6월 13일.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b. '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서울: 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c. 각 시군구 생활SOC복합화사업 사전검토서. 내부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2019.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한다, 4월 1일.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2019. '20년 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6.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4월 18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12월 14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8.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8월 31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9a.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4월 9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9b.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10월 8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c. 2019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및 실적 평가 지침.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d.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13.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4월 28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4. 혁신도시 정책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5. 지역생활권 내에서 혁신도시 역할과 기능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a. 혁신도시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b. 달동네 등 16곳 새마을사업으로 삶의 질 높아진다, 3월 15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a.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18~2027).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8b.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8c.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촉진방안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체계 구축.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8d.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마을사업... '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12월 4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e.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충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방안.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9b.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9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자료집.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9d. 공사중단 건축물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9월 3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e. 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1월 2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f.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g. 우리 동네 구청. 동사무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집니다, 8월

2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h.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7월 4일 발표자료

국토교통부. 2019i.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6월 2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시티 속도난다...통합스마트챌린지 출범, 1월 17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2019년 혁신도시 우수사업 및 우수 사례. 미
발간자료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b.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자료집. 12월
11일. 발표자료.

권규상. 2018.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김은란·박세훈·강호제·박경현·정소양·박재현·김보미. 2014.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
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김진범·정우성·송정현·남기범. 2017.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
안. 세종: 국토연구원.

김천시. 2015. 2025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김천: 김천시.

김천시. 2019.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김천: 김천시.

나주시. 2017a.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나주: 나주시.

나주시. 2017b. 전통지구와 혁신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나주: 나주시.

나주시. 2018a. 나주시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서(일반근린형)-근대유산과 더
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 나주: 나주시.

나주시. 2018b.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나주:
나주시.

나주시. 2019.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나주: 나주시.

대구광역시. 2016.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19.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대구: 대구광역시.

-
-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전국 19곳으로 확대 지원. 4월 4일. 보도자료
박소영·이왕건·박정은·임상연·정소양·정유선·김성제. 2016. 도시 내 국·공유 유희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5.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부산: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17.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부산: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안형)-근대 조
선사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부산: 부산광역시.
- 서민호·배유진·권규상·김유란·박성경·백지현·이권원·이상훈. 2018.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성장환·정연우·이상준·유종훈. 2014.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세종의 소리. 2019. 조치원 문화정원, 준공식 갖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생, 7월 29일.
보도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2016a.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세종: 세종특
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2016b.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신우화·신우진. 2017.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성과관리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39-52.
- 완주군. 2019. 완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보고서. 완주: 완주군.
- 울산광역시. 2015.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울산: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2016.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울산: 울산광역시.
- 원주시. 2014.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원주: 원주시
- 원주시. 2018.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원주: 원주시
- 원주시. 2019.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발
표자료. 원주: 원주시
-

윤영모·정우성·송정현. 2017.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음성군. 2019.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음성-음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음성: 음성군.

이승욱·김명수·조판기·김은란·구형수·박소영·김수진·배인영·김용기·임영식·조미향. 2018.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이왕건·김진범·박소영·권규상·송지은·정유선·민범식. 2017.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 과 발전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전주시. 2012. 2025년 전주시기본계획. 전주: 전주시.

전주시. 2019.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전주: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위원회. 2015. 지역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3월 24일. 보도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6. 지역위, 전국 새뜰마을 66곳 추가 지원, 2월 3일. 보도자료.

진주시. 2017. 2025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진주: 진주시.

진주시. 2019. 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진주: 진주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평가 및 효과제 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생활권' 으로 구축, 3월 21일. 보도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행복도시 광역BRT 개선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웹페이지】

Arhitectural Studios DESIGN LAB.

<https://www.designlab-architecture.com/blank-1> (2020년 2월 5일 검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http://www.molit.go.kr/mtc/USR/WPGE0201/m_36794/LST.jsp (2020년 2월 5일 검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municipality/statusInfo/link.do> (2019년 8월 12일 검색).
세종 아트컬리지 홈페이지. <http://www.jwart.co.kr/> (2020년 2월 5일 검색).
세종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youthsejong/sub01_02.do (2020년 2월 4일 검색).
울산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unggu.ulsan.kr/URC/urban/project.jsp> (2019년 9월 10일 검색).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youthsejong/sub02_02.do
(2019년 12월 3일 검색).

【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a. 혁신도시 통계자료. 6월 31일.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b. 혁신도시 통계자료. 12월 31일. 내부자료.
통계청.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5. 법률 제12215호(2014년 1월 7일 타법 개정). 제13조, 제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30217호(201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제17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 법률 제14937호(2017년 10월 24일 일부 개정).

SUMMARY



A Study on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Linked to Innovation Cities

Kim Eunnan, Seo Yeonmi, Jung Yousun

Key words: Innovative City, Regional Win-Win Development,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Urban Regeneration

Many Innovative cities have been developed as new towns, drawing criticism for accelerating outflows of population and hollowing-out of facilities in old city centers near innovative cities.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promote ‘win-win development’ between innovative cities and surrounding areas. This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es in order to vitalize urban regeneration in old city centers, by making better use of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into innovative cities.

Chapter 2 analyzed the decline of old towns adjacent to innovative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and business. The net outflow from 10 innovative cities to innovative cities has been 92,996 persons since 2012. And 51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innovative cities came from old residential areas in same municipal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growth rate of businesses based in surrounding areas of innovative cities in same municipalities was 8.1 percent between 2012 and 2017,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11.6 percen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surrounding areas of innovative cities during the same period was 15.2 percent,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16.5 percent, but higher than that of surrounding municipalities of 12.7 percent.

Chapter 3 reviewed current policies for win-win development between old towns and innovative c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urban regeneration in old towns linked to innovative cities through various public projects. 10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their ow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or each innovative city in 2018. And a budget has been allocated for 18 win-win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innovative cities and surrounding areas. And 28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selected near innovative cities.

Chapter 4 investigated cases of urban regeneration and innovation in old towns by making better use of local capacities and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We studied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made integrated plans for both innovative cities and old towns and public institutions in innovative cities carried out good projects for revitalizing old towns.

In last chapter, we suggested the four basic directions for regeneration of the original city center near innovative city. Firs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apabilities of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Second, we should make an inventory of vacant assets of old towns and regenerate as culture and consumption spaces. In addition, the use of vacant land and buildings in old towns can be reviewed for the potential demand of innovative cities. Third, traffic strategies are needed for enhancing accessibility between innovative cities and old towns. Public transport investments should be made through a step-by-step process such as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inkages among related projects such as Innovation Cit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nd so on.

부 록

APPENDIX



1.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부록 | 표 1 | 혁신도시별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지역		계	경제 기반	중심 시가지	일반 근린	주거지 지원	우리동네 살리기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5	1	1	1	0	2
대구	동구	1	0	0	1	0	0
울산	중구	3	0	1	1	0	1
광주·전남	나주	4	0	1	2	0	1
강원	원주	2	0	0	1	1	0
충북	진천, 음성	2	0	0	1	1	0
전북	전주, 완주	6	0	2	1	1	2
경북	김천	2	0	2	0	0	0
경남	진주	1	0	1	0	0	0
제주	서귀포	2	0	0	1	1	0
계		28	1	8	9	4	6

자료: 국토교통부(2013)와 국무조정실(2016, 2017, 2018, 2019a, 2019b)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 표 2 |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현황

지역	사업유형	선정 연도	대상지역	사업명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경제기반	2019	영도구	근대조선산업의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 로 전환하다(부산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심시가지	2016	영도구	영도 대통전수방(大通傳授房) 프로젝트
	일반근린	2018	해운대구 반송2동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우리동네살리기	2017	영도구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복덕방
		2019	남구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대구 동구	일반근린	2017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울산 중구	중심시가지	2016	중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일반근린	2017	중구	군계일학(群鷄一鶴), 학성
	우리동네살리기	2018	중구 병영2동	깨어나라! 성곽도시

지역	사업유형	선정 연도	대상지역	사업명
전남 나주	중심시가지	2018	금남동	(LH)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일반근린	2016	금남동·성북동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영산동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우리동네살리기	2018	죽림동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강원 원주	일반근린	2017	학성동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주거지지원	2018	봉산동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충북 음성	일반근린	2018	음성군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음성 중심도시!
	주거지지원	2019	음성군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전북 전주, 원주	중심시가지	2019	전주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주시 우아동3가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일반근린	2016	전주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주거지지원	2018	완주군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東窓)마을
		2017	전주시사원상동 1가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2017	완주군	서로 어우러져 꿈꾸는 새원
경북 김천	중심시가지	2018	김천시	자생(自生)과 상생(相生)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2019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일부)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 감호 HAPPY TOGETHER
경남 진주	중심시가지	2016	성북동, 중앙동	나눔과 머뭇, 도심을 치유하다
제주 서귀포	일반근린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캔(CAN) 팩토리과 다시 사는 모슬포
	주거지지원	2019	서귀포시	훈디 온심영! 지켜진 월평마을 만들기

자료: 국토교통부(2013)와 국무조정실(2016, 2017, 2018, 2019a, 2019b)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3목).
-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도시재

생법 제2조 제1항 4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5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도시재생법 제1조 제1항 6목).

2. 혁신도시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부록 | 표 3 | 10개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지역		총 개수	2015	2016	2017	2019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2	1	1	0	0
대구	동구	0	0	0	0	0
울산	중구	0	0	0	0	0
광주·전남	나주	0	0	0	0	0
강원	원주	0	0	0	0	0
충북	진천, 음성	2	1	1	0	0
전북	전주, 완주	4	2	1	0	1
경북	김천	1	1	0	0	0
경남	진주	3	1	1	0	1
제주	서귀포	1	0	0	0	1
계		13	6	4	0	3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5, 2016), 국토교통부, 2017b, 2018d),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2019)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 표 4 |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새마을사업 현황

지역	선정연도	대상지역	대상지 특징
부산 영도구 남구	2015	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마을	■ 전쟁포로 1수용소, 18년민수용소 등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영세 민 밀집지역
	2016	남구 우암동 우암마을	■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소막사를 개조해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주거불량지역
충북 음성	2015	음성군 금왕읍 봉곡2리	■ 슬레이트 주택, 공폐가 등 노후시설이 산재
	2016	음성군 대소면 내산4리	■ 산업단지에 인접하고 있으나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마을로, 특히 하수시설이 노후화되고 구배가 맞지 않아 오수가 역류하는 등 위생여건이 취약
전북 전주	2015	전주시 팔복동 준공업지역	■ 주변에 공업지역 입지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등이 심하고, 하천제방보다 낮은 지대로 침수위험 상존
		완주군 동산면 신월리	■ 상하수도 미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이 높은 마을
	2016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승암마을	■ 2003년 공원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된 곳으로 산자락에 위치한 서민밀집지역.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 배수시설 협소로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고 있음
	2019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	■ 하천부지와 절개지에 위치한 상습 침수지역이며, 절개지의 풍화 가 진행되어 암반붕괴로 인한 마을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 ■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50%), 하수도 보급률(0%), 재래식 화장실 사용 주택비율(38.5%),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68%) 등이 매우 높아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
경북 김천	2015	성내동 31 ~ 34통	■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하면서 경사지에 형성된 김천의 대 표적인 달동네
경남 진주	2015	진주시 옥봉동	■ 옥봉동 산비탈을 따라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주거지 형성
	2016	진주시 상봉동, 봉래동	■ 상봉동, 봉래동 산비탈을 따라 골목길과 오래된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현재는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후화로 기반시설과 주 거환경 열악
	2019	진주시 유곡동	■ 진주시 유곡동 죽전마을 일원은 주거지역의 취약 정도가 심각하고 구조적인 접근성 불량,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 마을 내 배수시설이 없어 우천 시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 및 주거 지, 도로 등의 침수로 인해 주민안전이 위협
제주 서귀포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74%)이 높고 슬레이트 주택비율 (52%)도 상당히 높고, 하수도 시설 62%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폐가, 축사 등 혐오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불량경관을 연출하고 마을 의 오래된 세전은 우기 시 범람의 위험현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을 옆을 지나는 도로와 맞닿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5, 2016), 국토교통부(2017b, 2018d),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2019)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생활 SOC 복합화 사업(2019년)

부록 | 표 5 | 10개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지역		개수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 (백만 원)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3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남구청 별관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70
			우암동 복합청사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1,753
대구	동구	1	행복복지센터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170
울산	중구	1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광주· 전남	나주	1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3,900
강원	원주	2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050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417
충북	진천, 음성	1	충북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 눔터	50
전북	전주, 완주	2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4,162
			전주 청년센터 청년청	주거지 주차장, 작은도서관	2,512
경북	김천	1	HappyTogether 센터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186
경남	진주	2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850
			장애인 문화도서관 설치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100
제주	서귀포	3	서귀포시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2,533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계		17			49,265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 보도자료. pp.9~20에서 발췌 후 재구성.

부록 | 표 6 |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특징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및 특징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 기존 남구국민체육센터의 수요대비 절대부족 공간이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임을 감안하면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신축 건물 건립을 통한 적정 공간 확보 필요
	남구청 별관 복합화	■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남구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조성 필요
	우암동 복합청사	■ 현재 대규모 뉴스테이 재개발지역으로 감만동, 우암동이 선정되어 2~3년 뒤 많은 인구유입과 변모가 있을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해 대연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예정지와 별개의 생활문화센터 구축이 필요
대구 동구	행복복지센터	■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함께 생활 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생활 혁신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울산 중구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 공공재적 성격의 도서관은 주민의 교육·문화적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2개소(1,000㎡미만)로 타 지역 정주민구 대비 도서관 규모 및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숙원도가 매우 높은 편임
전남 나주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 부족한 주거지 주차공간 해소와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주차수요 수용을 위한 주차장 건립 필요
강원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 공동주택용지 중심부 및 초등학교 인접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토지 및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요구에 부응과 여가선용에 기여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 원주 북부권(태장1·2동, 소초면, 우산동, 호저면)은 군부대시설과 공장 등의 집중으로 문화 및 생활, 보건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임 ■ 복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약지역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 완화와 문화 및 보건 서비스 불균형 해소 도모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거주 인구가 증가하여 이에 걸맞은 다양한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및 특징
전북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 에코시티 주거단지의 개발 및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필요
	전주 청년센터 청년청	■ 청년공동체의 활동무대가 될 청년청 안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계발, 취·창업 등 관련 서적과 공동체 공간, 독서동아리 등 사업을 통합적 제공하여 정책간 시너지 효과 및 유기성 확보
경북 김천	HappyTogether센터	■ 노년+중장년+아이들 삼대(三代) 주민이 다같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창출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설 연계를 통한 공간 부족 현상 해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승 시너지 효과 유도
경남 진주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은 현재 국내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특히 진주 기업가정신)을 콘텐츠화하여 시민들이 이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 문화도서관 설치	■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은 모든 시설이 장애인 위주로 계획되어 시설 내에서 장애인 이동,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서, 심신단련과 더불어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서귀 포	서귀포시 가족복합센터	■ 사업예정지는 12개 동지역 중 최근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사업, 가족지원 사업 수행에 적합 ■ 가족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복합화 사례로서 최초) 복합화로 다양한 가족의 기능회복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설로서 따뜻한 공간 지향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 다양한 체육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어르신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복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 및 건전문화 확산에 기여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 동지역에 비해 열악한 읍·면지역의 문화체육진흥 기반 조성에 기여 ■ 지역별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c. 각 시군구 생활SOC복합화사업 사전검토서, 내부자료(미발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부록 | 표 7 | 주요 추진과제 목록(2018년 이전 사업)

지역	부 문	주요 추진과제
부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STEM 빌리지 조성
		■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 구축 및 실감형 융합 콘텐츠 개발
		■ 지역 조선·에너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KOSPO Sea Star Power 프로젝트』
		■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및 현장인력 창작역량 강화
		■ 현장실습 중심 금융 오픈캠퍼스 운영
		■ 부산 VR/AR 제작지원센터 설립 및 실감형 콘텐츠 개발
부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해양안전 서비스 구축
		■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상생발전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희망을 주는 시설 및 주거 개선사업(HOPE with HUG 등)
		■ 동천 생태하천 복원
대구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 혁신도시종합병원 건립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수련원 건립
대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상생발전	■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광주·전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립
	상생발전	■ 이천공공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리빙랩 특화사업 ■ 유희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 활성화
울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친환경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
		■ 전지·ESS 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건립
	정주여건 개선	■ 중구대표도서관 건립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상생발전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지역	부 문	주요 추진과제
강원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융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오픈랩 구축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지역인재 체험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정주여건 개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지원
		■ KEDI 협력학교 서전교 육성 및 유·초·중학교 확대
	상생발전	■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전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 및 운영
	정주여건 개선	■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경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
	정주여건 개선	■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상생발전	■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추진
경남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정주여건 개선	■ 방과후 학습 및 차일드케어
		■ 혁신도시 내 둘레길 조성
		■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제주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
		■ (가칭)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 추진
	정주여건 개선	■ 제주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상생발전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2019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자료집. pp.5~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 표 8 | 주요 추진과제 목록('19년 사업)

지역	부 문	주요 추진과제	
부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해양·수산분야 석·박사 인턴 연구원 제도	
대구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대구산학융합지구 추진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 지원 ▪ 글로벌 뇌연구생태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	▪ 스마트시티 첨단교통체계 구축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광주·전남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빛가람빛고을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 (에너지신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 ▪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선도도시 조성 (대규모ESS실증사업)/(폐배터리재활용기술개발센터설립) ▪ ICT융합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	
	정주여건 개선	▪ 어린이·청소년 테마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호수공원을 활용한스마트에너지혁신마당조성) ▪ 빛가람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에너지·온실가스통합관리시스템및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구축)	
울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국가산업단지 ESS 구축 사업	
	정주여건 개선	▪ 친환경·지속가능한 울산형 스마트 AoT 사업	
강원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	
	정주여건 개선	▪ 건강한 정주환경을 위한 10minute 여가공간 조성사업 ▪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 스마트 시티 MasterPlan 수립 지원 ▪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강원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상생발전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반곡역 도시재생사업
충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충북혁신도시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 초고층 태양광설비 융복합 실증 연구센터 건립 ▪ 도로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증 사이트 구축 ▪ 혁신도시 IPP형 일하습 병행제 운영 ▪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정주여건 개선	▪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생활안전구역,특화거리,교통서비스)	
	상생발전	▪ 혁신도시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전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농생명 혁신캠퍼스(산학융합지구) 구축 ▪ 최첨단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지역선도대학육성)	
	정주여건 개선	▪ 주민 여가 및 힐링을 위한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 철도 거점과 연계한 공유 교통체계 구축	
		상생발전	▪ 농촌정원 조성사업 ▪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부 문	주요 추진과제
경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 구축 ■ 도로·교통 특화 드론산업 육성 ■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지역학교-이전공공기관 연계 공동오디션 개최 ■ 이전공공기관 연계 계약학과 운영 ■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
	정주여건 개선	■ 전기전력안전체험관 건립 ■ 생활체육 광장 조성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스마트공유 모빌리티 도입 ■ 이전공공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상생발전	■ 로컬푸드 판매장터 확대 및 운영
경남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강소특구지정 ■ 혁신도시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기술사업화」지원 ■ 항공우주관련 트랙(항공우주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지원 ■ 직무역량 강화 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벨리 추진
	정주여건 개선	■ 혁신 브레인 센터(지능형 스마트 Big Data 센터) 건립 ■ 지능형 교통서비스 구축
	상생발전	■ 상생 농식품마켓 플랫폼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 혁신도시 지역청년실패드 조성
제주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스마트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 기상학 관련 연구인력 육성
	정주여건 개선	■ 안전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형도시환경 조성(CPTED) ■ 전기차지원형 렌트카 하우스 조성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상생발전	■ 마을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c, 2019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및 실적 평가 지침, 발표자료 별첨6.

부록 | 표 9 | 자체 추진과제 목록(2019년 예산 투입사업)

지역	부 문	자체 추진과제
부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 혁신센터(SEA STEM) 설립·운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연구센터 설립·운영 ■ 부산지역 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이전공공기관 관련 부산광역시-이전공공기관 공동 경진대회 개최 ■ 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정주여건 개선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아가멤센터설치 및 운영 ■ 문화 콘텐츠 창출을 통해 시민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드는 문화도시 구현 ■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위험도로구조개선 ■ 동삼혁신지구 안내도 설치사업 ■ 문현혁신지구 안내도 설치사업 ■ CCTV를 활용한 스마트 교차로 서비스 ■ 스마트 빌딩 에너지관리 서비스
	상생발전	■ 부산증권박물관 건립 ■ 옥상달빛 프로젝트(알록달록 옥상달빛) ■ 드림하우스 연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이전공공기관 중심의 오픈캠퍼스 운영 ■ 전문상담 및 청소년 포럼 개최
대구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대구식약청 이전 및 기능 강화 ■ Medi-Startup 지원사업 확대 ■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 이전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 국가근로장학사업 ■ 이전공공기관 인턴/현장실습 ■ 이전공공기관 멘토링 ■ 이전공공기관 자유학기제 ■ 한국감정원, 경북대학교 석사과정 공동 운영 ■ 한국장학재단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정주여건 개선	■ 혁신도시 맞춤형 전문강좌 운영 ■ 대구소방학교(동부소방서 이전·통합) 건립
	상생발전	■ 대구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찾아가는 음악회 ■ 혁신도시 가로 경관 정비 ■ 혁신도시 우수 농축특산물정례직거래장터 ■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 이전공공기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 컨설팅/상담/마케팅 지원 ■ 종사자 교육훈련 ■ 상생펀드 조성 및 사업자금 지원 ■ 대구경북 건설부동산·구조고도화포럼 운영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지역	부 문	자체 추진과제
광주·전남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외투기업 유치 지원 ■ 채용박람회/취업설명회 ■ 일자리 매칭, 현장실습 지원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 창업 보증, 창업 경진대회 등 ■ 산학연 R&D 지원 ■ 안심팩토리(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 ■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정주여건 개선	■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추진 ■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 로컬푸드 이용 확대 사업 ■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산 분위기 제고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 에너지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설립
울산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동북아 에너지(오일&가스) 구축사업 ■ 발전분야 신에너지사업 추진(울산 e-exchange 센터 건립) ■ 울산혁신대학원대학교 설립
강원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공공기관 취업동아리 지원 및 멘토-멘티사업 ■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충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이전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조성 ■ 합동채용설명회 및 방문 로드쇼 개최
	정주여건 개선	■ 어린이 물놀이장 건립 ■ 내부순환버스 운행 확대 ■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연계 공유교통 서비스 구축
	상생발전	■ 공공기관 상생발전 브랜드 과제 개발 운영 ■ 이전공공기관 연합 충북혁신도시 교육·문화 아카데미
전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확대 개최 ■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주여건 개선	■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전북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상생발전	■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협의체 운영 ■ 지역제품 구매 플랫폼 구축 ■ 공공기관 자산공유 시스템 구축
경북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경북대 수의과대학 및 동물병원 유치 ■ 동물백신아카데미 운영 ■ 지역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일자리창업진흥원(가칭) 설립 ■ 현장실습 중심 오픈캠퍼스 운영 ■ 지역인재 장학사업 확대 ■ 이전공공기관 찾아가는 합동채용 설명회

지역	부 문	자체 추진과제
	정주여건 개선	■ 농산물안심홍보관 건립 ■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공공의료시설 등 병원 유치 지속 추진 ■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 무료 공공 WiFi 서비스 구축 ■ 대기환경 스마트 측정 시스템 구축 ■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운영 확대
	특화발전 지원	■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확대 ■ 채용연계형 지역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경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한일병원 신축사업 ■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 ■ 스마트 문화 놀이터(건립 예정인 복합문화도서관 및 주변) ■ 스마트 바이크로드
	상생발전	■ 서부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 ■ 이전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사업 ■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이전공공기관 지역사회 기여 강화 지원
제주 혁신도시	특화발전 지원	■ 이전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전공공기관 업무 관련 경연대회 및 장학금 지원 ■ 이전공공기관 채용 관련 플랫폼 구축: 인턴·채용정보 사전 고지제 및 합동채용설명회 ■ 공공기관 현장실습 및 체험형 인턴제 확대 ■ 해외교류 연수기회 확대
	정주여건 개선	■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 제주혁신도시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9c. 2019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및 실적 평가 지침 발표자료 별첨7.

5.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2019년)

부록 | 표 10 | 2019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 개요
광주·전남 나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내 에너지 지식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활동기반을 마련 ■ 3년간 30개 입주기업 지원, 257명 고용유발 등 지역발전 효과 기대 ■ 지역 내 관련 산업 유치 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성장단계 별 지원할 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예정 ■ 하반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신청 예정
전북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 혁신도시 내 저수지(기지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 ■ 2018년부터 민관협력 거버넌스(다올마당)의 구성: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건의, 계획 구체화 ■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예정
울산 중구	울산 혁신도시 대표도서관 건립	■ 중구지역 첫 중규모 도서관(900㎡ 이상)을 혁신도시 내에 건립 ■ 혁신도시 및 인근 원도심 주민이 함께 이용(중구 주민 47.3%가 도서관 필요) ■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발전 효과

자료: 국토교통부. 2019.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기본 20-02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연구진 김은란 · 서연미 · 정유선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20년 2월 1일

발행 2020년 2월 4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8,000원

I S B N 979-11-5898-522-6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김은란, 서연미, 정유선. 2020.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Linked to Innovation Cities



- 제1장 서론
- 제2장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 제3장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 제4장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 제5장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